Buddhanews.com

현대불교

辛卯年

곤란함과 고통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양약이다. 〈보왕삼매론(寶王三昧論)〉

우리를 괴롭히는 일체의 곤란함과 고통은 한 생각 돌이키면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



제820호 | 2011년 1월 26일 수요일 (음력 12월 23일 · 불기 2555년 · 주간)



다 같은 생명!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 된 가축의 수가 200만 마리를 넘어선 가운데 조계종 직할교구(직할교구장 총무원장 자승)는 1월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구제역 종식 발원 및 희생동물 천도재'를 봉행했다. 종단 중앙종무기관 소임 스님과 구제역 피해 농축산민, 동물보호협회 관계자 등 천도재에 참석한 1000여 사부대중은 하루빨리 구제역이 종식되기를 기원하며 희생동물들의 넋을 위로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희생동물을 추모하는 서원지를 달고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박재완 기자**

불교문화상품 안 팔아요. 왜?

142편 수상작 중 단 2건만 상품화… 시장형성과 상품 투자 고민만 되풀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추진해온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이 올해로 4회째를 맞았지만 본격적으로 상품화된 제품이 미흡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은 다양한 불교 컨텐츠를 개발해 불교인구 저변확대와 전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올해도 제4회 불교문화상품전 시상식이 1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박연옥씨의 '내 마음의 풍경'이 대상에 선정됐다. '내 마음의 풍경'은 금속으로 제작된 불상, 사찰, 연꽃 등의 모양을 중첩시켜 메모나 명함, 필기류를 넣을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공모전을 통해 총 142편의 작품을 선정해 왔다. 수상작은 불교적 모티브, 아이디어, 실용성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그동안 출시된 선정작은 1회 입선작인 불교적 문양이 장식된 북마크와 2회 입선작인 단청 문양을 포장에 활용한 티슈 정도다. 이마저도 사업단이 위치한 템플스테이회관 까페에서 판매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모전의 취지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불교문화 관계자들은 그동안 선정작 중에서 아이디어가 돋보이거나 제품화가 기대되는 작품들이 있었음에도 사업단이 티슈와 책갈피 정도만 출시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2회 대상작 '연지'는 욕조 마개에 연꽃을 연결해 욕조에 물을 채우면 연꽃이 수면위에 떠오르는 제품으로 심사위원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3회 우수작으로 선정된 '卍 Usb 2.0 HUB'는 불교를 상징하는 만(卍)자를 형상화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불교문화 상품을 기획 · 판매하는 한 관계자는 "당선이 돼도 상품화가 늦어지니 관심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아이디어가 묻힌다고 생각해 출시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불교문화사업단은 제품 출시를 위한 후속 작업에 신중한 검토와 세밀한 조사가 필요해 제품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단은 선정된 작품들의 스토리텔링, 시장성, 생산 업체 선정, 제품화 속도 등을 고려해 제품 출시를 결정하고 있다.

사업단은 공모전에서 선정된 제품이 불교용품점은 물론이고 일반 상품점에서도 판매될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판매 루트 개척과 물류 · 유통을 담당하는 조직이 전무한 실정이다. 공모전을 통해 디자인 및 아이디어 제품이 선정되면 제품화를 위한 후속 작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불교계 상품 시장이 가내 수공업 수준의 전 근대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면 아이디어가 좋아도 판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신뢰할 수 있는 현대적 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판매이익 산출과 투자 유치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불교계에 특화된 시장과 생산시설,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인 셈이다.

불교문화사업단 관계자는 "상품 출시를 위해서는 제작, 시장성, 유통, 수익 등을 고민해야 한다. 사업단이 이 부분까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고민이다. 제작과 유통 문제 해소를 위해 내부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 관계자는 "종단에서도 불교문화상품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갖고 사업단과 꾸준히 논의 중이다. 수익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조계종 수익사업 철없는 결정 아쉽다"

페이스북 '부루나'에는 불교 희망·비판 메세지 가득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인기다.

교계에서도 페이스북을 이용한 커뮤니티활동이 활발하다. 3개월 전 개설된 비공개 커뮤니티인 '부루나'는 교계 안팎에서 활동 중인 스님, 불자 3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부루나'에서는 불교의 교학적 논의서부터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일간지에 비춰진 불교계 소식 등 다양한 글들이 게재되고 댓글을 달아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최근 상조사업, 먹는샘물 사업 등 수익사업의 전개를 진행하는 조계종에 대한 우려를 담은 글들에 많은 댓글들이 달려 눈길을 끌었다.

처음 이 글을 게재한 A씨는 "조계종이 상조사업, 먹는샘물 사업에 이어 2555년에는 된장 등 전통식품 사업을 모색하고 있으며 나아가 문화재보수 등 전통건축 사업에도 뛰어들 모양이다. 건설 사업을 잘하면 한 밑천을 남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종단에 그런 조언을 한 사람이 있는 모양"이라며 "종단이 건설사를 설립해 돈 되는 문화재보수 공사를 모조리 싹쓸이하면 돈이 될 것이라는 감언이설이 먹힌 모양인데 그런 독점을 하게 되면 공정거래 위반으로 지탄을 받고 엄청난 과징금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종단의 수익사업이 이런 식으로 철없이 결정되는 것이 심히 걱정된다. 더 걱정되는 것은 과연 수익사업을 부추기는 브로커들의 말대로 돈이 될까하는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A씨는 종단의 수익사업은 종교 활동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예측했다.

A씨는 "200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불자 수는 1700만 여 명이다. 1인당 1년에 1만원씩만 팔아도 1072억 원이니 브로커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갈만하고 장밋빛 청사진에 혹할 만하다"며 "그런데 문제는 통계를 믿고 불교계에 뛰어든 기업이 모두 두 손 두 발 들고 나갔다는 사실이다. 통신사, 카드사, 상조회사, 샘물사업 회사도 통계만 믿고 뛰어들었다가 초라한 현실에 발을 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이어 "2003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는 주1회 예배활동 비율이 40.6%이고 가톨릭은 36.0%인데 불교는 주1회 법회참석률이 2.3%에 불과하다"며 "이것은 월 1회 법회에 참석하는 신도가 130만 명이라는 이야기이고 사찰평균으로 하면 92명이다. 조계종 사찰 3000곳으로 따진다면 433명에 불과하다. 불교를 상대로 사업을 할 경우 433명 중 몇 명이 구매를 할까"라고 게재했다.

A씨의 글에는 많은 수의 댓글이 달렸다.

한 누리꾼은 "불교도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마음을 합쳐 잘 해보고자 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수익사업에 앞서 좀 더 많은 발전과 노력,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먼저다. 우선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TV, 라디오, 컴퓨터 등을 이용한다면 수익사업에 바탕이 되는 불자들이 모일 것"이라고 했다.

수익사업보다는 문화콘텐츠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불교 관련 뮤지컬이 만들어져서 불교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아니면 대불련 문화부나 여름대회를 종단에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제시할 수 있게 하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발족

불교계 NGO와 신행 · 포교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가칭)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발족한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1월 27~29일 제주 동양콘도에서 기구 발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관련 단체 실무자 40여 명이 참석한다.

불교시민사회네크워크에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NGO와 불교여성개발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신행단체 24개 단체가 참여한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4대강생명살림 연대활동, 봉은사 문제, 문수 스님 소신공양 등 주요 현안마다 공동대응 해왔다. 이때마다 불교계 안팎에서는 불교시민사회가 공동의제를 개발하고 연대활동 전개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준비위원회는 "불교시민사회 활동의 표준화와 역량개발을 위한 공동노력 등을 전개해 단체별 성장과 연대의 상생구조를 만들고자 불교시민사회네크워를 출범하려 한다"고 창립취지를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불교계 단체의 사업 내용 공유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활동 방향 논의 등이 진행된다. **조동섭 기자**

CONTENTS

▶9 현장속으로
서산 부석사 겨울 한문학교



▶11 운창화의 선원총림을 가다



▶12 감성으로 가는 부도밭기행



▶19 새 연재
이은정 기자의 뻔뻔한 레시피



조계종 전국서 생명살림 법회 봉행

조계종이 종단 산하 3000여 사찰에 4대강사업 현장을 찾아 '생명살림과 환경수호를 위한 정월방생법회'를 봉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총무원이 법회 장소까지 지정해 법회 운영지침을 하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다. 이번 행사는 조계종이 실질적인 4대강 반대 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동섭 기자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능인향당
능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장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당신과 나누고 소통하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내 영혼의 작은 책

내 영혼은 깊은 사색과 명상을 통해 작은 꽃을 피운다.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기차에서, 비행기에서,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간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다양한 주제를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담아낸 실용적인 민족사 시리즈 책입니다.

교리 · 입문 | 사성제 · 팔정도
이필원 _ 값 6,500원
성스러운 진리, 올바른 삶의 길

교리 · 입문 | 육바라밀
성재헌 _ 값 6,500원
여섯 가지 실천 덕목

수행 · 명상 | 생활명상
김남선 _ 값 6,500원
내 마음 알기, 내 마음 치유하기

수행 · 명상 | 위빠사나
정준영 _ 값 6,500원
번뇌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찾는다

신행 · 문화 | 관세음보살
김호성 _ 값 6,500원
나무관세음보살. 자비 실천의 모범

신행 · 문화 | 아미타불
여여법사 _ 값 6,500원
나무아미타불. 죽고 나서를 기약하지 마세요

신행 · 문화 | 사십구재
구미래 _ 값 6,500원
고인을 떠나보내는 49일간의 마음 준비

내 영혼의 작은 책 시리즈는 〈교리 · 입문〉, 〈수행 · 명상〉, 〈신행 · 문화〉 테마별로 계속해서 출간 될 예정입니다.

|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 이메일: minjoksa@chol.com 홈페이지: www.minjoksa.org 민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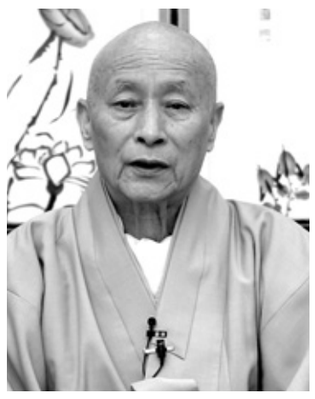
인공 총무원장 "임기 중 사퇴 안한다"

태고종 신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선암사 분쟁 합의될 것"

"일부 종도의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임기 중 사퇴는 없으며 종단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1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전승관에서 신년 교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기 2555년(2011년) 종단 역점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님은 "나는 한 번도 사퇴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총무원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다. 주어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석한 총무부장 상하 스님도 "11월 종회에서 총무원장 탄핵을 통한 종권 흔들기가 무산됐지만 여전히 재시도 움직임이 남아 있다"면서 "한국불교전승관 불사 등 시급한 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공 스님은 "조계종-태고종간 분규사찰인 순천 선암사 소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위원회를 구성했다. 봉원사 합의를 이룬 선례가 있는 만큼 조계종과의 선암사 합의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조계종 중앙종회 순천선암사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일문)는 태고종에 각 5인의 협의위원을 위원회에는 태고종 부원장 화경 스님과 총무부장 상하 스님,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20일 선암사 전산총회를 열어 2인의 위원을 선출한다.

이를 위해 태고종은 20일 선암사 전산총회를 열고 태고종 측 5인의 협의위원으로 당연직인 부원장 화경 스님, 총무부장 상하 스님,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 외에 지암·청하 스님을 선출했다.

또, 태고종은 교육기관 편제 정비를 통한 인재불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불교문화전승관에 자리한 법륜승가전문대학을 중앙승가전통강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대교·사집 과목 중심의 전문교육기관으로 운영키로 했다.

승가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4학기제로 학기별 전문강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조동섭 기자

전국에서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 열린다

1년 동안 교구본사별 시행

민족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불교계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수원 용주사(주지 정호)는 1월 21일 용주사 효행교육원에서 '민족문화수호와 종교평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용주사에 이어 전국 각 교구본사별, 광역시도별 민족문화수호위원회가 결성되고, 민족문화수호와 종교평화를 위한 결의대회가 잇따라 개최된다.

용주사 결의대회에는 본말사 스님 60여 명과 신도 임원 500여 명이 참석해 자성과 쇄신을 통한 새로운 불교로의 변모를 발원하고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7일 불교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은 지역별 민족문화수호 움직임에 불교 각 단체들과 불자들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현재 종단이 펼치고 있는 민족문화 수호 활동은 누구를 탓하기 앞서 우리 스스로 잘못된 지난 과거를 참회하고 긴 호흡으로 변화하고 쇄신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함께 하자는 운동"이라며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지역별 결의대회를 앞두고 각 지역 교구본사는 종단 방침에 힘을 모을 것을 밝혔다. 용주사와 봉선사는 13일 경기도의 도내 39개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 및 정비사업비 61억3750만원 지원안에 대해 종단의 별도지침이 있을 때까지 보수 및 정비사업비 수령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선 7일, 민족문화수호위원회(공동위원장 정우·원행·영담 스님)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첫 번째 연석회의를 열고 지역별 수호위 조직을 구성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불학硏 호국불교 인식 바꾼다

조계종이 호국불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소장 원철)는 1월 17일 호국불교연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에 이어 호국불교연구팀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에는 진옥 스님(여수 석천사 주지)과 김경집 진각대 교수, 김덕수 군종법사,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 남동신 서울대 교수, 정병삼 숙명여대 교수, 한진수 원광대 초빙교수 등이 참여한다.

노덕현 기자

진각종 '진각문화전승관' 낙성

진각종은 1월 17일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 내 '진각문화전승원' 입주불사를 갖고 중앙종무기관 이전준비에 들어갔다.

진각문화전승원은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전통양식과 현대식 시설이 조화된 건물로 복합전시관과 종조박물관, 밀교체험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진각종 중앙종무기관은 전승원 3층과 4층에 자리하게 된다.

노덕현 기자

의연·만당 스님 백양사 종회의원 당선

조계종 제18교구 백양사 중앙종회의원에 의연 스님과 만당 스님이 당선됐다.

백양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법일)는 "1월 17일 백양사 중앙종회의원 재선거를 실시한 결과, 53표를 얻은 만당 스님(영광 불갑사)과 47표를 얻은 의연스님이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성호 스님, '멸빈'서 '제적'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당선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 성호 스님(前 금당사 주지)의 징계가 멸빈에서 제적으로 경감됐다.

조계종 호계원(원장 법등)은 1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60차 재심심판부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호계원은 호법부가 성호 스님의 징계 근거를 변경해 청구한 특별재심을 심리해 이같이 결정했다.

2010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호 스님에 대한 징계처분(멸빈)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동섭 기자

정범 스님, "종도들에게 참회합니다"



정범 스님이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천막정진에 들어갔다.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사 입구에 천막치고 무기한 기도 정진 돌입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이 1월 13일부터 조계사 주차장 입구에서 참회의 천막정진에 들어갔다.

"불교계 내부의 청정성 회복과 자정에 게으르고 불의를 용인한 것을 참회합니다. 권력이나 금력과 타협해 고통 받는 중생들을 외면하며 살아온 지난 삶을 참회합니다. 한국불교 1700년 전통과 정체성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한 것에 참회합니다. 비불교적 행위를 용인하고 그들과 타협해 온 지난 과거를 참회합니다. 정부의 종교편향과 이교도의 훼불행위를 저지하지 못하고 삼보를 외호하지 못했음을 참회합니다."

영하 10도, 체감기온 영하 20~30도를 오가는 엄동설한의 추위에도 천막 하나만 치고 스님이 참회정진을 시작한 이유다.

스님은 "출가자로 스스로 반성하고, 더 많은 대중과 만나 대화하고 민족문화 수호를 위해 불교계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가야산 보존을 위해 천막정진을 한 스님은 당시 불교계와 시민사회의 연대로 순환도로 추진 등 각종 개발계획을 저지한 경험을 예로 들었다.

스님은 "민족문화수호활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난 국민적 지지와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천막정진을 옥천암 1000일 기도 중 8차 100일 기도로 진행중이지만 회향일은 무기한이다. 스님은 "민족문화 수호 의지가 교계 전체로 확산돼 실천으로 옮겨지는데 미력하나마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님의 일과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찾는데 맞춰져 있다.

스님은 오전 동안은 기도와 참회로 보내고 오후에는 지율 스님의 4대강 사진전 봉사 등 대외활동을 겸한 대중과의 소통에 나선다. 오후불식을 기본으로 숙식은 천막에서 해결한다.

노덕현 기자

법일 스님, 구족계 삭제 심판 청구

"총무부가 무단 삭제 불이익·명예훼손 당해"

청송 대전사 주지 법일 스님이 1월 20일 총무원이 자신의 구족계 수지 기록을 삭제한 데 대해 총무부장 영담 스님을 상대로 호계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후보자격과 관련해 구족계 수계 사실 여부를 이유로 총무원 총무부와 공방을 벌여왔다.

법일 스님은 심판청구서에서 "총무부와 영담 스님이 종법에 의하지 않고 총무부장 전결로 제소인의 구족계 수지기록을 무단으로 삭제하고 승적기재사항을 임의로 변경 처리했다"며 "총무부의 부당한 처분과 직권남용으로 불이익을 받고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법규위원회가 제소인의 구족계 수계를 인정한다고 결정했음에도 총무부장이 제소인의 수계 기록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법규위원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무부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조사와 법규위원회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선 18일 총무원은 영천 은해사에 법일 스님의 구족계 수계 기록 삭제를 알리는 통보문을 발송했다.

조동섭 기자

관음종 제13대 중앙종회 출범

관음종이 1월 13일 제48차 중앙종회를 열고 제13대 중앙종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종회에서는 종회의장에 법명 스님, 부의장에 혜동·혜산 스님이 선출됐다.

2555년(2011년) 주요 사업으로 개산조 태허 조사 선양 사업, 영산계단 수계 산림 봉행, 한중일대회 등 국제교류행사 동참, 개교 5년차인 서울불교문화대학 활성화 등을 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 46억 8900만원을 승인했다.

조동섭 기자



자승 스님, 구제역 순직 공무원 위로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구제역 방역 중 숨진 공무원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자승 스님은 故 금찬수(안동시청)씨와 故 김경선씨(영양군) 유가족들을 1월 18일 총무원 4층 접견실에서 만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유가족들에게 미리 준비한 단주를 직접 손목에 채워주며 용기를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슬픔을 이겨내시길 바란다. 유가족들을 위해 종단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圓 大韓佛教禪覺宗 宗正 暎潭堂 正業大宗師 寂

대한불교선각종 종정 영담당 정업대종사님의 다비식에 참여해주신 대덕큰스님과 각급 기관장 및 사부대중에게 감사드립니다. 선각종 전종도는 큰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화합하고, 늘 깨어있는 종단을 만들고자 수행정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큰스님 49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49재 일정

- ◆ 초재 : 1월 20일 (음 12월 17일) 목요일 강진 선각총림 옴천사 (061-433-2233)
- ◆ 2 재 : 1월 27일 (음 12월 24일) 목요일 광주 무애정사 (062-229-2911)
- ◆ 3 재 : 2월 3일 (음 1월 1일) 목요일 각 문도사찰 동시봉행
- ◆ 4 재 : 2월 10일 (음 1월 8일) 목요일 순천 죽림정사 (061-751-6366)
- ◆ 5 재 : 2월 17일 (음 1월 15일) 목요일 강진 흥 덕 사 (061-433-4870)
- ◆ 6 재 : 3월 24일 (음 1월 22일) 목요일 광주 미 륵 사 (062-263-0108)
- ◆ 7 재 : 3월 1일 (음 1월 27일) 화요일 강진 선각총림 옴천사 (061-433-2233)

※문의 : 종무소 061)433-3233 / 법진스님 010-3605-0207

증 명 도륜 원응 창호
장의위원장 정암
장의부위원장 벽해 혜수
장 의 위 원 혜관 혜종 혜승 혜능 혜욱 원주 청호 설화
집행위원장 혜룡
집행부위원장 진목
집 행 위 원 혜승 혜능 혜욱 원주
진행위원장 진원
진 행 위 원 원정 진원 진월 진목 진하 태송 진권 진덕 진안 진송 진제 진철 진봉 혜명 형진 도진 성진 진탑 광진 지광 진광 행진 서진 법통 다행 혜광 혜진 혜민 법인 진석 진경 진여 원영 성법 진산 우진 진각 법진 무령 진오 혜산 현종 덕성 도우 무관 명조 묘진 법혜 보문 성덕 성우 원종 원명 수진 은광 일진 자광 정진 진담 진보 진학 원종 혜덕 도성 산인 원진 선진 진환 명일 선정 혜현 선지 목언 선보 선법 선주 선오 선우 선행 묘선 천봉 현지 혜인 혜경 학선 (무순)
선각종 거사림회 선각총림 옴천사 신도회·관음회·무등산 미륵사 육법공양 선양회

大韓佛教 禪覺宗 宗團蔣 蔣儀委員會

순천 선암사 40여 년 분쟁 종식되나


방치되고 있는 선암사 소장 경판들.



선암사 수장고는 현재 순천시와 선암사가 이중으로 봉인하고 있다.

조계종-태고종 재산권 협의 해결 기대

태고종이 '분쟁사찰' 선암사의 소유권을 놓고 조계종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협상위원회를 구성했다.

태고종 순천 선암사(주지 경담)는 1월 20일 전산총회를 열고 선암사 협상위원회에 참여할 협상위원을 확정했다. 태고종은 총무부원장 화경 스님과 총무부장 상하 스님,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과 지암, 청하 스님으로 선암사 협상위원회를 꾸리고 조계종과 협의를 벌인다. 조계종은 선암사문제해결특별위원장 일문 스님과 조계종 선암사 주지 덕문 스님 등 5명이 참여하는 협상위원회를 구성했다.

조계종과 태고종이 협상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순천 선암사 재산관리권은 양 종단의 협의결과에 따라 판가름 나게 됐다.

순천 선암사는 1954년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로 조계종이 등기를, 실 거주는 태고종이 하고 있는 상태다. 선암사 재산권 문제로 분규가 거듭되자 1970년 3월 문공부가 순천시를 선암사 재산관리권자로 임명했다.

현재 태고종은 순천 선암사 재산관리를 맡고 있는 순천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순천시가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순천 선암사는 구랍 13일 순천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 선암사 재산관리 부실 현황을 밝혔다.

선암사는 기자회견에서 "선암사 성보박물관장을 순천시장이 겸임하면서 수장고에 소장된 2400여 점의 문화재들이 진위여부조차도 감정이 안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선암사 도난문화재의 약 90%가 순천시의 선암사 재산관리 기간 중 도난을 당하거나 분실됐다"고 주장했다.

성보박물관 관리 부실

선암사는 "개신교 안수집사인 노관규 시장이 관례를 무시하고 2008년 7월부터 성보박물관장직을 겸임하며 보물급 문화재들이 파손되거나 훼손되고 있다"며 "전문 학예사 없이 임시직 1명에 유물교체 없이 방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화재 보수 시급

순천 선암사의 경우 문화재 관리뿐만 아니라 각종 보수공사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순천시가 일방적으로 공사계약을 해 진행한 제7차 중창불사는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특정업체가 약 110억원 대 공사비를 받아 진행했다.

선암사는 "특정업체 수혜로 부실공사가 진행됐으며 사법당국에서 이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을 판결했다. 이후 문화재청이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진행했지만 아직도 전각을 비롯한 건축물들이 붕괴위험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차 체험관 운영도 갈등

이와 함께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 등기와 운영권 문제도 심각하다. 순천 선암사 경내에 자리한 차 체험관은 도비와 시비 등 총사업비 44억 원을 들여 2007년 6월 건립됐다. 2004년 당시 주지였던 지허 스님이 건립을 주도했으나 지허 스님이 주지직에서 해임되자 순천시가 등기를 순천시로 등록하고 운영권을 가지면서 운영방향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산관리 내역 공개 요청

관리중인 선암사와 말사인 향림사 도지세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 요청도 거절하고 있어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선암사는 해결 방안으로 △선암사 성보박물관 성보문화재 전면 재조사 △성보박물관 유물관리 및 운영권 이관 △차체험관 등기이전과 운영권 반환 △문화재관람료 및 주차비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선암사 재산관리권을 해지 또는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조계종과 태고종 협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가야산 골프장이 해인사 망친다"

조계종 환경위, 불교단체 등 골프장 사업승인 불허 촉구

가야산 골프장 건립에 대한 불교계의 반대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준)은 '민족문화유산 말살하는 가야산 골프장 사업 환경부는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1월 19일 발표했다.

이들은 "역사문화와 생태환경, 경관이 수려한 가야산국립공원이 현 정권의 개발위주 정책과 맞물려 심각하게 훼손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가야산국립공원은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경판전과 국보3점, 보물15점을 비롯한 명승, 사적, 유·무형문화재 94점이 분포돼 있다. 또한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식물 719종, 동물 1374종, 기타 생물 592종 등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꼽힌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환경을 보전하고 가꾸어야 할 환경부가 고시 철회를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의 허가권을 빌미로 모든 것을 공단에 미루는 것은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을 국립공원시설계획에서 삭제하고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불허를 요청하는 공문을 1월 11일자로 발송했다. 조계종 환경위는 공문에서 "가야산 국립공원 내 대규모 골프장이 건설되면 해인사와 자연환경이 훼손될 것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환경위원회에서는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며 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해인사 민족문화유산 골프장보다 중요"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장 장 명 스님



"가야산 국립공원은 환경보존가치가 높은 명산이지만 불교계로서는 해인사가 위치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골프장 사업 계획은 승인돼서는 안 됩니다."

장명 스님(사진)은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인사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장경판전과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이 소장돼 있다. 불교계는 물론이고 민족문화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가야산 골프장 사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다.

스님은 가야산 국립공원 내 대규모 골프장이 건설 될 경우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유산이 크게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만일 골프장이 건설된다면 국립공원의 보전 및 관리 임무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기범 기자

현대불교신문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한국불교기자협회 공동캠페인
올해는 불기 2555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온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 법을 펴시고 입멸하신지 2555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서기(서력기원)는 기독교 성인의 탄생을 기준으로 년도를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불자들이 아무생각 없이 불교행사와 서식에 서기를 남용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불기 2555년을 맞은 올해 온 불자가 불기를 사용해 불자로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고히 세웁시다.
– 사찰 내부 문서나 서식 포스터 홍보물 현수막에는
예) 2011포교전진대회= 2555년 포교전진대회
– 사찰 밖에서나 해외에서는
예) 2555(2011) 불교행사 협조요청
2555(2011) korea buddhism week (한국불교주간) – 서기를 병기나 부기

죽비와 목탁

불의 씨앗 키워온 방화범

범어사 천왕문 방화범이 잡혔다. 내부소행이었다. 교계는 일순간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사람들은 화재와 동시에 방화범의 정체에 비상한 관심을 가졌다. 극단적인 개신교인의 소행일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추측성 보도도 난무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방화범이 잡히지도 않았음에도 개신교 소행일 것이라는 소문이 진실인 듯, 서로를 비방하기에 바빴다. 언론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올해 초 세계적인 종교학자 폴 니터는 부산에서 "범어사 화재 사건도 개신교인의 소행인 것으로 안다"며 연신 사과했다. 사람들은 묵묵히 그 사과를 받았다. 개신교의 소행일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1월 16일 오후 방화범은 잡혔다. 내외의 구분도 모호하지만 '내부소행'으로 소개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함께 절밥 먹으며 살아왔던 사람이 분명했으니 내부가 맞다.

범어사 청련암 안도 스님은 그의 범행이라는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사찰이 개방돼 있다 보니 왔다 갔다하며 바쁜 소일거리를 도왔다. 경찰 조사에 따라 조용히 마무리 하겠다"며 긴 설명은 하지 않았다. 방화범은 한 때 출가 수행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은 더 크다. 인재불사가 운운되기도 했다.

피의자는 환속 후 기거할 곳도 없고, 연고도 없이 1990년대부터 사찰의 소일거리를 도우며 범어사 청련암에 간혹 머물며 살아왔다. 2009년 10월부터는 6개월간 강원도 암자 불사현장에서 일한 후 줄곧 범어사에서 생활해왔다. 범어사나 청련암 주변에서 그를 본 사람들은 많았다. 사람들은 방화범을 "정상은 아니었다"고 회상한다. 방화범에 대해서 물어보면 "남사스럽다. 부끄럽다. 아직까지 그 얘기냐"라며 입을 닫는다. 범어사 청련암 종무실은 "그런 사람 모른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들끓던 분노도 의심도 천왕문처럼 불에 타 사라졌다. 민족문화수호 · 불법외호의 시작도 끝도 결국 사람의 일이었다.

〈법구경〉에는 "남의 잘못은 쭉정이처럼 까불고 제 잘못은 눈처럼 숨긴다"고 했다. 파사현정(破邪顯正). 깨뜨려야 할 사악한 생각은 바로 우리 내부에 있었다. 불씨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돌아볼 때다.

이상언 기자

불교문화상품전 어떤 작품들 선정 됐나

작가적 경향에서 실용·아이디어 제품 부각

4년 째 이어오고 있는 불교문화상품전은 초기에 다소 작가적 경향을 보였다. 1회 대상작인 '연화문 백자호롱'은 정교한 솜씨로 소반 위에 다기와 등불을 형상화했다. 우수상은 부처님 모습이 새겨진 은 목걸이 · 반지와 전기를 연결하면 어둠 속에서 부처님 형상이 반짝이는 작품이었다.

2회 때 대상작 '연지'는 욕조 마개에 연꽃이 연결돼 있는 작품이다. 웰빙 열풍을 맞아 고안된 '연지'는 욕조 마개를 막으면 수면 위로 연꽃이 떠오른다. 우수작으로는 천은사의 풍경을 배경으로 한 시계와 목탁 모형의 거울이 선정됐다.

3회 공모전에서는 연꽃 모양의 명함꽂이와 책갈피 '피어나다'가 대상을, 우수작은 '만(卍)'자를 형상화한 USB 허브와 여인네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등불 '여인의 향기'가 차지했다.

이번 4회 공모전에서는 박연옥씨의 작품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금속으로 제작된 불상, 사찰, 연꽃 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각의 작품을 중첩시키면 메모지나 명함, 필기구를 넣을 수 있다. 우수상으로는 목탁 모형의 미니 스피커와 종이공예 작품이 선정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관계자는 "2회 대회부터 학생들의 참여와 아이디어 작품이 늘었다. 3회 때부터는 실용성과 아이디어, 제품화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기범 기자

※ 좌선, 기도하시는 스님들께서 직접 착용해보고 인정하신 제품입니다.
스님, 현장근무, 군인, 시장상인, 경비, 낚시, 부모님 효도선물, 등산, 골프 야외활동에 좋음!
기업납품 및 단체주문 환영!!
관절염 예방, 무릎보호 기능성 기모 털내복
좌선·기도 전용 관절보호 털내의 SET
2겹 봉제의 강력한 관절보호 발열 털 기모 내의 세트
관절부분이 2중으로 제작되어 관절에 들어오는 냉기를 막아줍니다.
털원단 2겹 봉재로 원단과 원단사이 공기층이 형성되어 보온층이 뛰어납니다.
입은 듯 안입은 듯 가볍고 따뜻하게
섬유사이의 공기층이 단열효과를 발휘하여 외부 찬공기 유입을 막고 내부에서 발생한 열의 방출을 최소화 시켜드리며 우수한 원단의 탄력과 밀착성으로 겉옷 착용시 활동하기 편리합니다.
최고의 좌선 내의로 효율적
신축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하여 몸에 밀착이 되어도 착용시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탁월한 소재의 원단으로 강하고 반복적인 움직임에도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무릎관절 부분 2겹 봉제
무릎관절 부분이 2겹으로 봉제되어 좌선시 가장 취약한 무릎 관절로 들어오는 냉기를 막아주고 관절을 보호해 줍니다. 추운 겨울 보다 효율적으로 신체보호 기능을 보여드리는 최고의 좌선 관절 보호 털내의 자신있게 선보여 드립니다.
• 색 상 : 회색
• 구 분 : 남성용, 여성용
• 사이즈 : 상의 – XXL / 하의 – FREE, XXL
• 가 격 : 상 · 하의 각 ₩20,000원
※ SET 구매 시 ₩38,000원
2중 재봉된 무릎부분
모든 부분 안감 융털
구입 및 제품문의 02)2264-7947 / 011-9947-7947
입금계좌 : 국민은행 777502-04-027453 예금주:김은정

일 주 문



제1회 전국사찰청소년연합수련회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 도후 스님은 1월 22~24일 만해마을에서 제1회 전국사찰청소년연합수련회를 개최했다.



봉선사 자비도량참법 회향
남양주 봉선사 주지 인묵 스님은 1월 26일 봉선사 경내에서 자비도량참법 회향식을 개최한다.



고운사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전달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1월 27~29일 고운사 선체험관에서 의성지역 청소년 4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해인사 제27회 겨울 수련회
합천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1월 14~28일 제27회 해인사 겨울 수련회를 개최한다. (055)934-3110



불교사회연구소장 임명
서울 금선사 주지 법안 스님은 1월 24일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으로 임명됐다.



실상사화엄학림 졸업식
실상사화엄학림 학장 법인 스님은 2월 17일 화엄학림 제13기 졸업식을 개최한다.

선각종 종정 영담 스님 18일 옴천사 영결식 후 다비식에서 사리 8과 출현

"부처의 가르침 없인 인간세상도 없다"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이 1월 18일 옴천사에서 영결사를 하고 있다.

호남지역의 큰 어른인 선각종 종정 영담 스님이 1월 14일 새벽 5시 전남 강진 자비정사에서 입적했다.

스님은 "부처의 가르침 없이는 인간세상도 없으니(無法無人處)/ 부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相承佛祖心)/ 모든 것을 비우고 원만케 하여서(太虛爲圓卓)/ 부처님 가르침대로 중생을 받들라.(普供法界衆)"는 열반게송을 남겼다. 스님은 상좌들에게 "모든 중생을 존중하라. 앉아서 받는 것 보다, 모두에게 베풀며 살라"고 당부했다.

세수 98세, 법납 70세로 입적한 영담 스님은 1914년 경남 통영에서 출생하여, 1949년 백양사 만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남원의 대복사, 지리산 실상사, 경남 안정사 선방에서 서경보 스님 등과 함께 정진했다.

강진 무위사 · 고성사, 영암 망월사 주지를 역임, 영암 천황사, 광주 동광사 등을 창건했다.

이후 스님은 강진 자비정사 조실로 주석하며, 20여 고아들을 거두어 교육하며 후학양성에 매진했다. 2000년 대한불교 선각종 초대종정에 추대됐다.

문도대표 혜관 스님은 "스님께서는 매일 2시에 일어나 금강경을 1독하고, 비로자나총귀진언 60년 동안 1만독을 해오셨다"며 "종단의 큰 어른으로 계시면서도 무소유를 실천하고, 후학양성에 진력하셨다"고 소회했다.

혜관 스님은 "특히 스님께서는 후학들을 위해 여러 개의 사찰을 창건했다"며 "최근 15일간 상좌들과 함께 태어나고, 수행했던 사찰 등을 둘러보고 마지막을 정리하는 만행을 다녀오셨다"고 스님의 마지막 모습을 전했다.

한편 영결식은 1월 18일 옴천사에서, 다비식은 화순 도원사 연화대에서 봉행됐다. 행사에는 도륜 스님(봉갑사 회주), 정암 스님(선각종 총무원장), 유선호 의원(국회의원), 황주홍 군수(강진군)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정암 스님은 영결사에서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화합하고, 깨어있는 종단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다비가 끝난 후 습골에서는 8과의 사리가 출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운문사·청암사 승가대학 졸업식





운문사승가대학(학장 명성)은 1월 18일 운문사 대웅전에서 제2회 보현율원 및 제47회 운문승가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흥륜 스님이 율주로 임명됐으며 스님 56명이 졸업했다.

또 청암사승가대학(학장 지형)은 1월 19일 청암사 자양전에서 제3회 청암사율원 및 제25회 청암사 승가대학 졸업식을 거행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제3기 청암사율원 스님 4명이 졸업했으며 승가대학은 18명의 스님이 졸업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구 파계사 법광 스님 자비나눔 쌀 전달

대구 파계사(주지 법광) 1월 20일 대구 동구청에서 자비나눔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법광 스님은 20kg 쌀 60포를 이재만 동구청장에게 전하며 독거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법광 스님은 쌀 전달식을 가진 뒤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당뇨합병증으로 투병중인 비구니 해진 스님을 찾아 격려하고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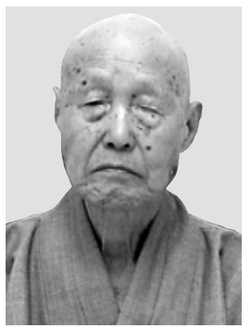
투병중인 해진 스님은 36세로 조계종 청암사에 출가해 승가대학 사직과 재학 중 몸이 아파 지금까지 15년간 당뇨, 신장염으로 혈액투석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해진 스님을 도울 분은 연락주세요. (010)9045-5215.

손문철 대구지사장



동성당 봉정 대선사 원적



동성당 봉정 스님(사진)이 1월 16일 대천 배달정사에서 세수 103세로 원적에 들었다. 1909년 3월 11일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스님은 안중근 의사의 조카로 11세에 아버지 연계선생(緣繼 先生) 안중팔(安重八)을 따라 북간도에서 한인촌을 지어 동포를 이주시키고 생활을 안정케 했으며, 임시정부 동지들과 함께 독립항일운동을 전개했다.

오대산 한암 스님 회상에서 1931년 득도 후 생식 6년, 7년간 장좌불와했으며, 100세를 넘기고 다시 장좌불와 정진했다. 탄허대선사로부터 희봉(喜奉)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청우 스님에게 입실해 호는 동성(東星), 청우 스님의 법등을 이어 백파선사의 9세 법손으로 법맥을 이었다. 건봉사 주지와 해남 대흥사, 정읍 내장사 회주를 지냈다. **노덕현 기자**

"참선으로 지도층 네트워크 구성"

선림원 원장, 조계사 주지 토 진 스님



"선림원은 이론과 실참 수행의 조화를 통해 전통 수행법인 참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선림원 원장을 맡은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사진)은 선림원에 대한 높은 기대를 나타냈다. 2년 4학기 과정으로 열리는 '선림원'은 불교와 선에 대한 이해와 참선 입문 프로그램, 특강으로 구성된다. 매 학기별 법문에는 전국 선원의 방장 · 조실, 선원장 스님이 참여하며 법문과 참선입문 프로그램이 병행돼 이론 교육과 실참 수행이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했다. 선림원은 사회 지도자들이 참선 교육에 참여해 개인의 변화와 사회적 실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토진 스님은 선을 알리고 교육하는 지속가능한 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고스님, 선원장 스님들과 함께 선림원을 추진했다.

참선을 매개로 사회지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불교의 영향력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선림원'의 1차적 목표다. 토진 스님은 경영, 스포츠 등 참선이 응용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림원은 지도교수-지도수좌-지도법사로 이어지는 3사 시스템으로 수련을 강화하는 등 참선 지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토진 스님은 "선림원이 선의 세계화, 대중화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참선과 불교의 가치관 및 지도력의 사회적 확산에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문의: 02-720-1390〉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군인다운 신행생활 솔선할 터"

최 용 림 군불총 회장, 17일 신년하례서



"안보위기의 이때 불자들이 축이 돼 나라를 더욱 튼튼히 합시다."

최용림 국군불교총연합회 회장(육군 중장 · 사진)은 1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신년인사차 예방한 자리에서 호국불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질타보다는 부모가 자식 다그치고 품에 안듯이 다독여 주시면 군복무 생활에 큰 힘이 된다"고 말한 최용림 회장은 "올 한해 군인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그로 말미암아 신심이 더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용림 회장은 육사 33기로 2003년 준장 진급 후 특전사령부 공수여단장, 사단장,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을 거쳐 2006년 중장으로 진급했다. 특전사령관을 거쳐 국방부 특별검열단장을 맡고 있다.

이날 예방에서 자승 스님은 최 회장이 특전사 출신인 것을 거론하며 송파구 특전사령부 호국지사 부지 매입에 대해 물었다.

최 회장은 "총무원장 스님의 요청 이후 국방부에서 부지매각으로 가닥을 잡아 현재 문광부 종무2과에서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최용림 회장은 이어 "논산훈련소 군법당도 올해 마무리해 장병들의 신심을 고취하겠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인의 의무이지만, 종교의 힘으로 더욱더 큰 힘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활발한 신행활동을 당부했다.

한편, 자승 스님은 군불총의 육해공 군부대 위문방문 요청에 연내에 방문하겠다고 수락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2011학년도 법륜범음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본 범음대학은 불교전통의식 범음 · 범패 상주권공 과정을 체계 있게 교육하는 전문교육기관입니다. 한국불교의 얼이 담겨있는 불교전통의식 범음 · 범패 관심 있으신 분이나 사찰에서 행하시는 각종 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배우실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은 승 · 속 · 종단에 관계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입학을 바랍니다.

입 학 안 내

▣ **모집학과 :** 범음범패과정(상주권공)
▣ **입학대상 :** 승려, 전법사, 포교사, 재가불자 등 종단에 관계없이 가능함
▣ **교육기간 :** 2년 과정(방학 없이 특별휴강 있음)
▣ **접 수 처 :** 법륜범음대학 교학처(법륜사 종무소)
▣ **연 락 처 :** ☎ **종무소 : 062)655-7444 / 회장 : 010-4116-5900 / 총무 : 010-7941-0017**
▣ **주 소 :** 광주시 서구 금호동 206-5번지 법륜사(금호지구 아파트내)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수강신청서(본교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3매, 주민등록등본 1통
▣ **접수기간 :** **불기 2555년(2011) 2월 1일(음력 12월 29일) 화요일 ~ 3월 3일(음력 1월 29일) 목요일까지**
(청강생 / 편입생 수시접수 가능. 단, 시험에 통과해야 함)
▣ **입학식 및 개강일시 : 2011년 3월 10일**(음력 2월 6일) **목요일 오후 14:00** 법륜사 대강당
▣ **강 주 :** 상진스님 (前보우승가대학,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불교의식반 강주/現안정불교대학 범패과 강주)

법 륜 범 음 대 학 학장 월 인

▣ **강 의 내 용**

학년 \ 학기	1 학 기	2 학 기
1 학 년	**- 기초 과정 -** 기 초 : 목탁잡고치는법, 요령흔드는법, 삼귀의례, 사홍서원, 천수경, 도량석, 종송(전통범음) 예 불 : 향수해례, 사성례(육성례) 불 공 : 삼보통청의식 축원 시 식 :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시다림 상주권공 : 초할향, 등게, 합장게, 고향게, 개계, 쇄수게,복청게 ※ 막바라(요잡바라 기본과정)	상주권공 : 사방찬,도량게,참회게,헌좌게 작 법 : 천수바라,착복(나비춤),요잡바라 등 **- 천도의식 본과정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상단), 신중퇴공, 관음시식, 구병시식, 시다림
2 학 년	**- 천도의식 본과정 -** 봉송, 회향, 공덕게 ※ 관욕태징, 관욕바라, 화의재바라, 도량게작법, 다게작법,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욕건이(소리춤), 운심게(소리춤), 가지게(소리), 화청, 축원화청	**- 시연회준비 -** (재채비,사물다루는 과정) 1. 실전행사에 대비한 유기적인 의식진행 (법주,바라지,목탁,요령,태징,북) 2. 작법고급과정 (사방유신,귀경이,향화게,법고무,옴남 등 작법실습) 3. 특강 : 재학생들의 요구 사항 및 점안의식, 생전예수생칠일재 등에 관한 의식실기 및 설명

“장기기증은 희망과 행복의 나눔”

심 정 민 생명나눔실천본부 신임 사무총장



“장기기증은 나눔을 통해 새로운 생명에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불교계와 신도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주력, 생명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정민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신임 사무총장(사진)은 우리사회에 장기기증 문화가 아직 미약하다며 올해는 다양한 사업과 홍보를 통해 불교계와 일반인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랍 27일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하고 있는 심 사무총장은 30년 간 육군에 복무했고, 전역 후 3년 10개월 간 군종교구 실장을 역임했다. 심 사무총장은 군종교구 실장을 지내면서 종무행정, 포교 업무 시스템 구축, 인사관리 등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기증희망자 2500명,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3500명을 올해 목표로 내세운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수행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기증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사찰 및 불교계 행사에서 장기기증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교계의 장기기증이 타종교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계종 · 국제선센터와 연계한 홍보와 캠페인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수행자들의 참여가 불자들의 동참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행자의 실천덕목으로 생명나눔운동을 확대하고, 큰 스님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면 그 효과는 클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계종 교육원, 포교원 등과도 협의 중이며 이후 전 종단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기기증 홍보와 참여 확대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서울 · 경기지역 사찰 장기기증 캠페인은 3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매월 초하루법회와 정기법회에 참여해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찰을 중심으로 불교계 내부의 장기기증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로 창립 17주년을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그 동안 꾸준한 활동으로 2010년 12월 현재 장기기증희망자 2만6700명, 조혈모세포기증 희망자는 2만1266명에 이른다. 1998년부터 시작된 치료비 지원 사업은 총 430명의 환자에게 18억 원의 치료비를 지원했고, 130여 회에 걸쳐 6300매의 헌혈증을 지원했다.

30년 육군 복무 후 군종실장 역임
교계 장기기증 확산 주력 목표

심정민 사무총장은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아직은 처음 접하는 업무라 두려움이 있지만 이사장 스님의 뜻을 잘 받들고 직원들과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소리 공양으로 환우 돕고 싶다”

국악신동 송 소 희 양,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위촉



“장기 기증은 생명을 나눌 수 있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돼요. 소리 공양을 통해 어려운 환우들을 돕는데 앞장서고 싶어요.”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송소희(임성중 2 · 사진)양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또박또박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국악신동으로 불리는 소희양은 1월 20일 생명나눔실천본부로부터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 받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송소희양은 이 날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장기기증 희망등록서에 직접 서약하고, 회원증도 교부 받았다. 또 용돈을 조금씩 모아 마련한 후원금을 일면 스님에게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현재 충청남도 예산 수덕사의 사찰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소희양은 5살 때부터 국악과 시조에 남다른 소질을 보였다. 국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최근에는 SBS 스타킹에 출연해 화제를 불러 모았다.

소희양은 수덕사의 스님들로부터 “덕숭산과 수덕사의 정기를 소희양이 다 받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어려서부터 남다른 총기를 보였다.

송소희 양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올해 신년 계획으로 세웠다고 밝혔다. 소희 양은 “훌륭한 국악인이 되기 위해 12잡가와 국악기를 배우고 있는데, 이런 재능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축구가 하고 싶은 성빈이의 꿈
생명나눔, 1월 치료비 지원환자 선정



1998년 당시 두 살이던 이성빈(남 · 14세 · 사진)군은 신증후군을 진단받고, 약물치료와 주기적인 입원치료를 해왔다. 그러나 2002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중단해야 했고, 2004년에는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게 된다.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성빈군은 복막투석을 받아야 했다. 병원에서는 3년 전부터 혈액투석을 권유했으나, 성빈군의 어머니는 치료비 문제와 어린 나이에 혈액투석을 시작하면 앞으로 치료방법 없다는 생각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 하고 있다.

성빈군은 오랜 복막투석으로 복막염, 부종, 경련, 시력저하, 심장질환 등 합병증까지 발생했다. 2010년 11월에는 심장질환으로 심장초음파수술을 받아야 했다. 날이 갈수록 상태가 점점 나빠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성빈군에게 최선의 치료는 신장이식이다. 그 동안 몇 차례의 이식 기회가 있었지만 문제는 수술비였다.

이제는 더 이상 수술비 때문에 이식을 포기할 수 없다는 심정이다. 성빈군은 또래 친구들처럼 축구도 하고, 수학여행도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다. 성빈군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생명나눔)

박기범 기자

체계적 공부 지도
재가자 안거 봄철 정진대중 모집
삼매체험 禪수련회 · 단기출가
단식 · 참선
다이어트 1일 최고 3kg
면역력 강화
청소년 · 대학생 · 일반
*수 련 회 : 5일
*단기출가 :
30일, 50일, 100일
· 2월 21일 ~ 25일
· 3월 25일 ~ 29일
• 물만 마시고도 당뇨병 · 고혈압 · 성인병 · 난치병을 퇴치 예방 가능
• 면역성 노화방지 · 아토피 · 생리관계 · 요요현상 없음
• 공부힘을 얻어 대자유인이 되어 주인의 삶을 살 수 있음
• 장애에서 벗어나게 됨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번지
☎ 1644-5266, 070-7519-9929
참선전문도량 행복제작소
활 인 선 원
네이버카페 활인선원

행원문화재단, 승가대 도서구입비 5000만원 전달



행원문화재단 주영훈 이사장이 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중앙승가대 도서관 도서구입 기금 5000만원을 중앙승가대 이사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전달했다.

주영훈 이사장은 “승가대 중앙도서관에 경전과 책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후원금을 내게 됐다”며 “도서기금 후원에도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은 “승가대에 경전부가 많이 부족해 공사가 70% 이상 진행됐지만 들어갈 책이 없다”며 “세계장경과 해인사 고려대장경 목판본을 인쇄한 경전 등을 구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축되는 승가대 중앙도서관은 강의동에서 가까운 곳에 세워졌으며 연면적은 4600㎡ 가량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다. 학인스님과 교수들을 위한 열람실과 자료실인 2층에는 대장경과 불교관련 간행물과 열람실이, 3층에는 인문사회와 일반 간행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상언 기자

착한소비-착한나눔으로 설 차례상 준비하세요

연우와함께, 시중가보다 20%저렴하게

수익금 5% 민족문화수호기금 적립

불교계 사회적 기업 연우와 함께(대표이사 이상근)가 제수용 과일을 시중가격보다 20% 싼 가격으로 3000세트(각 9만5000원) 한정 공급하고 있다. 제수용 과일 세트는 경산 대추 300g, 정안 밤700g, 나주 배 4개, 상주 곶감 10개, 풍기 사과 5개 등 지역 특산물 친환경 우수 농산물로 구성됐다.

다양한 설 선물세트도 준비했다. 추천상품으로 흑홍삼(25㎖×30포, 13만 6000원), 곶감(반건시 75g 이상 20개, 건시 59g이상 28개), 3.1kg, 18만 5000원), 교동한과 한들곡식 (7만원), 청운학 상감팔각 석청꿀(2.4kg, 72만원), 죽방멸치 어부림 연우 1호 (국물,볶음, 조리용 각 500g), 법성포 굴비 왕비(1.9kg, 20미, 7만원) 등을 선보이고 있다.

백화고, 잣, 호도 혼합세트, 제주 참다래, 제주 한라봉 등 과일 선물세트와 대승사 다기세트(다관, 숙우, 찻잔5, 차호, 개반, 26만원, 11만원)과 푼주, 지대방 금국화차 · 발효차 · 세작 · 중작 · 특우전 등도 준비됐다. 건강선물 세트로는 지리산 산양산삼, 경옥고를 상품화한 동옥고, 방산꿀이 있다.

일반 식품과 생활잡화도 사찰에서 만든 친환경 제품으로 준비했다. 전복볶음고추장과 된장을 비롯해 영평사 죽염장류 세트는 다양한 가격대로 선물의 다양성과 실용성을 겸비했다. 장류를 비롯해 영평사 자죽염 세트, 대나무추출 천연섬유로 만든 대나무 양말, 천연염색 스카프 등 생활용품은 물론 횡성한우 세트도 마련했다. (02)733-1088

이상언 기자

포교원, 교정교화전법단 출범
교도소 · 구치소 불교포교 전담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교화시설에 포교를 전담하는 교정교화전법단이 출범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1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교정교화전법단 출범식’을 봉행했다.

출범식에서 혜총 스님은 서울구치소 지도법사 가섭 스님 등을 비롯한 27명의 스님들에게 교정교화 전법단 지도법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스님들은 서울 · 경기 · 인천지역과 대구지역 33개의 교정기관을 전담할 계획이다.

혜총 스님은 “부처님의 사명에 의해 자발적으로 교정 · 교화기관에서 포교활동을 펼친 스님과 재가불자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 종단의 무관심에 송구스럽다”며 “서울을 기점으로 각 도시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단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정교화전법단은 △각급 재소자 교정교화활동과 법회 주관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회원 대상 법회 및 포교활동 △교정교화전법단 소속 지도법사간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법단은 향후 대전 · 광주지역을 전담할 지도법사스님을 모집해 18개 교정기관에서 포교를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혜총 스님은 현강 스님에게 교정교화전법단 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나은 기자

“어렵지만 우리 스스로 민족문화 지키자”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자문위 구성

템플스테이 운영사찰간 의견을 수렴하는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만)은 1월 17일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협의회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011년 템플스테이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연2회 정기회의를 통해 템플스테이 사업 방향, 시설 · 프로그램 · 운영 인력 양성 · 홍보 등 주요사업 자문, 운영사찰의견 수렴 및 제안 등을 통해 템플스테이 운영 활성화와 운영 사찰 간 정보를 공유한다.

템플스테이 사업비중 축소
국고 중심 사업방식 탈피

자문위원장에는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 간사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을 선임했다. 자문위원으로는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백담사 주지 삼조 스님,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 골굴사 주지 적운 스님,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이 활동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1년 템플스테이 사업 추진 방향도 공유했다. 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사업비 중 축소 및 국고지원 중심 사업방식을 탈피하고 불교문화수익사업을 꾀한다. 또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문화사업단의 위상 재정립과 자생력 강화, 불교문화 대중화를 위한 연계 교육 사업 및 연구 컨설팅 기능 강화에 힘쓸 것을 결의했다.

올해 사업방향은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의 정부대응책과 함께 정부의 민족문화 개선 인식부족으로 잡았다. 이에 문화사업단은 ‘정부의 인식 변화가 없는 한’ 정부에 템플스테이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민족문화를 수호할 것을 밝혔다.

이상언 기자

나눔의 집, 일본인 직원 재계약 갈등
일방적 내용 보도 언론사 제소키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대표 월주)이 한 언론사의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인 직원 A씨와 갈등을 빚고 있는 나눔의 집은 해당 언론사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1월 17일 주장했다. 나눔의 집은 업무 규정과 지시 사항을 불이행, 직무 유기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올해 3월로 예정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고, 이런 내용이 한 언론사에 알려지면서 한 · 일 연대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은 보도 내용이 일방적이라며 즉각 반발했고,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눔의 집 관계자는 “A씨는 직무유기 및 태만, 지시불이행, 허위 보고 등으로 업무정지를 시킨 상태다. 지금도 본인의 업무미숙이나, 태도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정지 상태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생명평화결사, 100일 도보 순례

평화운동단체인 ‘생명평화결사’가 동인천 문화공간 스페이스 빔에서 생명평화도보순례 선포식과 기자회견을 1월 22일 열었다. 각 계 인사 100인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100일 간 지역 순례가 이어진다. 참가자들이 하루씩 순례를 담당하고, 동시에 인근 지역 주민들과 각 종 좌담회와 문화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생명평화결사’는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2003년에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각종 교계와 시민사회가 모여 결성한 단체다.

박기범 기자

사암연 최초 신문 ‘서초불교’ 발간
계간지, 타블로이드 16면 무료배포

서초불교사암연합회(회장 법안)는 1월 13일 ‘서초불교’ 신문을 첫 발행 · 배포했다.

서초불교신문은 서초지역 불교 소식을 알리는 포교지로 서초구 지역 내 33개 개별 사찰 소식과 행사를 집중 보도할 계획이다.

창간호는 6000부 인쇄됐으며 지역 내 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서초구청, 동사무소, 경찰서, 소방서, 지역구 국회의원, 구의회, 시의회 등에 무료 배포됐다. 신문은 타블로이드판형으로 16면 구성됐으며 봄 · 여름 · 가을 · 겨울 4차례 발행한다. 사암연합회는 2012년부터 월간지 발간을 목표하고 있다.

서초불교 발행 편집인은 서초구 우면산 대성사 주지 법안 스님, 사무총장은 방배동 광명선원 도헌 스님, 편집위원장은 잠원동 관심사 주지 태범 스님이 맡았다.

법안 스님은 “서초지역 소식을 알리고 지역 사회의 이슈를 공유 및 방향을 논의, 종교간 화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사암연합회 사찰 33곳 중 50%만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참여를 유도해 지역사회 포교와 복지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언 기자

“동물 생명권 인식없이 구제역 극복 못한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종교인·전문가 한자리서 긴급 토론회 열고 한 목소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은 150만 마리 이상의 가축들이 살처분 되는 등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인들이 구제역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생명권에 대한 인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우리신학연구소가 함께하고 있는 ‘개혁을 위한 종교인네트워크’는 1월 17일 ‘반생명적 축산정책의 종식을 기원하는 범종교인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진행된 이 날 토론에는 홍하일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대표,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박병상 인천도시생태 · 환경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서울대 수의과 우희종 교수(사진 가운데)는 육식의 대안을 찾지 못하면 식량 고갈의 위기가 온다고 경고했다.

공장식 축산이 구제역 원인
살처분 의존 정부대책도 미숙

홍하일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대표는 주제 발표 ‘적게 먹고 적게 기르고 적게 죽이자’에서 “이번 구제역은 소비자들의 육류 과다섭취와 동물복지를 고려하지 않고, 비좁은 공간에서 약물을 투여해 기르는 공장식 축산업에 근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2008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75.8kg인 반면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은 무려 35.4kg(쇠고기 7.5kg, 돼지고기 19.1kg, 닭고기 9kg)에 달한다는 통계를 인용해, 이런 대규모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장식 축산이 필수적으로 도입되면서 환경이 오염되고 각종 문제가 발생된다고 주장했다.

가축은 동물 나름의 자구책이 박탈된 채 인위적으로 사육되고, 개체 식별과 육질개선을 위해 귀가 절단당하고 거세당한다. 비좁은 주거 공간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증가하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은 떨어져 쉽게 병에 걸린다.

홍하일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 비해 가축수는 3~4배 증가하고,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연결돼 신속한 방역체계가 더욱 중요하다. 구제역이 상존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기 발견과 신속한 살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육류 소비 조절을 제시했다. 도시 소비자들이 생협이나 직거래, 농민장터 등을 통해 가까운 지역의 농축산물을 구매한다면 공장형 축산이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홍하일 대표는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는 지구 환경을 살리고, 농촌과 농민을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대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육류 문화 대안 시급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동물 생명권에서 본 축산 상황과 우리사회’에 대해 발표했다. 우 교수는 “이번 구제역 사태가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사회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복지 제외된 축산 인간 생명까지 위협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종교문화운동 필요

우 교수는 “신자유주의적 사회에서는 동물을 상품으로만 보고 공장식 밀집 사육이 이뤄진다. 생산성과 효율을 추구하는 산업구조는 수많은 동물 바이러스들이 인류계로 들어오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희종 교수는 육류 문화에 대한 대안 문화를 제시하지 못하면 식량 고갈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간의 육식을 위해 수많은 동물이 계속 희생되면 동물 생명권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존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희종 교수는 정부의 미숙한 방역도 이번 구제역 확산의 한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대규모 살처분과 생매장이 동물의 생명권 차원에서 적절한 방역대책이었는지 검토돼야 한다. 구제역 발생에서 초기 살처분은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권고 사항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런 기준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백신 접종 없이 실시하는 대규모 살처분은 초기 발생 상황에서는 유효해도 전국적으로 확산된 현 상황에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우 교수는 “더구나 정부는 돼지고기 수출을 위한 청정국가 지위 유지에 급급하면서 백신 사용의 시기를 놓쳤다. 현재 150만 마리가 넘게 살처분된 동물 수와 1조원을 넘는 방역 비용을 생각할 때 정부가 얼마나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우희종 교수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동물에게 좋은 환경이 인간에게도 좋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반생명적 축산과 방역 대책,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운동 · 종교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위기 채식이 대안

박병상 인천도시생태 · 환경연구소 소장은 주제발표 ‘부메랑이 된 음식- 바람직한 식생활과 육식’에서 채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산업화된 축산은 유전자조작 옥수수와 콩을 배합한 사료를 먹여 송아지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었지만 이를 섭취한 사람의 뇌혈관이나 심혈관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육식이 인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채식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이유다.

현재 산업축산에서 한우는 생후 30개월이 채 못 되는 때 고기용으로 도살된다. 3살도 안 됐다는 사실보다는 이 시기의 살코기가 부드럽다는 사실만이 도축의 기준이다.

박 소장은 “살코기는 연해졌고 우유는 넘치지만 이렇게 길러진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사람에게 이로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박병상 소장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들이 채식위주의 식단이었다며 채식에 관심을 갖는 것이 구제역 확산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통적인 채식 식단이 육식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예전에 없던 질병도 발생하고 있다.

박 소장은 “전통음식들은 조리방법도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을 정도로 바람직하다. 자연스러운 밥상이 건강을 지키며 여기에 가장 가까운 것이 채식이다”라고 설명했다.

살처분 당한 생명 명복 기원

5대 종교인 한 자리에 모여 살처분 가축 애도 의식 마련

이 날 토론회에 앞서 천도교 불교개신교 원불교 천주교는 살처분 당한 동물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종교의식을 가졌다. 의식은 각 종교별 의례에 따라 진행됐다.

여는 기도에는 불교와 천도교가 참여했다. 천도교에서는 위희숙 천도교 청년회중앙본부 사무국장이 청수봉전을 올린 뒤 발성심고, 성주문 병송을 가졌다. 불교에서는 선엽 스님과 선문 스님이 참석해 〈반야심경〉을 봉독했다.

애도의 기도에 나선 개신교 김경호 목사(들꽃향린교회)는 “하나님, 동물의 아프고, 죽을 권리를 빼앗은 탐욕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인간의 이기심이 공존과 평화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서원의 기도에서 원불교 강해윤 고무는 “살처분 당한 모든 생명의 명복을 바란다. 가축 영가의 수겁의 업장이 소멸됐을 것이다. 영가들이여 선업을 쌓기 바란다”고 애도했다. 천주교에서는 김영미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사회분과장이 나섰다. 김영미 수녀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소수의 가치를 저버렸다. 구제역은 세상 창조물의 관리자인 인간의 역할을 망각한 결과다. 용서해주소서”라고 기도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선염 스님(사진 왼쪽)과 선문 스님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국내 육류 소비량 기하급수적 증가

한 해 평균 70만 마리 소 도축, 닭은 6억 마리, 돼지는 천만 마리

공장식 축산으로 가축들이 질병에 노출된 상황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1월 13일 오후까지 3695농가의 150만 623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후 매몰됐다. 국제수역사무국 (OIE)도 빠른 전파력과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구제역을 15종의 A급 질병 중 첫 번째로 꼽고 있다.

경제 발전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육류 소비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소는 국내에서 연평균 250~270만 마리가 사육되고, 돼지는 900~950만, 닭은 1~1억 3000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수의과학검역원의 2007년 도축 현황에 따르면 매년 소는 60~70만 마리, 돼지는 1300만 마리, 닭은 6~6억5000만 마리가 도축되고 있다. 돼지와 닭은 사육보다 도축되는 수가 많아 최소한 태어나 1년도 되지 않아 신속히 도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육류 소비 중 어패류와 수입 축산물의 비중도 무시할 수 없다. 해양수산통계연보에 나타난 ‘국내 어업별 어획량’을 살펴보면 2000~2006년까지 매년 250~300만 톤 규모의 어류가 포획되고 있다.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 수입 검역통계 순기보고’에는 2007년 우리나라가 수입한 쇠고기는 20만3128톤, 돼지고기는 24만8319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이외에도 오리 토끼 사슴 개 등 여러 동물들이 ‘보신 문화’ 속에서 대량 사육되거나 희생되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육식 규모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수입물량, 어류까지 감안하면 한국민의 육류 소비는 매우 높다. 육류 소비 문제는 전 세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불교문화대학 2011학년도 1학기 신입생모집

대 학

■ 모집학과

◐ 불교심리상담학과 (주간 • 야간) – 00명
• 교과과정 (2년 4학기 / 수•금요일 / 한 학기 4과목 수강)
불교심리학. 상담심리학. 발달심리학. 심리검사 및 평가. 불교상담학. 성격심리학. 집단상담 Ⅰ. 아비담마와 상담. 이상심리학. 선심리와 상담. 예술치료. 위빠사나수행과 상담. 상담면접 기술 등.

◐ 명상학과 (주간 • 야간) – 00명
• 교과과정 (2년 4학기 / 수•목요일 / 한 학기 4과목 수강)
불교명상학. 알아차림과 자아. 명상과 몸.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 연구. 현대명상의 이해와 실제. 불교수행과 실습. 종교명상의 이해. 선의 이해와 실제. 뇌 불교수행 그리고 인식. 비교명상의 이해. 명상과 심리치료

■ 개강일시 : 2011년 3월 9일(수) 주간 : 오후2시, 야간 : 오후7시

■ 강의시간 [각 90분 강의]
• 주간반 : 1교시 – 14:00 ~ 15:30, 2교시 – 15:40 ~ 17:10
• 야간반 : 1교시 – 19:00 ~ 21:30, 2교시 – 20:40 ~ 22:10

■ 수 업 료 : 1학기당 300,000원

■ 입학자격 : 정규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특 전
• 장학혜택 : 성적우수상, 근로장학생 외.
• 수업료 할인혜택 : 스님 50%, 가족 30%

대 학 원

■ 모집학과

◐ 불교심리상담학과 (야간) – 00명
• 교과과정 (2년 4학기 / 한 학기 4과목 수강)
유식학과 상담. 심신통합 이론과 실제.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 자아초월과 심리치료. 부부 및 가족상담. 불교경전속의 상담사례 집단상담 Ⅱ. MBSR수용전념치료. 개인상담 실습 및 지도. 상담사례연구 및 지도. 선심리 상담실습. 상담과 표현예술 치료

■ 개강일시 : 2011년 3월 9일(수) 오후 7시

■ 강의시간 : [각 90분 강의]
• 매주 수•목요일 (야간)
1교시 19:00 ~ 21:30, 2교시 20:40 ~ 22:10

■ 수 업 료 : 1학기당 400,000원

■ 입학자격
1) 본 대학 및 불교교양대학 불교심리상담과정을 이수한 자.
2) 정규 대학과정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에서 상담관련학을 전공을 하거나 졸업예정자.

■ 특 전
• 장학혜택 : 성적우수상, 근로장학생 외.
• 수업료 할인혜택 : 스님 50%, 가족 30%

교 수 진 (가나다순)
· 강차연 : 강차연심리치료소장 / 한국외국어대 강사 / 서울여대 대학원 아동학과 졸업 문학박사
· 김범진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강사 / 나우코칭 대표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명상학 박사
· 서광스님 : 미국 자아초월심리학(ITP) 박사 / 미국 보스턴대 종교심리학 석사 / 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 서혜희 : 한양사이버대 겸임교수 / 고려대학교 심리학박사
· 윤희조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 교수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 박사
· 이정명 : 표현예술치료 한국 타말타 연구소 소장 / 스위스 EGS변형학 박사과정 수료
· 정준영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 스리랑카 켈라니아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
· 주혜명 :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초빙 객원교수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자아초월심리학 박사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대원불교문화대학 학사관리처 (02-707-1072)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3층 (BBS)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양식은 www.kbpf.org 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형방법 : 서류전형 (심사 후 개별통보)

◐ 모집기간 : 2011년 2월 28일 까지

※ 자세한 사항은 대원불교문화대학 학사관리처
(☎ 02-707-10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마, 불교서 영감 받아 사상의학 창시



박성식 동국대 일산병원 교수(왼쪽 세번째)가 기조 발제하고 있다. 박교수는 이날 사상의학의 이면에는 불교적 견해가 내포돼 있다며 그 근거를 제시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일 종합발표회 개최

조선 말 이제마에 의해 창안된 사상의학. 한의학의 한 분야로 알려진 사상의학은 기존 한의학과는 다른 독특한 체계를 갖고 있다.

한 · 중 · 일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의학은 역사의 깊이 만큼이나 다양한 이론과 학설이 있으며 그 기저에는 음양오행론이란 이론체계가 있다.

이제마는 이 음양오행론에서 오행(五行)을 대신해 사상(四象)을 오장육부(五臟六腑) 대신에 사장사부(四臟四腑)를 중심으로 한 이론을 제시했다.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상의학이라 하면 체질에 따라 적합한 음식을 가려먹는 체질분류학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제마는 인간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의문을 제시했다. 즉 인간에 대한 탐구인 것이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은 1월 19일 불교와 사상의학의 융합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불교의 수행과 치유론을 사상의학론에 적용함으로서 불교학과 사상의학 간의 다양한 학문적 토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박성식 교수(동국대 분당병원 사상체질과)의 '불교와 사상의학의 융합', 김진무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의 '불교와 사상의학의 병인론 비교', 박인성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의 '마음챙김수행의 정신치료적 기능', 배효상 교수(동국대 일산병원 사상체질과)의 '애노희락의 정서를 통해 바라본 사상의학과 불교', 이자랑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의 '계율에 나타난 분노의 정서와 참회를 통한 치유' 등 다양한 관계 논문이 발표됐다.

태양인-風 태음인-地
소양인-火 소음인-水
사상의학과 불교 사대 유사

이중 박성식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사 · 심 · 신 · 물의 사상설을 중심으로 한 사상체질론의 이론적 특징과 학문적 연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상의학에 끼친 불교의 영향을 검토했다.

박 교수는 "사상의학은 불교의 지수화풍 사대와 관련해 태양인은 풍, 태음인은 지, 소양인은 화, 소음인은 수의 성질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 근거로 불교의 십이처와 오온을 들었다. 박 교수는 "불교의 십이처설과 인간 존재의 구조를 밝힌 오온설에서 나오는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중국의학에 융화됐다. 이어 중국의학에 영향을 받은 한의학에 수용됐다"며 "중국 의서를 참고한 〈동의보감〉을 이제마가 보고 불교의 사대설을 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사상의학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비록 유교적이라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불교적 견해가 내포돼있다. 한의학 중 심성론을 강조하는 사상의학과 불교의 마음챙김이 연결돼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생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이에 대한 각 분야의 구체적인 사례가 발표됐다.

김진무 교수는 '불교와 사상의학의 병인론 비교'를 통해 사상의학과 불교의학의 구체적인 접합점을 찾았다.

김 교수는 "불교나 사상의학이나 모두 그 목적으로 성인이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병의 원인을 참다운 성인에 길에 들지 못한 것으로 보고있음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불교와 사상의학은 병의 원인으로 인간의 파악에서 찾는다"며 "이제마가 가장 중요한 병인으로 심화를 든 것을 보아 사상의학은 치병보다도 수양을 더욱 중시하는 것이 아닐까 짐작을 해본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불교와 진화론, 윤리지향 같다

대한불교진흥원, '붓다와 다윈이 만난다면' 펴내



불교와 진화론의 관계에 대한 불교학자, 생물학자, 철학자들의 담론을 담은 〈붓다와 다윈이 만난다면〉이 출간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구랍 30일 〈붓다와 다윈이 만난다면〉을 출간했다. 〈붓다와 다윈이 만난다면〉은 2009년 11월 27일 대한불교진흥원이 개최한 '다윈 탄생 200주년 및 〈종의 기원〉 출간 150주년 기념 포럼'에서의 결과물을 모은 것이다.

이 책에서 안성두 교수(서울대 철학과), 우희종 교수(서울대 수의학과), 이한구 교수(성균관대 철학과), 최재천 교수(이화여대 에코과학부), 홍성욱 교수(서울대 생명과학부)는 '생명'이라는 공통 주제를 갖고 각 전공분야에서 불교와 진화론의 차이, 유사점에 대해 고찰했다.

특히, 이한구 교수는 "불교가 가진 변증법적 사고는 윤리이론에서 진화론과 중첩 될 수 있다"며 "진화론의 최고 윤리단계인 생명평등주의가 불교의 불살생과 자비라는 생명윤리와 만난다"고 밝혔다.

천진영 기자

한국불교학회 겨울 워크숍 개최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는 2월 9일 '요가수행과 불교명상'을 주제로 동국대 대각전에서 겨울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샵에서는 임승택 경북대 교수의 '요가의 삼매와 불교의 선정', 김순금 원광대 교수의 '요가와 인도인의 정신세계' 강연이 진행되며 도창원 요가학원장의 '요가의 실천원리와 실수' 프로그램으로 요가를 체험할 수 있다.(02)2260-3835

노덕현 기자

교불연, 동계수련회 개최

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준)는 2월 13~14일 서울 금선사(주지 법안)에서 동계수련회를 개최한다. (02)720-661

천진영 기자

일본 最古고승전 '원형석서' 완역

가장 오래된 일본의 역대 고승 열전이자 불교문화사 책인 〈원형석서(元亨釋書)〉가 국내 처음으로 완역됐다.

정천구(44) 부산대 한문학과 강사는 일본 가마쿠라 시대 임제종 스님인 코간 시렌 스님(1278~1346)이 45세 때인 1322년 완성한 〈원형석서〉 완역에 들어가 전 30권을 모두 한글로 옮겼다.

〈원형석서〉는 천황에게 진상된 당시 일본의 연호가 원형(元亨)이며 불교에 관련된 서적(釋書)이라는 뜻이다.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이사장 법상)가 번역을 지원한 〈원형석서〉는 백제 성왕을 통해 일본에 불교가 전래된 6세기 중반 이래 저자가 생존한 당시에 이르기까지 약 700년에 걸친 일본 불교의 역사를 승려들의 전기를 중심으로 체계화해 역사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덕현 기자

"고귀명수(鼓龜命數 : 육임운명판단법)" 출시 및 "효사 활인천역집(曉史活人天役集 : 육임종합 CD프로램)" 2011 완결최종판 안내!

신용카드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보 · 내정 · 신분 · 귀신 · 부정 · 산소탈등의 정확도 · 편이도 · 효과성이 백미입니다. 미리 알고 먼저 말하게 되는 명품(名品)입니다.
http://한국육임학회 팝업에 '**활용효과성**'을 위한 아래 '**효사활인천역집**' CD프로그램 2011 완결최종판과 '**고귀명수**'의 각 설명 강의 동영상을 올려 놓았습니다.

-. 효사활인천역집 CD프로그램 2011완결 최종판 안내



1. 정 가 : 5백만원
2. 기 능 : 상담전문활용육임종합 CD 프로그램
3. 업그레이드내역 :

가. 승인(인증)기능을 없앴음.
나. 신분 직업을 미리 알수 있도록 보충 하였음.
다. 초사(初辭)와 내정(來情)의 핵심사에 대한 애매성을 불식시키기위해 아래 사항들의 낮 밤, 남 · 녀 구분 및 어간(語間)의미를 최정련 시켰음.
1). 근친상간자에 대한 판단의 정확도를 위해 해당 천장 분별과 낮 · 밤 시간 구분 표시를 철저히 했음.
2). 남녀삼각관계(一男二女 · 一女二男)와 불비 · 부족관계에 있어서의 애매한 부분(三傳三合 / 四課 全 一 陽 · 陰)에 대한 채용 · 불채용의 적용을 명확히 했음. 이때 남자 또는 여자가 질투로 남자 또는 여자를 살해하게 되는 대상 남녀의 구분도 엄중히 했음.
3). 교동(狡童 : 남자가 타인의 부인을 유혹하여 색정거래 하는 것)과 음일(淫溢 : 여자가 남자를 적극 유혹하여 가출하려는 것)의 낮 · 밤 시간 판단구분을 철저히 했음.
4). 부인이 간사(姦私)로 남편을 살해하는 대상 여인도 엄중히 구분해 적시 했음.
5). 데릴사위 신분임을 철저히 구분해 적시했음.
6). 처에 의한 소송을 당하는 남자를 철저히 구분해 표시 했음.
7). 부부이별 하는자에 대한 구분을 철저히 표시 했음.
8). 상신(傷身) 또는 불구(不具) 여부가 본인 · 처첩 · 자녀 · 부모 · 형제 중 누구에게 해당되는지를 엄중히 표시 했음.
9). 혈광사의 대상과 암매사의 대상을 양일(陽日)과 음일(陰日)로 분명히 구분시켰음.
10). 고등(사법 · 행정 · 외무 · 변리 · 회계)시험과 대학입학 시험 합격자 및 선거 당선자 여부를 별도로 표시 했음.
11). 12귀신(作事鬼 病鬼) 중 '여귀(女鬼)' '음귀(陰鬼)' '가택귀(家宅 鬼)'의 종류를 새로 보강 했음.
12). 12부정(邪崇)중 부정침범부위(신변 · 가택 등)를 철저히 구분해 표시 했음.
13). 산소탈 14부 중 묘지속 상태에서의 '뱀굴' 여부 · '복골' 여부 · '水듬' 등 여부를 재정련 시켰음.
14). 집안에 귀물(鬼物 : 木 · 火 · 土 · 金 · 水)이 있는 경우 이를 표시 했음.
15). 기타에 있어
가) 이 사람이 왜 왔는가?
나) 이 사람의 전체적 상황은 어떠한가?
다) 이 사람의 구체적 문제는 무엇인가?
라) 이 사람의 비밀사안은 어떤 것인가?
마) 묻고자 하는 일이 이미 벌어졌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
바) 바깥일인가? 집안 내부 일인가? 후회하는 일인가?
사) 밝혀도 되는 일인가? 숨기고 싶은 일인가?
아) 上人(男)에게 유리한 일인가? 下人(女)에게 유리한 일인가?
자) 내 말을 신뢰 하는가? 설득해야 하는가? 자기 고집이 있는가? 등 위 프로그램에 장착된 15종 600여가지 사안 중 위 큰 항목 1 · 2 · 3 세가지와, 작은 항목 1-15 내용을 정련 · 보강 · 삭제 시켰으므로 완결 최종판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4. 기존 "효사활인천역집 Ⅰ · Ⅱ · Ⅲ CD 프로그램"의 교환 요구가 많아 2011.1.24-2.15일까지 교환 기간을 정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 교환가격	위 Ⅰ	90만원
	위 Ⅱ	70만원
	위 Ⅲ	50만원
	위 2010완결판	30만원
■ 분개(分個)육임산책 CD		150만원
■ 분개(分個)육임래정비법		100만원

www.taotemple.net

=. 고귀명수(鼓龜命數) 출시 안내

"안녕하십니까?"

중동지절(仲冬之節)에 저 고복자 효사 문안드립니다.

육임운명판단법 '고귀명수(鼓龜命數)'를 시작한지 4년만에 드디어 완성 시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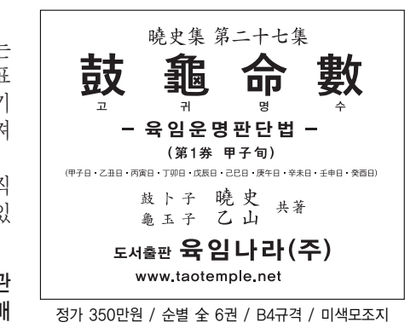
선입금 하시고 지금껏 기다려 주신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귀명수' - 혼신을 기울여 무섭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사주(四柱)에 연연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시간의 방문자마다, 이어지는 다음 사람들까지, 또는 출생 연월일시별로, 표시해 놓은 해당 쪽수만 펼치면 거기, 군더더기 하나 없는 속 시원한 내용 들이 또박 또박 써져 있을 것입니다.

읽고 해석해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인 부동(不動) 단구(單句)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간추려 드리건대 **수명 관계 / 건강 · 질병 관계 / 직업 · 신분 관계(來情과 命運 겸용) / 배우자 성정 · 용모 관계 / 명운 관계 / 부부 선후사(先後死) 관계 / 일생 귀인조력 · 유무 및 그 거소지 관계 / 일생 구해(仇害)인 유무 및 그 거소지 관계 / 육친별 상신불구(傷身不具)관계 / 출산자녀 친 · 구(親 · 仇)관계 / 매년 나이별(신수) · 길흉관계 / 띠별 현재 상황 관계 / 여자운명 관계 / 초년 · 중년 · 말년 길흉 및 육친 불행관계 / 초 · 중 · 말년 12작사귀 · 12병귀 · 침범관계 / 신변 · 가택 · 초 · 중 · 말년 12부정 침범관계 / 산소탈-육친 중 누구에 의한 파가(破家) 또는 흥가(興家) 하겠는가? 관계 / 묘지 속 '뱀굴' '복골' '水듬' 관계 / 남녀 혼인기(期)관계 / 전체 인생정체(定體) 관계 / 구체적 인생 행로(行路) 관계 / 살인 · 색정 · 생사별 · 사고 · 사건 관계 / 12궁위(本命 · 財 · 兄弟 · 田宅 · 子息 · 奴業 · 夫婦 · 病危 · 遷移 · 官職 · 老後福德 · 相貌) 길흉 관계까지**, 육임의 장점인 정확도 · 신속도 · 그 효과성에 맞춰 최대한 - 후회없이 - 잘 살펴 놓았다는 점을 주지해 드립니다.



정가 350만원 / 순별 全 6권 / B4규격 / 미색모조지

특히 이러한 내용들을 일별할 수 있게 한 일, 즉 복 · 명(卜 · 命)을 합쳐 '명운(命運)'과 '당면사정(當面事情)'들이 모두 한 면 한 눈에 들여다 보이게끔 구성시킬수 있었던 것은 저의 '일상(日常)을 떠난 세월'과 '육임에 대한 역사성'을 갖지 않으면 도저히 못해 낼 작업이었고, 애제자 귀옥자 乙山의 외지조응(外之助應)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귀명수'의 완성은 '육임이 복(卜)일뿐 명(命)에는 약(弱)하다'는 오해를 단 한번에 불식시킨 쾌거로서, 수천년 육임사에 이 책과 같은 '명 · 복 활용서'로 까지 만들어진 예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 개인의 불행사가 육임 '고귀명수'를 만들어내게 한 소명으로까지 이해하고 이 책의 완성과 함께 제 인생의 완성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운에 있어서 -이 책처럼 딱딱 부러지는 '정형화(定形化) 되어있지 못한 것'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면 이것, 저것이면 저것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분명히 써 놓아야만 흑 · 백이 가려질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한 눈금의 오차가 없어야 할 우리 활인 천역자들의 '잣대'이면서 '칼'임에야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선입금을 받고도 4년을 끈 저의 진의는 바로 이점 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것을 여기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미리 알고 권위있게 먼저 하게 될 말씀들을 애써 기록한 것입니다. 대 만족하실 것 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전화 070-7514-8680에서 제가 직접 주문 받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辛卯 季冬 鼓卜子 曉史 拜上

고복자(鼓卜子) 저술 소개

진정한 프로를 위한 진검승부적 위상을 제고시킨 육임활용 · 학습서들 입니다. 아래 활용서들은 육임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오행술을 몰라도 바로 활용하여 효과를 얻게끔 한글로 '쉽게' 되어 있습니다.

※ 활용서
- 육임래정비법시리즈 최종 2011 완결판
- '효사육임산책'(휴대용) · '효사육임복변집'(좌정용)
- 도사에게물어봐(2011 증보판)
- 출산길일길시택일비법(2011 개정판)
- 육임풍수(2011 개정판)
- 육임 1년신수비결(2011 개정판)
- 육임래정비법(증보개편판 : 휴대용 좌정용)
- 도정기(道程記) - 신간
- 불가법요집(佛家法要集) - 고품격완성도 / 해당법문 경구 색인 수록 / 법회의 감동심 고취 구성 / 각종행사 30여 발원 · 기도문 게재 등 새 지평이 제시됨.
- 육임대계전서(2011 개정판)
- 본 효사활인 천역집(2011판 완결최종판 CD프로그램)
- 본 육임운명판단법 고귀명수(鼓龜命數)
- 효사육임강의 CD(2011년 최신판)
- 오행제례의식집(2011 개정판)
- 효사육임복변집부록(2011 개정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2011 개정판)

※ 학습서
- 효사육임강론(曉史六壬講論) 2011 보정완결판 /
  · 上권 : 육임각법종합구성 / 2050쪽(학습용)
  · 下권 : 육임서 역대저자 머리글 / 육임대요문답/ 사과삼전보기요령/항목별주요신장제시 /사과삼전표 / 천지반표 / 과 / 격 / 초사 / 국수해설 / 항목별성부단정 수록 / 2015쪽(임상용)

육임강의「도술(방법실기)반」접수받습니다.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070-7514-8680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403호 (조계사 건너편 SK건설 옆건물)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1-778137
농 협 301-0071-802701 [예금주 : 육임나라(주)]

※ 카드결제 가능함 ※

탄허기념박물관 명사초청 보살사상 선양법회 ②



‘마음이 뇌를 바꾼다’ 는 사실이 최근 과학으로 입증되고 있다.

금강선원(선원장 혜거) 제2회 명사초청 보살사상 선양법회가 1월 13일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장현갑 영남대 심리학과 명예교수의 ‘마음챙김과 뇌과학’을 주제로 진행됐다.

장현갑 교수는 1942년에 경북 칠곡에서 태어나 서울대 심리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와 한국심리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영남대 심리학과 명예교수, 가톨릭대 의과대학 통합의학과 외래교수로 재직하면서 ‘마인드플러스 스트레스 대처연구소’ 소장으로 명상과 의학의 접목을 시도한 통합의학 연구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장 교수는 세계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 5개 분야에 등재, 2006년 미국인명협회(ABI) ‘영향력 있는 500인으로 선정, 영국국제인명센터(IBC) 100대 교육자에 선정됐다.



마음을 다스려라. 몸이 좋아지고 인생이 바뀐다

장현갑 영남대 명예교수, 명상수행으로 면역체계 개선… 만성질환 치료 효과 입증돼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불교 명상수행 붐이 일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미국에서 출간된 〈붓다 브레인〉 36주 연속으로 1위를 석권했습니다. 〈붓다 브레인〉은 뇌과학과 심리학, 불교 전통 수행에서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세계 7대 종교의 명상 수행 중 가장 철저하고 확실한 것이 불교 명상수행입니다. 불교는 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과학에서도 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곧 부처가 될 수 있다’ ‘사람이 곧 보살이 될 수 있다’ 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명상을 지칭하는 메디테이션(meditation)의 어원은 라틴어 메디켈루스(medikelus)에서 온 말입니다. 메디켈루스는 ‘치료한다’는 의미인데, 약으로 치료하는 메디슨과 달리 메디테이션은 ‘마음을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과학이 마음과 뇌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을 때는 단지 “명상수행을 하니 좋더라, 삶이 나아지더라” 는 믿음과 신비스러운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은 종교가 몸과 마음의 고통을 치료한다는 것을 뒷받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美학자, 베트남전 패배 이유 동양정신 ‘불교’에서 찾아

뇌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는 뇌가 변화할 수 있는 ‘뇌의 가소성(plasticity of brain, 腦可塑性)’을 부정합니다. 기존 학계에서는 마음이나 정신도 단지 두뇌의 활동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인간의 마음조차도 뇌 작용의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뇌 과학자들에게 ‘마음이 뇌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뇌 과학자들은 불교명상이 뇌의 어떤 부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주는지 본격적인 연구를 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마음이 뇌를 변화시킨다’는 긍정적인 해답을 이끌어냈습니다.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번뇌에 빠져있는가 그에서 벗어났는가’로 볼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번뇌에서 벗어난다면 그 뇌는 부처님의 행복한 뇌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상태에 관련한 뇌 연구는 1960년대 베트남전을 치른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은 베트남과 비교할 수 없는 화력으로 베트남전을 벌였지만 결국 패퇴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이유를 동양의 정신력에서 찾았습니다.

학자들은 뇌파 측정을 통해 마음상태를 연구했습니다. 1977년 미국의 베트남전 패전 이후 〈터닝 이스트〉는 그 원인을 ‘불교’의 영향으로 봤습니다.

1970년대 명상을 하면 마음이 이완되고 뇌에서 알파파가 나온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알파파는 초당 10~12주기를 보이는 뇌파입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오랫동안 수행한 이들에게서 더 느린 뇌파인 세타파가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타파는 초당 4~8주기를 보입니다. 선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의 느린 뇌파입니다. 세타파 보다 더 느린 뇌파는 수면파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뇌파 발생을 보고 바이오피드백이란 장치를 통해 정신치료에 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기존의 심리치료가 기계나 물질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혀주게 됩니다.

오른쪽 전전두엽… 번뇌망상 왼쪽 전전두엽 발달… 행복

2000년대 뇌과학자들은 달라이라마의 지원 하에 불교 고승들을 대상으로 뇌과학자들의 연구가 진행됩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 감성뇌과학연구소의 리처드 데이비슨은 티베트 수행승 175명의 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과거 알지 못했던 감마파라는 특별한 뇌파가 관찰됐습니다. 감마파는 30~80주기, 심지어 100주기를 가진 매우 강력한 뇌파입니다.

걱정 등 심리적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은 오른쪽 전전두엽(이마 바로 뒤쪽 피질)의 기능이 우세합니다. 이곳이 많이 활동하면 번뇌 망상이 많습니다.

반면에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왼쪽 전전두엽의 기능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좌반구 활동의 우세가 낙천성, 우반구 활동의 우세가 염세성, 우울증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리처드 데이비슨의 연구결과 티베트 스님들은 한 사람의 빠짐없이 좌반구의 전두엽이 우세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오랜 수행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도 수행을 시작하면 좌반구 우세로 바꿀 수 없는지’ 입니다.

숭산 스님의 제자인 미국 메사추세츠대 의과대학 석좌교수 카바지니는 MBSR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즉 마음 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다양한 명상기법을 활용하는 심신수련법입니다.

현재 미국 250여 의료기관을 비롯 전 세계 300개가 넘는 병원에서 만성질환자의 치료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의료명상 기법입니다. 마음챙김을 현대인에 맞게 체계적으로 재개발 한 것입니다.

카바지니는 바이오텍(생명공학회사)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1주일에 3시간씩 8주간 MBSR을 시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수행 전 오른쪽 전전두엽이 우세한 일반인들이 수행 후에는 좌측 전전두엽 우세로 바뀌었습니다.

명상과 수행이 뇌기능을 바꾸고 어두운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전환시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음도 바뀌고 몸의 면역 기능도 향진되고, 자비 · 연민 · 안정과 관련 있는 뇌 부위들이 발달된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심리학자, 뇌과학자들은 불교 수행을 심리치료에 적극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뇌가 일단 형성되고 나면 변화하지 않고 고정된다는 전통적 주장을 뒤엎는 뇌과학의 역사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수행하면 낙숫물 돌 파듯 누구나 뇌를 바꿀 수 있다

우리 뇌에는 1조 개에 달하는 세포와 1000억 개의 뉴런 조직이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여러 부위와 구조가 신비롭게 얽혀있는 뇌는 1.4kg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뇌가 우리 에너지의 약 20%를 사용합니다.

번뇌 망상에 빠진 뇌는 에너지를 급격히 늘립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잠도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뇌가 파손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병원 외래환자의 80%가 마음에서 그 원인이 있는 심신증이라고 합니다. 심신증은 다른 말로 스트레스 관련 질병, 또는 만성질환, 또는 현대병이라고 불립니다.

수행을 통해 뇌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면 장수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많이 한 노스님들을 보십시오. 고령에도 정신이 매우 또렷하고 정정합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은 매일 번뇌에 빠져 여러 가지 정신장애, 그로 인한 질병을 겪습니다.

근육도 많이 운동하면 자라지 않습니까? 뇌도 많이 훈련하면 자랍니다. 특히 불교 명상을 하게 되면 크게 달라집니다. 낙숫물이 돌을 파듯 하루하루 수행을 계속하면 그 수행력이 뇌를 변화시킵니다. 뇌세포가 더 커지고 건강해집니다.

불교는 과학입니다. 불교 수행은 보살심을 키우고 그 보살심을 담은 법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의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고 미래를 걱정하는 한 생각이 번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있으라” “여기에 머물러라” “화두, 염불 놓치면 안된다” “절을, 호흡을 해라”고 합니다. 달아나지 못하게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위생상태도 좋아지고 약물과 음식도 다양한데 왜 병은 더 많아졌을까요. 바로 스트레스 번뇌 때문입니다. 최근 돌고 있는 구제역을 보십시오.

구제역 동물 스트레스탓 세로토닌, 감마파 행복호르몬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구제역에 걸리지만 야생의 멧돼지는 구제역에 걸리지 않습니다. 농장 돼지들이 구제역에 걸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좁은 공간에 가두어 놓다보니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야생동물을 동물원에서 잠시 관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원 우리 안의 야생동물들에게서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병 등 사람들이 겪는 것과 같은 병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사육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우울증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자살률 또한 제일 높고 이혼율도 제일 높습니다.

번뇌 왕국인 것입니다. 경제 성장의 어두운 면입니다. 정신적인 의지처나 삶의 희망 없이 분노와 좌절감,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상을 하면 면역체계가 개선되고 만성질환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매 순간 안정과 균형 있는 뇌, 그리고 마음, 그로인해 나오는 행복호르몬 세로토닌, 감마파는 다름 아닌 부처입니다.

노덕현 기자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대학장 : 호 암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1년 1월 10일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1년 3월 9일 수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1년 1월 10일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0년 3월 8일 화요일**

금강선원 기로원 입소자 모집



금강선원에서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제천 기로원을 완공하여 비구니 스님과 여성 불자들이 편안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복지타운으로 이용될 요사채에 입소하실 비구니, 여자 불자님들의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방 규 모 : 원룸형 8평 18실 (방1개, 베란다, 욕실)
◇ 입소자격 : **비구니, 여성불자**

※ 자세한 내용은 금강선원 사무국
☎ 02)969-2410 으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한문학당 참가 어린이들이 차수(叉手)를 하고 점심공양을 하러 가고 있다. 서산 부석사에서 개최하는 '부석사 충·효·예 한문학당'을 통해 학생들은 불교예절, 전통문화를 배우고 자립심을 기를 수 있다.

"땔감 옮기기, 눈 치우기 놀이하며 마음 공부해요"



서산 부석사 겨울 한문학당 개최

오전-한문공부, 오후-전통문화체험 단청그리기, 눈썰매 타기 등 재미 만점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가 지속되는 한겨울, 충남 서산 부석사를 찾았다.

서울에서 늦은 오후에 출발해 저녁 즈음 사찰이 위치한 도비산에 도착하니 이미 해는 지고 북두칠성은 선명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서해바다와 인접한 부석사에서는 천수만이 한눈에 들어온다.

신라 의상 스님과 선묘낭자의 플라토닉 사랑이야기가 창건설화로 유명한 부석사는 677년에 창건된 고풍스러운 천년 고찰이다.

부석사는 인적이 드문 아담한 절이었지만, 7년 전부터 한문학당과 우리나라 최대의 철새도래지인 천수만 철새탐조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기위해 봄, 여름 전국 각지 남녀노소의 발길이 잦아졌다.

"부생아신(父生我身) 하시고, 모국아신(母鞠我身) 하시며, 복이회아(腹以懷我)하시고, 유이포아(乳以哺我) 로다."

"아버지는 내 몸을 낳게 하시고, 어머니는 내 몸을 기르셨으며, 배로써 나를 품어 주셨고, 젖으로써 나를 먹여 주셨도다."

아이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사찰에 울려 퍼진다. 추운 겨울 밤 호롱불에 의지해 천자문을 외던 어린 도령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어린이들은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이 펴낸 〈수심보경(修心寶鏡)〉을 읊으며 〈사자소학〉 〈법구경〉 〈초발심자경문〉 〈명심보감〉의 구절을 한자 한자 가슴에 새겼다.

충남 서산 부석사(주지 주경)에서는 매해 2회 여름·겨울방학에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부석사 충·효·예 한문학당(이하 한문학당)'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로 9회를 맞는 한문학당에는 1월 16~22일 6박 7일간 9명의 초등학생이 참가했다.

지난여름 어린이 한문학당에는 신청인원이 갑자기 늘어 제한인원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올겨울은 유난히 추워서인지 당일 취소한 학생들이 많아 참여인원이 9명밖에 되지 않았다.

어린이들은 한문을 외우고 난 뒤 참회와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친구들과 싸우지는 않았는지, 법당에서 뛰어다니고 소란스럽게 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짜증이 날 때 욕을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보고 내일은 그러지 않겠다고 스스로 또 다짐한다.

이튿날 새벽 4시, 경내에 눈이 소복이 쌓였다. 하나 둘씩 아이들이 눈을 비비며 숙소에서 나온다. 새벽예불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9명의 어린이들 모두 자발적으로 새벽예불에 동참했다.

"야, 삼배부터 해야지." 한 친구가 법당에 들어오자마자 자리에 앉으려는 친구에게 예법을 상기시킨다. 새벽예불이 끝난 뒤 한 시간의 한문암송 시간이 이어졌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후 영도 스님의 지도아래 발우공양이 진행된다. 한문학당에 참가한지 나흘이 되니 발우공양에도 요령이 생긴다.

구본승(학돌초 6)군은 "단무지위에 김을 놓고 김 위에 김치를 놓아요. 깨끗하게 먹으려고요"라며 노하우도 들려준다.

학생들은 발우공양 후 영도 스님과 차담시간을 가진 뒤 아침포행, 눈 쓸기, 불을 땔 장작 옮기기, 곤줄박이에게 먹이주기 등을 한다. 뛰어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사찰의 운력 활동도 놀이이자 공부가 된다.

부석사 한문학당에는 한문수업과 템플스테이, 운력 활동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도비산 등산, 부석사 둘러보기, 인경체험, 단청그리기, 눈썰매장가기 등 도심 학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체험을 경험한다.

이날 체험활동은 단청그리기. 미리 준비된 뇌록칠을 한 판에 단청문양의 윤곽을 그리고 그 위에 조심스레 색을 칠한다. 어수선하던 아이들이 각자의 작품 활동(?)에 몰입한다.

단청그리기를 지도한 문화재수리기능자 김완숙 화공은 "색을 칠하는 작업은 산만한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해 심리치료에 도움이 된다"며 "궁궐, 절에 가서 문화재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아이들도 단청그리기를 체험하면 문화재에 관심을 갖게 된다. 한 번의 전통문화 체험이 평생 관심을 갖게 하는데 씨앗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은 오후 9시에 모든 일과를 마친다. 타이트한 일정에 체력이 떨어질 만도 한데 아이들은 쉬는 시간만 되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며 까르르 거렸다.

부석사 한문학당을 진행하는 오진희 씨는 "취침, 식사 시간 등 생활이 규칙적이고 먹는 음식이 단순하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가 9시까지 일과를 할 수 있다"며 "한문학당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청소, 잠자리 등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서 부모의 응석받이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조여지(원주 중앙초 6)양은 "발우공양을 통해 밥 먹는 예절을 배워서 좋다. 108배와 새벽예불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한문도 배우고 친구들과 우정을 쌓을 수 있어 여름에 또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경 스님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영어교육에만 집중하다보니 한문이나 국어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고 있다"며 "한문은 불교 경전의 근본이다. 한자문화권에 속해있는 만큼 한문공부는 문장력이나 언어구사력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 자연, 생태 프로그램과도 다양하게 연계해 어린이들의 생태체험 현장이자 쉼터이며 어린이포교당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41) 662-3824

이나은 기자



스님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수심보경〉을 외우고 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 ~ 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불자몰 ▼ www.buljamall.com
불자종합쇼핑몰 BuljaMall
불자용품, 사찰홍보용품, 판촉물, 기념물, 답례품
인쇄물전문(봉투, 전단지, 초대장 등)
최대 50% ~ 70% 할인
소량구매도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문의전화 : 070-7257-0408

대광명사 인제대 해운대 백병원… 삼위일체 일깨우는 보살행

‘배우고 수행하고 봉사하라’



부산 대광명사는 매주 수요일 해운대 백병원에서 자원봉사 및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봉사자와 환자들이 함께 법회를 하고 있는 모습.

봉사자가 병마에 고통 받는 환우를 위해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행한다면 봉사자와 환우 중 누가 고마움을 느낄까. 이곳에서 보살행을 펼치고 있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한결같이 ‘나 자신’이라고 대답했다.

부산 대광명사(주지 목종)는 2010년 개원한 인제대학교 부속 해운대 백병원에서 매주 수요일 자원봉사 및 병원법당을 관리 및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1월 19일 괘불과 단상을 여법하게 차린 지하2층 회의실에서 정기법회가 시작됐다.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은 “단지 건강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욕망과 집착으로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되새겨보라”며 “질병 등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원 환우들을 위한 즉문즉답, 환우 쾌유를 기원하는 발원문 낭독, 축원 등으로 법회는 40여 분만에 마쳤다. 이는 병실을 오래 비울 수 없는 환우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다.

해운대백병원에는 대광명사 소속 80여 자원봉사자들이 남몰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주 월~토요일 원무과에서 접수 및 안내를 돕는가 하면 비품창고에서는 침대 시트 등 침구류의 정리정돈과 교체를 도맡아 한다. 공급실의 면봉, 거즈 등 각종 의료용품도 봉사자들의 손길을 거쳐 간다. 그밖에 요일별로 조를 편성한 봉사자들은 법당을 참배하는 환우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며 불자환우 쾌유봉사 및 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큰 대학병원이 불자봉사자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24시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병원 법당 개원이 결코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사립대학병원에서 종교 형평성을 고려해 세 종단이 종교실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목종 스님은 “병원에서 불교법당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은 병원 탓이나 이웃종교 탓이 아닙니다. 우리 불교계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배우고 수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한다. 봉사는 나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기자

“조계종 자부심만 있고 현실직시 못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 사무총장 심 산 스님, “4월 결집대회 개최”

“조계종도라는 자부심만 있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중소규모의 조계종 사찰을 육성할 수 있는 방편이 제도적으로 구축돼야 할 것입니다.”

부산지역 조계종도 연합체인 ‘조계종 부산연합회’ 사무총장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 동련 이사장)은 연합회 출범을 준비하며 부산 전역의 조계종 사찰을 둘러봤다. 유명한 사찰 몇 군데 이외에는 조계종임에도 열악한 곳이 더 많았다. 심산 스님은 “조계종도로서 사회적 기대와 요청에 불교가 얼마만큼 부응했는지 반성하고, 한국불교 발전에 든든한 초석이 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회장 수불)는 1월 11일 오후 3시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범종단 연합체인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와 달리 조계종 불교연합체는 발기인 대회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발기인 대회를 준비하면서 증명과 고문으로 모실 어른스님들께 찾아가 설명을 해드리니,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합니다. 종단의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다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6차례 실무회의와 5차례 준비위원회 끝에 조계종부산연합회 창립 “수행·전법 강화할 터”

발기인대회를 마쳤을 뿐인데 일대의 혁명을 기대하는 이들도 있다.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많습니다. 사실 뚜렷하게 드러나는 효과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찾아가 연합회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권유해야할 스님들도 많습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수행과 전법’의 기치를 내걸고, 조계종도들이 수행과 전법, 자비실천의 정신으로 종지종풍을 선양하기 위해 설립됐다. 구랍 4일 수불 스님 발의로 ‘조계종 부산권 종도들의 모임 추진’ 회의를 갖고, 6차례 실무회의와 5차례 준비위원회를 거쳐 이번 발기인대회를 갖게 됐다. 회장 수불 스님이 발기인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2011년 주요 사업 계획은 △오는 4월 수행과 전법을 위한 포교역량 결집대회 △조계종도 교육 및 정보공유를 통한 정체성 확립 △성도재일 기념법회를 개최해 성도재일의 재인식과 수행·전법 환경의 조성 △기존 부산시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봉축 및 팔관회 행사의 적극 동참 등 총 4가지이다.

박지원 기자

범어사 방화범 검거… 사찰서 잔일 돕던 거사

수십년 절집 생활에도 부처님 법 알리지 못한 공업 탓

경내 돌며 범행 계획

1월 15일 범어사 천왕문 방화범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진지 31일만으로, 범인의 결정적 단서는 경내에 설치된 37대의 CCTV에 담겨있었다.

1월 15일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정용환)는 범어사 천왕문 방화사건의 피의자 이 모씨(43)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CCTV 화면에 잡힌 피의자의 걸음걸이와 착의, 동선 등을 토대로, 동일수법 전과자, 정신이상자, 타종교인, 내부인 등 용의자와 정밀 비교분석해왔다.

이에 사건 2주 전인 2일과 8일, 13일 이씨가 범어사 경내를 돌며, CCTV 위치를 파악하는 모습이 폐쇄회로에 잡혔다. 구랍 7일과 10일, 12일에는 기상청 전화(131)로 범행당일 기상정보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인은 천왕문 방화 이외에도 범어사 소유 임야에 2차례 방화, 범어사 성보박물관 지하출입문 손괴, 법고 손괴 등 추가 범행을 자백했다.

피의자 이모 씨는 12월 19일 소환 조사됐었다. 하지만 경찰은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범행을 부인한 그를 돌려보낸 바 있다.

범인은 범어사 산내 암자 청련암에서 연고 없이 기거하던 이로 밝혀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모 씨는 자신의 범행동기가 온갖 궂은 일로 건강이 악화됐고, 범어사 보제루 복원불사가 자신의 지병과 관계가 있다고 믿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청련암에서 수년째 기거하면서 제(祭)를 돕는 등 잔일을 했다. 하지만 사찰과 교계에서는 사람불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부대중 모두의 업으로 참회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경찰은 지방청 소속 경찰 37명, 경찰서 소속 40명 등 총 77명으로 구성된 대단위 수사본부를 설치했으나, 사건 발생 30일이 지나서야 범인을 검거했다.

박지원 기자

당당한 승려되자!

일붕선교종 제 5대 종정에 부산 미룡사 정각 스님 추대



일붕선교종 제5대 종정으로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이 추대됐다.

일붕선교종은 1월 12일 오후 2시 부산 영도 미룡사(회주 정각 · 사진)에서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종정 추대식을 봉행했다. 지난해 10월 제4대 종정 붕해 스님의 입적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추대는 종정추대법에 의거 구랍 13일 제39차 정기중앙종회에서 이뤄졌다.

이날 법회에서 정각 스님은 종단 발전을 위한 10가지 비전을 밝혔다.

한편 일붕선교종은 17일 코모도 호텔에서 이웃종교지도자 10인과 ‘(가칭)정체성바로세우기 국민운동연합(상임대표 정각)’ 창립준비위원회를 꾸렸다.

박지원 기자

군산불자들 신묘년 신년하례 법회 봉행

군산 지역 불자들은 1월 20일 군산 리츠프라자 호텔에서 신묘년 새해를 맞아 ‘신년하례 및 군산발전 기원 조찬 법회’를 봉행했다.

군산 사암연합회(회장 재곤. 관음사)가 주최하고 군산 신도연합회(회장 허양)가 주관한 이날 법회는 관음사 재곤 스님, 흥천사 지환 스님, 강봉균 국회의원, 문동신 군산시장, 김용화 전북도의원, 문면호 전북도의회 부의장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재곤 스님은 법어에서 “정법을 이어가는 불자로서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열어갈 것”을 다짐하고 지역발전을 기원했다. 이어 스님은 “전국이 구제역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과응보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며 “부처님의 생명존중사상으로 불자여러분들이 앞장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연등축제 및 빛고을아카데미 법인화 추진

광주불교사암연합회는 올해부터 광주불교행사를 지역 문화축제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오)는 1월 17일 광주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신년 기원법회 및 성도절법회에서 △빛고을연등축제를 ‘우리 빛 관등축제’로 변경하고 광주시민들이 함께하는 문화축제로 △빛고을불교아카데미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로 이끌어 갈 것을 밝혔다.

우진 스님은 5일 신행단체 간담회에서 “우리 빛 관등축제와 빛고을불교아카데미의 법인화를 통해 체계적인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 등으로 활기…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빚 해탈을 위한 황금 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천년의 숨결로 살아온 상감청자!

그 전통과 자연으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사찰경제 발원과 불제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청다향의 마음입니다.

정갈하고 청정한 부처님의 공양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달마사 청오 합장





실용신안 특허의 기술

· 제품명 : 순금 상감청자 법륜대
· 높 이 : 120cm
· 원통폭 : 45cm
· 밑바닥폭 : 30cm
· 무 게 : 25kg

• 문의 :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010-4595-0017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윤창화의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㉑

보설(普說) · 방참(放參) · 청익(請益)

예의만 갖추면 어떠한 질문도 가능



2009년 본사와 '민족성지 지리산을 위한 불교연대 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지리산야단법석에서 혜국 스님의 법문이 끝난 후 한 재가자가 스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

대중·신도 요청시 열리는 보설

보설(普說)이란 '널리 대중들에게 법을 설한다'는 뜻으로서 선종사원(총림)의 주지가 행하는 법문(설법) 가운데 하나이다. 장소는 법당에서 하기도 하고 방장에서 하기도 하는데, 법당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법당에서 하더라도 평상복 차림으로 할 뿐, 가사 등 법복을 입지는 않는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상당법어, 소참 등은 정기적, 의무적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보설은 비정기적인 설법으로서 대중들이나 유력한 신도가 요청했을 경우에만 한다.

〈칙수백장청규〉(1338년 편찬)에는 보설에 대해, "대중들이 향을 사루고 청하면 법상이 설치된 곳에서 행한다. 또는 단월(신도)의 특별 요청이 있을 때 대중을 위하여 법좌에 올라가 설법한다"라고 하여, 대중들이나 신도들이 요청하면 행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보설은 '특별 법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보설은 대중적인 설법으로서 송대 초까지만 해도 한 적이 없었다. 당시까지 법어는 상당, 소참, 조참, 만참으로서 모두 4가지였는데 이것은 모두 전문 수행자 즉 스님들을 위한 법문이었다. 그 후 신도 등 대중들을 위한 '보설'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법문이 생긴 것인데, 이 시기 선불교는 율종, 화엄종, 천태종, 등 중국불교의 모든 종파는 물론, 중국의 민간신앙인 도교까지 제치고 종교계의 전면에 등장했다. 선은 승속 상하층에 깊이 각인되어 아낙네들도 저자 거리에서 선을 담론할 정도였다. 수행승들과 일반 불자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대중적 성격의 법문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이른바 보설이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선불교가 보다 대중 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가고 있었다.

보설, 중국 종교계 전면에 확산

청익 희망자는 방장 시자에게 신청

보설은 간화선의 거장이며 사회성 짙은 선승인 대혜 선사(1089~1163)에 의하여 크게 유행했지만, 처음으로 보설을 행한 이는 대혜 선사에 약 60년 앞선 진정극문(眞淨克文, 1025~1102)선사이다. 이후 오조법연(1024~1104)의 제자로서 이른바 삼불(三佛)이라고 칭해졌던 불안청원(1067~1120), 불감혜근(佛鑑慧勤, 1059~1117), 불과원오(1163~1135)도 보설을 했다.

무착도충(無着道忠, 1653~1744)이 편찬한 〈선림상기전〉에는 "보설은 곧 승좌설법(법상에 올라가 설법하는 것)이다. 상당법문도 승좌설법이다. 다만 차이점은 보설을 할 때는 향을 사루고 축향(祝香)하지는 않는다. 법의를 입지도 않는다. 보설은 진정극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삼불(三佛; 佛眼. 佛鑑, 佛果)도 행했고, 대혜종고에 이르러 바야흐로 크게 성행했다(三佛亦行之, 到大慧方盛)"라고 말하고 있다.

앞의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특히 대혜 선사(1089~1163)가 많은 보설을 남겼는데, 〈대혜어록〉 30권 가운데, 제13권에서 18권까지가 보설이다. 읽어보면 수행자들의 청에 의하여 하는 경우도 있고, 거사 등 유력한 신자의 요청에 의하여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내용은 거의 상당법어와 다름없다. 차이점이 있다면 상당법어에 비하여 내용이 길고 군말, 군더더기가 많은 편이다. 대중적 성격을 띠다 보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보설을 요청하는 이가 거사 등 일반 불자일 경우 상당법어처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방장의 사정으로 법문을 쉬는, 방참

방장(주지)이나 조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문을 쉬는 것, 법문을 '땡' 치는 것을 방참(放參)이라고 한다. 주로 고급 관료나 귀한 외빈이 왔을 때, 또는 임시 기도, 행사, 불사 등으로 인하여 바쁠 때는 설법을 거를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미리 승당이나 방장, 또는 중료 등에 방참패(放參牌)를 걸어서 알린다. 상당법어를 쉴 때는 상당방참패를, 조참을 쉴 때는 조참방참패를, 만참을 쉴 때는 만참방참패를 거는데, 부정기적인 법문인 보설은 방참패가 없다. 그리고 방참 때가 되면 다시 방참종을 쳐서 재차 알린다. 법어가 없는 날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게 된다.

선불교 독창적 교육 시스템

수행자가 별도로 방장이나 조실스님을 찾아가 질문하는 것, 더 가르침을 청하는 것을 '청익(請益)'이라고 한다. 더 가르침을 받는 다는 것은 수행자로서는 큰 이익(利益)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청익은 주로 상당법어나 조참, 만참 등 법문을 듣고 난 후에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 의문 나는 점 등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조실이나 방장(주지)화상을 면담하여 묻는 것을 말하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다거나 어떤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제라도 찾아가서 질문할 수 있다. 그 역시 좌선, 설법 등과 함께 선불교의 독창적인 교육시스템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時)도 때도 없이 무작정 가서 불쑥 불쑥 물을 수는 없다. 청익을 희망하는 사람은 먼저 방장시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시자가 주지에게 아뢰고 주지가 시간을 내어 윤허하면 입실하게 되는데 그 절차가 엄숙하다. 청익자는 가사를 입고 방장실에 도착하여 정중한 마음으로 꿇어앉아서 마루에 있는 작은 종(鐘)을 3번 친다. 그 종을 정종(定鐘)이라고 하는데, 청익하기 위하여 왔다는 신호이다. 이윽고 시자의 안내로 주지(방장) 앞에 가면 먼저 합장하고 인사한다. 그런 다음 향을 사루고 9배를 하고 질문한다. 질문이 끝나면 다시 3배한다. 시자에게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야 한다. 이 시자는 동자승이 아니라, 막강한 실력과 법랍을 갖고 있는 대선배이다.

조실이나 방장이 설법할 때, 또는 언제라도 학인이 묻고 답하는 것은 거의 상례화 되어 있다. 이것을 '빈주문수(賓主問酬)'라고 하는데, 학인(賓)이 묻고(問) 선사(主)가 답한다(酬)는 뜻이다. 〈임제록〉에 나오는 '빈주역연(賓主歷然, 주객이 둘이로구나)'이라는 말도 학인(賓)과 선사(主)를 가리킨다. 크게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즉 예의를 갖춘다면, 어떤 경우든 어떤 질문이든 문제시 하지 않는다. 그것이 곧 선문답, 법거량이다. 격조 있는 질문이라면 주지로서는 그 이상 반가운 일도 드물 것이다. 방장실을 노크하여 질문할 정도라면 그는 이미 투철한 수행자임에 틀림없다. 깨달을 날이 그다지 멀지 않았다고 평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사실 오늘날 전해오는 〈운문록〉 〈임제록〉 등 모든 선어록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이 선사와 수행자, 선승과 선승들은 활발한 문답을 통하여 생동감 넘치는 선의 세계를 창조해 왔던 것이다. 선문답은 각자(覺者) 곧 부처를 탄생시키는 결정적 순간들이 되곤 했다.

방장 설법 때 확인 문답 상례

선문답은 살아있는 선의 정신

〈전등록〉 6권 백장선사 장(章)에 수록된 〈선문규식〉에는 청익과 문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학인(賓)과 선사(主)가 서로 묻고(問) 답(酬)하여 종요(宗要, 핵심)를 드높이고 발분(發憤)시키는 것은, 이것은 법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賓主問酬, 激揚宗要者, 示依法而住也)"라고.

선문답이 곧 살아 있는 선의 정신이고 기개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선불교의 가장 값진 모습이요, 아름다운 모습이다. 활발발하게 살아가고 있는 선자(禪者)들의 생활상이다.

그러나 사실 많은 대중들이 모인 가운데서 선뜻 질문하기란 쉽지 않다. 질문자로서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별 것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리석은 질문으로 치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불교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대화, 개인 면담을 제도화했던 것이다. 오늘날 강의가 끝난 후 별도로 교수실로 찾아가서 묻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것을 통하여 깨닫는 이도 많았기 때문이다.

청익(請益)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잘 알 수 없으나 꽤 오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제록〉 22단 용아참문(龍牙參問) 장(章) 끝에 청익하는 장면이 나온다. 어떤 형태이고 실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기 위하여 한 단락을 끌어들여 보고자 한다.

"먼저 용아 스님이 임제 선사께 질문했다.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임제 선사가 대답했다. 나에게 저 선판(좌선 후 쉴 때 등을 기대는 판)을 좀 건네주게(현재 상황은 선당이라고 생각됨). 용아 스님이 곧 선판을 건네 드리자 임제 선사는 그 선판을 받자마자 곧바로 '탁' 한 대 때렸다. (…)그 후 어떤 스님이 방장실로 가서 물었다(入室請益). 화상께서는 행각할 때에 두 존숙(고승)에게 참문한 적이 있는데, 이 두 존숙을 인정하십니까? 인정은 하지만 그 속에 조사의 뜻은 없다.(龍牙問, 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 與我過禪板來. 牙便過禪板與師, 師接得便打. (…)有僧, 入室請益, 和尚行脚時, 參二尊宿因緣, 還肯他也無. 肯即深肯, 要且無祖師意)"

'청익'이라는 말은 이미 있던 말이다. 공자의 언행집인 〈논어〉에도 보인다. 어느 날 제자 자로(子路)가 공자에게 질문했다. "어떻게 정치를 해야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솔선수범하고 노력하라." 자로가 다시 부연 설명해 줄 것을 청하자 다시 공자가 말했다. "정치하는 자가 게으르면 아니 되느니라(子路, 問政. 子曰, 先之勞之. 子路, 請益. 子曰, 無倦)"

매우 훌륭한 말이다. 그러나 요즘 정치인들은 고급 요정에서 술 먹기 바쁘고 국내외로 놀러 다니기 바쁘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깊이 새겨야할 금언(金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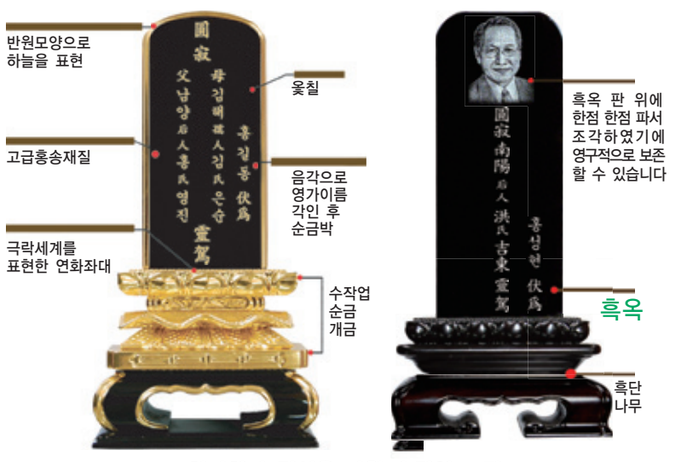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a9@hanmail.net

"명품"의 황금위패, 흑옥위패로 영단의 품격을 높여 드립니다 !!

황금영구위패는? ※디자인특허※

◈ 하나 하나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하여 제작한 황금위패로 영가위패단의 품격과 신도는 조상에 대한 숭모의 뜻을 높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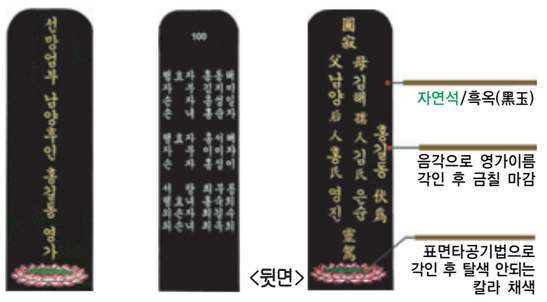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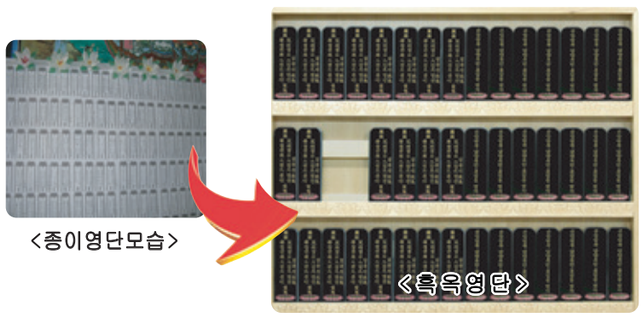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작업 조각

흑옥위패단은? ※디자인특허※

◈ 자연석 고급석재로 제작하여 영단의 안정감과 품격을 높여줍니다.
◈ 비용이 저렴하여 많은 신도가 위패제작에 동참할 것입니다.
◈ 뒷면에 고유번호와 가족이름을 넣을 수 있어 관리가 편합니다.
◈ 좁은 공간에 많은 봉안영구위패를 장엄 할 수 있는 맞춤형 흑옥위패 단입니다.
◈ 사찰비용없이 영단 설치와 어려운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가의 문구는 각 사찰의 요구대로 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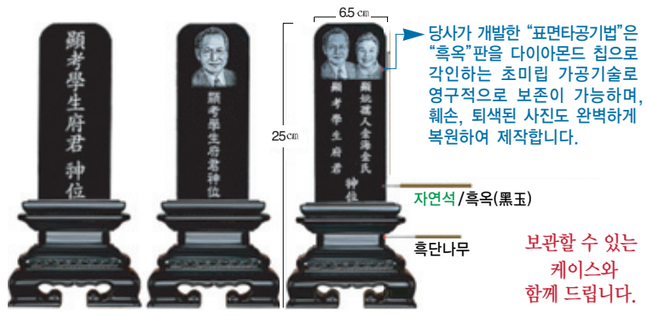
※ 전국 어디든 각 지역 사업부에서 샘플과 자료를 가지고 찾아 뵙겠습니다 ※

흑옥 제사용 위패는? ※디자인특허※

◈ 제사 때나 명절에 지방위패에 조상님의 사진과 함께 제작한 지방으로 제사를 모시면 생전의 모습을 잊지 않을 것이며, 지방을 쓰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흑옥(黑玉)과 흑단 나무를 부착하여 제작하였기에 영구적으로 보존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문시 사진은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제작 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상담전화 : 02)966-9650

(주)대양아트 FAX : 02) 921-9650

본사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6-1 e-mail : dyart@daum.net

금강산에서 대둔산까지 선풍과 교해가 출렁이네

㊽ 남과 북의 바람을 한 몸에 통진 문수사

강화대교를 건너기 전, 오른쪽으로 성곽이 구불구불 능선을 타고 오릅니다. 조선 숙종 때 축성된 문수산성입니다. 산비탈로 난 토끼길을 따라 산을 오릅니다. 눈이 수북 쌓여 있는 비탈길은 제법 미끄럽습니다. 생각보다 경사도 가파릅니다. 반 시간 가량을 헉헉 거리며 오른 곳에 문수사가 있습니다.

요사채는 근래에 새로 지어 말쑥하지만 비로전은 다소 낡은 모습입니다. 1971년 화재로 전소 된 자리에 새로 지은 법당인데, 안에는 비로자나 부처님과 신중탱화, 산신탱화, 독성탱화가 모셔져 있습니다. 누가 먼저 다녀갔는지 향이 반의반쯤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향을 사뤄 올리고 절을 올립니다.

연초부터 물가(物價)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구제역에 고병원성 인플류엔자(AI)에 혹한까지 덮쳐 뒤숭숭한 세상이 하루속히 평화로워 지기를 빌며 정성껏 삼배를 올립니다. 문풍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웅웅 소리를 내며 들어옵니다.

비로전을 나와 오른쪽으로 난 좁은 길을 따라 200m 쯤 가면 풍담 대사(楓潭大師 1592~1665) 의심(義諶) 스님의 부도와 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벽응(碧應 1909~2000) 스님의 부도와 비가 찬바람을 맞으며 서 있습니다. 좌우로 뻗어 내리는



대흥사에 위치하고 있는 풍담대사비.

문수산 능선의 중앙에 풍담 스님과 벽응 스님의 부도를 모시기 위하여 봉우리 하나를 더 쌓은 듯 뻗어 내린 능선 위에 부도와 탑비가 우뚝 서서 겨울 하늘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풍담 스님의 부도는 팔각원당형을 계승했지만 조선중기의 양식답게 많은 부분이 생략된 간결한 맵시입니다. 사각의 지대석과 기단 위에 팔각의 하대석은 복련을 치장했고 중대석과 상대석은 엷은 신중 문양을 넣었습니다. 둥근 몸돌 위에 경사가 급한 옥개석을 얹었는데 상륜부까지 온전하게 잘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탑의 크기에서 옥개석의 비중이 좀 지나치다 싶습니다. 탑비도 그리 높지 않고 귀부가 아닌 사각의 비꽂이에 몸돌을 끼우고 구름무늬가 깊게 새겨진 이수를 얹었습니다. 비의 높이는 280㎝인데 현재 경기지방유형문화재 제91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부도 앞에서 사방을 둘러봅니다. 멀리 강화도의 안쪽길이 훤히 보이고 통진 나루와 강화대교가 발아래 놓여 있습니다. 강화대교 아래 물살이 빠르게 흐르고 얼음덩어리가 둥둥 떠 있습니다. 북서쪽으로 몸을 돌리면 문득 천안함과 연평도가 생각납니다. 고승의 부도는 남쪽과 북쪽의 바람을 구별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지만 그 앞에 선 순례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래 유격장에서 해병들의 힘찬 구호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날씨만큼이나 맵찬 감상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벽응 스님은 문수사가 있는 김포에서 출생해 16세에 운월 스님을 은사로 장단 화장사에서 출가한 이래 평생 범패의 계승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고승입니다. 교학과 선수행을 두루 닦은 스님은 1954년부터 문수사에 머물며 절을 중건했고 이 절에서 입적했습니다.

송암 스님과 더불어 1969년 옥천범음회를 설립해 영산재 복원에 갖은 노력을 기울였고, 1973년 송암 스님과 나란히 주요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됐습니다. 하늘의 뜻인지는 몰라도 2000년 2월 1일에 송암 스님이 입적하고 3월 25일 벽응 스님이 입적했습니다. 벽응 스님의 부도와 비는 2001년 5월에 문도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풍담 스님 역시 김포 통진에서 조선 선조 25년(1592) 출생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던 그 위태로운 시절에 태어난 스님은 16살에 출가해 서산대사의 맥을 이은 편양(鞭羊 1581~1644)대사의 법맥을 이었습니다. 풍담 스님에게 법을 이은 제자가 5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조선 중기 불교계의 거목이었음은 분명합니다. 풍담 스님의 고향은 통진이지만, 살아생전 문수사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곳에 부도와 비가 세워진 것은 워낙 고매한 스님의 입적을 안타까워 한 제자들과 지역 불자들이 뜻을 모아 벌인 불사였습니다.

문수사 능선에 서 있는 풍담 스님의 부도비는 판중추부사를 지낸 조경(趙絅)이 지었는데, 아쉽게도 스님의 행적보다는 지은이의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비문 가운데 대부분이 지은이가 스님의 생애를 일방적으로 평하는 내용입니다.



풍담 대사는 산천을 유람하며 큰스님들과 법을 묻고, 선풍을 가다듬었다. 사진은 문수사 능선 위에 서 있는 풍담 대사 부도와 비.

풍담 스님의 부도와 비는 북한의 영변 보현사에도 있고 금강산 백화암에도 있다고 전합니다. 남한에서도 또 한 곳에 부도와 비가 전하는데 바로 해남 대흥사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대흥사는 서산 대사가 유훈을 남겨 자신의 의발을 보존케 함으로써 조선 중기 이후 선교 양종의 거찰로 발전한 절입니다. 대흥사는 서산 대사 이후로 13명의 대종사와 대강사가 배출된 도량입니다.

범패 계승 발전에 헌신한 벽응 스님
'화엄경' '원각경' 주석 정리 풍담 스님

그 13명의 대종사 가운데 첫 번째 대종사가 바로 풍담 스님이고, 그 마지막 13번째 대종사가 초의 스님입니다. 대흥사 부도밭에는 풍담 스님의 부도와 비가 서 있습니다. 서산 대사의 부도와 비, 초의 스님의 부도와 비 그 중간쯤에 서 있는 풍담 스님의 비는 321㎝의 높이에 김우형이 글을 짓고 글씨를 썼습니다. 김우형은 승정원 도승지와 예문관 직제학 등을 지낸 문신입니다.

비문에 '드디어 남쪽으로 이름난 산천을 유람하면서 여러 장로들의 거처에 출입하였으며, 금강산과 보개산에 그 자취를 남겼으며, 화엄 등의 경전에 주석을 달아 깊은 뜻을 밝혔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편양 스님으로부터 법을 인가 받은 뒤, 남쪽의 여러 사찰들을 돌아다니며 큰스님들을 만나 법을 묻고 답하며 활활발발한 선풍을 가다듬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화엄 등의 경전에 주석을 달았다는 대목은 〈동사열전〉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조 22년(1644)에 편양이 묘향산에서 미질(微疾)을 보이자 풍담은 문안차 스승을 찾아 배알하였다. 편양은 〈화엄경〉과 〈원각경〉에 제가(諸家)들의 주소(註疏)가 번잡한데다 미흡한 부분이 많아 산삭하고 윤문하려 했으나 미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던 참이었다. 때마침 풍담이 문안차 방문해 오자 편양은 풍담의 손을 잡고 자신이 못다한 〈화엄〉 〈원각〉의 주소 정리 작업을 부탁했다. 풍담은 〈화엄〉 〈원각〉의 교해(教海)에 깊숙이 침잠, 5~6년간 반복하여 열람한 다음 오류를 바로잡고 사이사이 종지를 드러내 밝혀 하열한 근기들까지도 경전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산 대사 이후에는 선교쌍수의 가풍이 자리 잡았습니다. 서산의 적자인 편양 스님이 화엄과 원각의 주소를 정리하려 했던 점과 그의 제자 풍담 스님이 그 과업을 찬란하게 마무리 했으니 선과 교는 수행의 두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풍은 풍담 스님의 제자인 월저(月渚 1638~1715) 스님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월저 스님은 스승인 풍담과 할아버지 뻘인 편양 스님의 유업을 받들어 〈화엄경〉의 한글풀이를 완성한 장본인입니다. 월저 스님은 선풍을 드날리면서도 '화엄종주(華嚴宗主)'라 평가 받을 정도였다고 전합니다. 대흥사 13대종사의 서열에서 세 번째가 월저 스님입니다.

풍담 스님은 금강산에서 대둔산까지 선의 바람을 일으키고 교학의 바다를 출렁이게 했습니다. 그 스승의 뜻이 그러했고 그 제자의 계승이 그러했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앞 시대의 문물과 정신을 다음 시대로 넘겨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앞 시대를 다듬어 다음 시대를 찬란하게 하는 것이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의 과업입니다. 그 과업을 게을리 하면 시대가 불운하고 성장시키면 문물과 제도 그리고 정신이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오늘의 한국불교는 무엇을 다듬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풍담 스님의 임종게가 뼈를 드러낸 능선 너머에서 메아리처럼 들려옵니다.



기이하여라, 이 영묘한 물체는
죽음에 이르러 더욱 쾌활하다니
나고 죽음에 달라지지 않네
가을 하늘 달이 밝고녀.

임연태 =(시인 · 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현지사 소개 그 열다섯번째 주제 - 미륵보살 -

미륵보살님의 실체를 밝힌다 - 사바세계에 몸받아 3번이나 불과를 증하신 대붓다!

또 하나의 경천동지할 소식- 미륵보살님의 사바세계 상주 주처이자 미래제 몸을 받아와 불과 이루실 성소 '현지궁 현지사'

미륵보살님의 진정한 실체

미륵(Maitreya)보살님을 알고 계십니까? 미륵보살님은 미륵신앙을 지닌 불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타종교인들에게까지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 분이십니다. 주로 미래불로서 이 세계의 구원자(메시아)로서 알려져 있기도 한 미륵보살님은 〈미륵삼부경〉에서 중심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륵보살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각 종교와 종파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경전상의 문구를 아전인수하여 작위적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 이제 붓다회상 현지사에서 당연히 현지사만이 알 수 있는 미륵보살님의 실체를 밝히고자 합니다 .

사바세계에 이미 3번이나 불과를 증하신 대붓다

한 분의 붓다가 법계에 나시기 위해서는 수억겁의 수행을 마친 대보살께서 사바세계에 몸을 받아와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자신의 수행을 마무리지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불과를 이루어 삼신을 갖춘 한분의 붓다는 일대사인연으로 원력수생하여 사바세계에 다시 몸을 나투어, 보살행만을 하시기도 하고 혹은 다시 자신의 화신으로 붓다를 이루어 중생을 구제하시기도 합니다. 미륵보살님은 이미 셀 수 없는 시간 전에 불과를 증하시고 다시 사바세계에서 몸을 받아 세 번씩이나 불과를 증하신 분이십니다. 이때의 불명이 각각 '보시등광불', '혜위등왕불', '미륵선광불'이며 '미륵'은 보살명입니다

도솔천 내원궁 교주

미륵보살님은 붓다이시기에 당신의 정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곳이 바로 도솔천 내원궁이며, 내원궁은 현상계 육도하늘 중 욕계 4번째 하늘인 도솔천 깊숙이에 있는 정토입니다. 그렇기에 미륵보살님께서 다시 사바세계에 서 불과를 이루신다 하더라도 사바세계 교주는 석가모니부처님이지 미륵보살님은 아닙니다.

옥황상제와 미륵보살님을 같은 분으로 보는 곳이 있습니다. 당연히 서로 다른 별개의 인격이시며 옥황상제는 붓다도 아닙니다. 천상계의 내원에 계시는 옥황상제의 위치는 외도의 수장이며, 하늘신의 왕으로서 모자람이 없지만 삼신을 갖추지 못한 이상 붓다는 아닙니다.

법상속 대가섭존자와 법왕자 아난존자의 16번째 스승

현지사에는 이번 생에 불과를 증하신 두분의 큰스님께서 계십니다. 한분은 2600년 전 부처님 당시 가섭존자로서 최초불 석가모니부처님의 법상속자이시며 다른 한분은 다문제일 아난존자로 문수보살님의 법왕자이십니다. 그렇기에 현지사에는 두분의 마지막 수행을 위한 스승으로서 우주 온 법계의 법왕이신 석가모니부처님의 보신불을 위시하여 차례로 불과를 증하신 오여래부처님께서 상주하시며 그 좌우보처를 비롯하여 산왕부처님과 치성광여래부처님 등 기라성 같은 불보살님들께서 상주하십니다. 미륵보살님께서는 이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자 석가모니부처님의 허락을 얻어 경인년 음력 3월 25일 두분 큰스님의 16번째 사부님으로 오셨습니다.

'현지궁 현지사의 승려가 되어 불과를 이루신다.

경전상의 내용대로 미륵부처님은 불법을 펼치시고자 또 다시 사바세계에 몸을 받아 오실 것입니다. 다만 경전상의 출세 시기는 상징으로 보아야 하며 부처님 열반 후 3천년 경에 다시 이 땅에 몸을 받아오셔서 이곳 현지궁 현지사의 승려로서 불과를 이루어 사바세계에 부처님 교법을 펼치실 것입니다. 이곳 현지사의 많은 착한 신도분들은 미륵부처님 회상을 만나고자 하는 행원에 따라 그 언젠가 미륵부처님의 출세에 자리를 함께 할 것입니다.

<미타성전 현지사 대전분원>

붓다의 점안으로 서방정토 극락세계와 링크된
사바세계 유일의 진정한 미타성전!!
서방정토 극락세계 교주 아미타부처님께서
항상 머무시는 사바세계의 상주처!
'아미타불 염불행자'들을 섭수하시는 성지 중의 성지!



품격있는 조경을 자랑하는 현지궁 현지사



현지궁 현지사 춘천본사에 오시면 경내 전체에 드리워진 푸른 소나무숲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0년 생에 이르는 고송을 포함 약 1000여 그루의 소나무 숲이 화려하고 웅장한 전각들과 어우러져 붓다님들께서 머무시는 부처님회상의 사찰로서 기품과 면모를 자랑합니다.

현지사 대법회 - 매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 http://www.hyonjisa.com 영산불교 현지사 춘천 본사 033)243-1787,1795 / 대전 분원 042)525-5325, 5345 / 부산분원 051)554-5150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50〉

부처가 되겠다는 헛된 꿈 꾸지 말라

학승이 말했다.
"신령한 묘(苗)가 뿌리가 없을 때[無根]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 어디에서 왔는가?"
학승이 말했다.
"태원(太原)에서 왔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매우 훌륭한 무근(無根)이군."

問 靈苗無根時如何
師云 你從什麼處來
云 太原來 大好無根

여기서 뿌리는 근원을 말하고 묘(苗)는 어린 싹이니, 근원에서 자라난 현상을 말한다. 만일 자성을 뿌리라고 말한다면 묘는 마음의 씀씀이[用]이다. 만일 묘가 우주 삼라만상이라면 뿌리는 우주 삼라만상이 나온 곳을 말한다.

모든 것은 근원이 있다. 근원을 발판하여 모든 현상이 벌어진다. 그런데 우주의 근원은 무근(無根)이다. 무근이 근원이다. 무근에서 삼라만상이 세워졌다. 공즉시색(空卽是色)이다. 이것이 진리이다. 즉, 공이 만물의 근원인 것이다. 그러하니 텅 빈 것을 토대로 위에서 만들어진 만물이 어찌 신령하지 않겠는가.

선사가 학승에게 온 곳을 묻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온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다. 부모에게 태어나기 이전의 장소를 묻는 것이다. 사람의 근원을 묻는 것이다. 그러나 초학승은 그것을 모르는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학승은 자기가 온 지명을 댔다. 바로 '태원' 이라는 지역 명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학승이 자기가 온 근원은 모르면서도 태원(太原)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매우 신비로운 일이 아닌가? 그야말로 무근의 신령한 작용이다. 조주 선사는 바로 이 점을 학승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무근? 그것 당연한 것이고, 그것 봐, 매우 훌륭하잖아"라는 뜻을 학승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제가 부처가 되려고 할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대단히 고생하게 될 거야."
학승이 말했다.
"고생하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렇다면 부처가 된 거지."

問 學人擬作佛時如何
師云 大煞費力生
不費力時如何
師云 如麼卽作佛去也

하하, 선문에 들어와서 부처가 되려고 하다니,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도 부처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을 뿐이다.

그런데 이 보다 더 애석한 것은 금생에 뼈를 깎는 수행을 하다가 부처가 되지 못한다면 다음 생을 기약하겠다고 다음 생까지 헛된 고생을 맹세하는 사람들이다. 이 모두가 참된 스승을 찾지 못해서 생기는 병통이다. 차라리 누더기를 기우면서 세월을 보낼망정 부처가 되겠다는 헛된 꿈은 꾸지 말아야 한다.

학승이 물었다.
"저는 혼돈에 빠져서 가라앉았다가 떠올랐다가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부처 되려 애 쓰는 사람은
모래로 밥 지으려는 것
다음생 기약한다는 맹세는
참된 스승 못만난 병통

조주 스님은 그저 아무 말 없이 앉아있었다.
학승이 말했다.
"제가 화상께 묻고 있지 않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 도대체 어디에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하는 것인가?"

問 學人昏鈍在一浮沉 如何得出
師只據坐
云 某甲實問和尚
師云 你甚處作一浮一沉

혹은 미움이 일어나 분노가 일어나다가 혹은 사랑이 일어나 기뻐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수행자들의 고민이다.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도 경계가 닥쳐오면 분별이 생기고 중생의 감정에 휘말린다.

나의 본성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 나의 본성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 나의 본성은 그 무엇에도 유혹되지 않는다. 나의 본성은 항상 고요하다. 나는 항상 편안하다. 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으나 여전히 눈앞의 경계에 부침하고 있는 것은 한 마디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일단 한번 깨달으면 늘 깨어있게 되지만 깨닫지 못하면 습성에 이끌리기 쉽다.

선사의 대담은 학승을 일깨우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 조금의 틈도 놓치지 않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자네, 지금 이 순간에도 답답해서 부침하고 있잖아. 매순간을 놓치지 말란 말이야"하고 학승이 부침에서 벗어나게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부침은 습관이다. 깨달아서 한 번에 습성을 제거하지 못했다면 매순간 내가 쓸데없는 것에 헐떡거리고 있지 않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게 오랜 시간 점검하다 보면 어느 날 부처와 똑같은 마음이 돼있을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대천제(大闡提)와 같은 사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내 그대에게 대답하겠다. 믿겠는가?"
학승이 말했다.
"화상께서 힘주어 말씀하시는데 어찌 믿지 않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한 사람의 천제인(闡提人)도 찾기 힘들어."

問 如何是大闡提底人
師云 老僧答你 還信否
云 和尚重言那敢不信
師云 覓箇闡提 難得

천제(闡提)는 성불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부처의 성품을 타고 났으므로 잠재적 부처이다. 그런데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생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부처를 회복하는 것이다.

잠에서 깨어나려면 가장 먼저 자신이 원래 부처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천제(闡提)는 불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 자신이 부처임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유일하게 부처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주 스님은 천제는 없다고 역설했다. 비록 천제가 불신한다 하여도 천제의 성품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천제가 부처를 불신한다해도 여전히 천제는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천제는 없다는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선법, 활발한 교학 토대로 수용



선어록 해제 30
한국선과 선어록 1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고구려에 불교가 공인된 것은 4세기 후반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백제 및 신라에 이르기까지 전래되어 다양한 교리의 연구 및 학파가 형성돼 갔다.

선법의 전래는 불교의 전래보다 350여 년 후인 8세기 중반에 법랑을 통해 전래됐다. 다시 본격적으로 선법이 수용되고 이해되기까지는 80여 년이 흘렀다.

선법의 초전 시대인 통일신라에는 이미 활발한 교학적 토대가 구축돼 있었다. 새롭게 전승된 선법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신라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선법이 지닌 특유한 사상 및 방식의 우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곧 무염의 무설토론(無舌土論)·범일의 진귀조사설(眞歸祖師說) 기타 조사선법의 계승에 근거해 선교차별(禪敎差別)을 앞세워 선법의 우위를 강조한 내용들이었다.

이 같은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미 교학을 공부한 이후에 보다 새로운 선법을 추구했다는 내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교법보다는 선법이 뛰어나다는 내용을 전개하기도 했다. 선법에서도 실천적인 조사선(祖師禪)이 교학적인 여래선(如來禪)보다 뛰어나다는 것도 강조했다.

이 같은 초기 선법의 전래는 당(唐)에서 소위 선종오가(禪宗五家)가 형성되기 직전인 9세기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입당 유학승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래돼 중국에서 선종오가가 형성된 직후에 해당하는 10세기 후반에는 신라에도 선종오가의 다양한 선법으로 전래됐다.

8세기 중반, 법랑 통해 선법 최초 전래
한국선 선어록 선구자는 요오순지

특히 오가 가운데는 조동종(曹洞宗) 선법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전래됐고, 위앙종(潙仰宗)의 선법은 순지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로써 고려 초기에는 운문종(雲門宗)과 임제종(臨濟宗)과 법안종(法眼宗) 등 오가의 선풍이 모두 고려에 전승됐다.

선풍이 꾸준하게 전개되어 가면서 그 사상적인 면모를 직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선어록 등장도 더불어 출현했다. 특히 본격적인 어록의 형태는 아닐지라도 〈조당집〉에 수록돼 있는 요오순지(了悟順之)의 법어는 〈순지어록(順之語錄)〉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선어록은 상당히 늦은 시기인 보조지눌(普照知訥)에 와서야 가능했지만 그 선구는 이미 순지로부터 찾아볼 수가 있다.

순지의 법어 곧 어록을 통해 당(唐)으로부터 전래된 선법뿐만 아니라 해동선법에서 계승되고 발전된 원상선법과 화엄선법의 면모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다.

고려시대 중기에는 소위 거사선(居士禪)으로 대표되는 선법이 등장했다. 선법은 교양으로서 수양법으로 수용돼 종파의식은 미미했다. 이는 종파의식이 우월했던 중국선과 비교 했을 때 매우 빈약했던 어록의 출현 빈도를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다.

무신정권 이후부터 선법이 크게 발전하면서 고려시대를 통해 화엄교학과 그 주도권 다툼의 모습으로까지 전개돼 갔다.

또한 고려 후기에는 기존 오가선법의 바탕과 더불어 원(元)으로부터 새롭게 수입된 임제선법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법맥에 대한 자각이 크게 강조됐다. 곧 고려후기부터 선과 관련된 문헌이 본격적으로 등장해 어록을 비롯한 전등사서 및 개인문집의 성격을 지닌 가송 등이 등장했다.

고려 후기부터는 사상적인 전개보다는 오히려 법맥의 전승에 따라 좌우되는 모습으로 전개돼 갔다. 이 점은 조선시대 배불정책의 상황에서 법통의 계승이라는 긍정적인 역할로도 작용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 초종월격(超宗越格)의 종지를 강조하는 개별적인 선법의 특수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대로 기존의 전통에 매몰돼 오히려 생기발랄했던 선법의 본래정신이 심히 위축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조선초기에는 어록에 해당하는 선적이 매우 드물었다.

태고보우(太古普愚)와 나옹혜근(懶翁慧勤)의 법맥으로부터 전개된 조선시대의 선법은 부휴선수(浮休善修)와 청허휴정(淸虛休靜)을 거치면서 더욱 더 임제선법의 틀에 갇혀서 이전의 선종오가 내지 오가를 뛰어넘는 선법을 전개하지 못했다.

조선시대 중기에 이르러서는 환성지안(喚醒志安)의 〈선문오종강요(禪門五宗綱要)〉에서 볼 수 있듯이 오가에 대해 그 중심이 도그마적인 사상의 인식으로 흘러갔다.

이로써 보편적인 선법의 창출 내지 교의의 전승보다는 자파의 교의를 내세운 호교적인 변론이나 임간에서 누리는 한도인의 안빈낙도의 유희를 내세운 내용으로 채워진 개인적인 문집의 성격이 강한 내용들이 다수 출현됐다.

조선시대 후기에 백파긍선(白坡亘璇)으로부터 촉발된 임제선법의 교의에 근거해 나타난 선론의 전개가 그 일례이다. 때문에 이것은 조선시대 선법의 역사가 지닌 한계이기도 하면서 종파나 문중의 전통적인 교의의 천착보다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개별적인 선법의 특징을 밝혀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2011년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사업 공모

(재)선학원 부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에서는 한국불교학의 발전과 불교학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연구자들의 독창적이고 충실한 연구 성과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제 5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공모

1) 공모주제
- 불교학 (선학 · 교학 · 불교사)
- 응용불교학 (불교사회복지 · 불교경제학 · 불교심리학 · 불교문학 · 불교예술 등)
- 한국근현대불교와 선학원 관련된 주제
- 기타 불교와 관련된 자유주제

2) 지원자격
불교학 분야 박사과정 수료이상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은 제외)

3) 선정규모 및 특전
우수상 (1명) 500만원 · 학술상 (3명) 1인당 300만원
등재후보지 『선문화연구』에 게재

4) 제출서류
(1) 연구계획서 : A4 15매 내외
(연구목적 · 연구내용 및 방법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참고문헌 포함, 연구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2) 최근 5년간 연구 실적목록 1부
(3) 연구 실적목록상에 기입된 실적물 각 1부
(4) 이력서 (주소 · 전화번호 · e-mail은 반드시 기입할 것)

5) 제출기한 및 발표
(1) 제출기한 : **2011년 1월 22일 ~ 2월 15일 오후 5시까지**
(2) 선정 및 통보 : 2011년 2월 25일 예정
(선정자에 한해서 개별통보)
(3) 학술상시상식 및 학술회의 : 2011년 5월 (예정)
(4) 발표논문제출과 논문집 간행 : 2011년 6월

6) 주의사항
(1) 선정자는 2011년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전반기 학술회의에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2) 발표논문은 학계에 이미 발표된 적이 없는 참신한 논문이어야 한다. (연구내용의 표절 혹은 중복의 경우 선정 이후에도 수상 취소될 수 있음).
(3) 선정논문은 본 연구원의 학술회의 발표 이후 논문집 『선문화연구』에 게재해야 한다.

2. 월례발표회

1) 발표주제
(1) 불교학과 불교사 및 응용불교학
(2) 한국불교학과 불교사 및 응용불교학
(3) 한국근현대불교와 선학원
(4) 한국근현대불교사상 및 문화
(불교문학 · 불교음악 · 불교미술 등)

2) 발표문 분량 : A4 10매 내외
3) 발표자격 : 박사과정 이상자
4) 발표신청기간 : 연중 수시
5) 특 전
(1) 소정의 발표비 지급
(2) 심사 후 본 연구원 논문집 『선문화연구』에 논문 게재
(3) 등재후보지 『선문화연구』에 논문 게재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문의 및 서류 제출처
110 - 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82번지
(재)선학원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연락처 02)734-9653, 9657 / 팩스 02)734-9622
홈페이지 : http://www.seonhakwon.or.kr/seonli
연구원 메일 : seonhakwon@paran.com

한 국 불 교 선 리 연 구 원 장

공 고

대한불교원효종 특별대리인 종정 청은 스님

대한불교원효종 종도 사부대중여러분
대한불교원효종은 2003년 3월 10일 이법홍 종정께서 원적하시면서 일부 몰지각한 자격없는 해종자들이 법적으로 시비를 일으켜서 종단 창종 재산 망월사를 빼돌려 혼란이 되었으니 심히도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 문서증거판결문 2010 나 4388 대구고등법원에 의해 ※ 특별대리인 우종산 스님으로 승소하였으며 대법에도 2010.6.10 승소 하였으며 위와 같이 처분 권한이 없는자들에 의해 이루어진것 무효라는 판결이 2010.10.29일 대구고법에서 최종판결이 내려졌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에서 인정된 대한불교원효종 특별대리인 우종산 스님 승인이 없는 대한불교원효종 직함이나 명칭을 도용하거나 종단재산을 횡령편취하는 행위 종단에 해종행위를 하는 경우 엄중히 문책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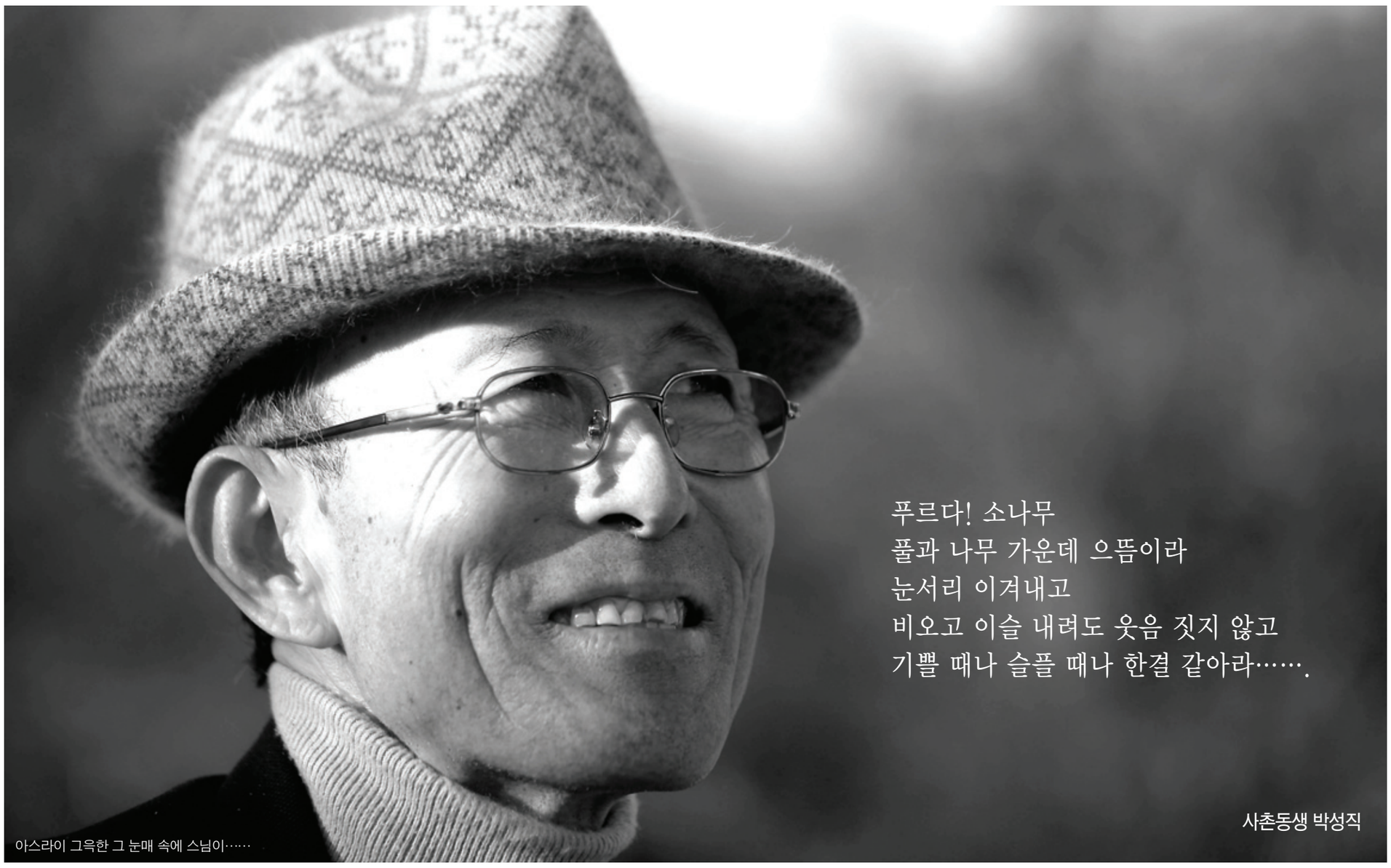
종단분규를 조장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해종행위자들의 감언에 현혹되지 마시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으니 종도여려분께서는 본연의 자리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불교원효종 특별대리인 우종산 종정 청은 스님
대한불교원효종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사무소
충남 금산군 금산읍 계진리 405번지 관음사 전화 041)754-0121 팩스 041)754-7088

대한불교원효종 신규등록, 재등록을 하고자 하시는 사암은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혜월 011-9783-9417

좋은 일 생각하고 말하면 그 날은 좋은 날



아스라이 그윽한 그 눈매 속에 스님이……

법정 스님을 떠올리면 늘 사명 스님 청송사青松辭가 절로 입 안에 감돌았는데, 경인년庚寅年이 저무는 12월, 법정 스님 사촌동생 수광壽光 박성직(71)선생을 만나면서 청송사가 떠올랐다. 스님이 겨울 산 위에 우뚝 선 소나무라면 수광 선생은 달빛을 거르는 소나무처럼 은근하다.

"스님이 살아 계실 때는 웬만한 분들은 내가 사촌간 인줄도 몰랐을 거예요. 길상사 법회 때 오가는 길목에서 어쩌다 마주치게 되면 뵙고, 말씀도 길에 서서 몇 마디 나누곤 했으니까요." 법정 스님을 가까이 했던 이들은 스님이 길상사 나들이하는 날이면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다가 스님이 오시면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곤 했지만, 수광 선생은 멀찌막이 서서 조용히 법문만 듣고 갔다. "잘 아시잖아요. 인척들한테는 엄하고 소원하셨어요. 어떨 때는 좀 섭섭하기도 하지마는, 어르신 처지를 알기 때문에. 애써 거리를 뒀어요."

늘 그렇게 먼발치를 지켰던 수광 선생은 스물일곱 살에 결혼을 하고부터 쭉 법정 스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지금도 제사를 모시고 있죠. 마침 12월 25일 날이 제사예요. 어느새 24주기네요. 스님이 네 살 때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태어나기도 전이죠. 할머니는 그런 손주가 몹시 안쓰러워서 각별히 사랑하셨지요. 스님하고 저는 여덟 살 차이인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어요. 한 집에서. 한 형제나 진배없었죠. 큰어머니는 한 동네에서 집 한 채 얻어가지고 따로 사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려서 두세 살 적부터 큰어머니 댁에 가서 자고 놀고 그랬어요." 할머니를 형에게 빼앗긴 보상 심리에서였을까? 수광 선생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보다 큰어머니를 유난히 더 따랐다.

"우리 큰어머니가 진도 분이세요. 육자배기를 아주 걸쭉하게 잘하셨어요. 큰어머니가 마루턱에 걸터앉아 육자배기를 한가락 구성지게 뽑아 넘기시면, 동네 어른들이 넋을 놓고 앉아서 듣곤 했어요. 그러면 저는 노래를 못 부르게 쫓아다니면서 마구 떼를 썼어요. 나랑 놀아달라고."

모시고 살았던 이십 여 년 세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는데 법정 스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을까? "아주 쾌활하시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흡인력이 있으세요. 여담인데요. 시골에서는 농사지으려면 사람들을 사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런데 큰어머니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와요. 뭐랄까? 뒤로 보리쌀도 한 됫박 더 준다든지…, 온화하고 붙임성이 좋으세요. 친구들을 좋아하시고 시골 분답지 않게 유머도 넘치시고 인덕이 있으셨어요. 대인 관계는 스님이 어머니를 빼어 닮지 않았나 싶어요."

수십여 년 모시고 살다보면 이모저모 어려움이 적지 않았을 텐데? "큰어머니 성격이 워낙 온화하셔서 모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남하고 다투는 일이 없으세요. 저희 어머니는 역정을 내기도 하고 남 얘기도 가끔 하고 그러셨는데 큰어머니는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세요. 그런 성격이시니 아무래도 우리네보다 큰어머니가 좀 불편하셨을 테지요. 그래서 그런지 가슴앓이. 큰어머니는 스님 출가 전부터 속앓이를 하셨어요. 스님 네 살 때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사셨잖아요. 더구나 해방 전후 모든 게 다 궁핍하고 모자라서 힘들 때였으니…."

– 진 빚이 한량이 없구나

수광 선생이 출가한 스님을 처음 찾아뵈었을 때가 해인사 시절이었다. "한 번 다녀가라고 그러셨어요. 휴가 갔다가 귀대하면서 들렸습니다. 해인사에서 하룻저녁 자고 왔어요. 그때는 스님도 출가하신 지 얼마 되지 않고 나도 군대 가있기 때문에 잘 보지 못했어요. 스님은 책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스님 책을 그때까지도 보관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책을 우편으로 부쳐드리고 그랬지요."

스님 모습을 보면서 출가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을까?

"그런 생각은 감히 하지도 못했어요. 나까지 출가해 버리면… 하하. 출가하신 뒤 편지에도 쓰셨습니다. 네가 기둥이니까 우리 집을 잘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우리 클 때만해도 장남이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다 그랬어요. 스님이 영특했기 때문에 어른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무표정한 직업인이 되는 것이다. 해서 나는 초연한 修道僧(수도승)이기보다는, 自然人(자연인)으로서 진리를 모색하는 哲學徒(철학도)가 되고 싶을 뿐이다. 불교 가운데서도 종교측면은 나를 질식케 하지만, 哲學(철학) 영역만은 나를 언제까지 젊게 하고 있지 –.

물론 社會人(사회인)에겐 살아가는데 직업이 필요할 수밖에. 하지만 인간 본래 良心(양심)이라든가 의지를 잃어버리고까지 거기에 얽매일 건 없을 줄 안다. 어쩌면 이 말은 빵의 존엄성을 모르는 철부지 말일지도 모른다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린 生存(생존)만으론 살고 있는 보람이 없어. 줄기찬 생활이, 창조적인 생활이 있어야 해……. 아 듀

1960. 10. 21

山僧 法頂(산승 법정) 합장

성직에게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電報(전보)를 오늘 오후에야 받아보았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데, 요즘 내 건강과 주위 여러 가지 형편이 나를 不自由(부자유)하게 만들고 있다. 이 세상에서 내게 가장 은혜로운 분은 작은 아버지시다. 나를 教育(교육)시켜 눈을 띄워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할머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은 法堂(법당)에 들어가서 많이 울었다. 이일저일 생각하니 내가 진 빚이 한량이 없구나. 不孝(불효)하기 그지없고 –. ……出家 外人(출가 외인)이라 드니, 가는 길이 서로 달라 어쩌지 못함이 안타깝고 죄스러울 뿐이다. 어머님을 잘 위로해드려라.

나는 오늘부터 아버지 명복을 佛前(불전)에 빌기로 作心(작심)했다. 四十九日(사십구일) 동안 佛教儀式(불교의식)에 따라 기도를 드리는 일이다. 가신 분 은혜에 報答(보답)하는 내 도리요 정성인 것이다……. 70년 11월 27일 밤

法頂 合掌(법정 합장)

불교는 언제부터?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도 좀 다녔어요. 스님 편지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너는 교회를 좋아했지 않았나?' 제대로 불교를 한 건 큰어머니 돌아가실 무렵이니까 25~26년 정도? 우리 집사람은 해남 대흥사 바로 아래서 살아서 옛날부터 절에 다녔어요. 우리출판사 아십니까? 발행인이 비구니 스님인데 집 사람과 사촌간이에요. 저하고 법정 스님도 사촌간이니 우리 내외가 다 불연佛緣이 깊네요."

법정 스님도 학창시절 절에 가셨을 때 마치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불연이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 듯싶다. "86년도 여름에 스님이 초청해 주셔서 불일암가서 이틀 밤을 묵으면서 정식으로 계도 받았어요. 제 불명이 수광壽光입니다. 목숨 壽자 빛 光자. 우리 집사람은 공덕림功德林. 그전까지는 가짜 불자였어요." '공덕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 • 건선 • 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을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여래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4817-0550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1통, 갑근세 증명1통, 전세 계약서 사본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 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스님 만 해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쟈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림' 공덕이 숲을 이뤘다는 뜻이니 시집와서 내내 스님 어머니를 모시고 산 보살심을 기리는, 뜻이 담긴 법명이다.

"계첩도 붓글씨로 손수 쓰셔가지고 저희 내외에게 따로따로 하나씩 낙관까지 찍어 주셨어요. 인연이죠. 인연. 스님이 돌아가신 건 섭섭하지만, 우리 집안에 다녀가신 일은 너무나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수광 선생 내외와 자녀들은 모두 불자지만, 형제들은 제각각이다. 여동생은 천주교. 남동생은 기독교. 막내는 불교. 간디 말씀처럼 히말라야 정상은 하나지만 정상을 오르는 길은 저마다 다르다.

– 굶어죽어라!

수광 선생은 딱 한 번 법정 스님에게 손을 벌린 적이 있다. 대전에서 윤활유 대리점을 인수하고 난 뒤 운영자금이 모자라 쩔쩔매다가, 법정 스님은 책도 쓰고 신문이나 잡지에 글도 많이 쓰시니 도와줄 힘이 있지 않겠느냐는 둘레 사람들 말에 용기를 내서 어렵사리 스님께 편지를 썼다.

"아마 72년쯤인가? 그 무렵 막다른 골목이다 싶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라며 도움을 청했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참 부질없는 말씀을 드렸구나 싶었어요. 그때 스님이 보내 주신 편지가 있어요. 들어줬으면 좋겠지만 스님이 무슨 돈이 있겠느냐.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하다고…."

"나중에 스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레오 버스카글리아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말리는데도 고집을 세우고 미국서 파리로 건너갔어요. 그곳서 끼니를 굶다 못해 어머니에게 전보를 치죠. 〈굶어 죽어가요. 아들〉. 돌아온 답이 〈굶어라. 엄마〉이었어요. 냉정한 어머니말씀에 정신 차렸다는 이야기인데. 도둑놈 제 발 저리다는 격으로 '아, 이 말씀 내게 하는 말씀이구나.' 싶었지요. 곁을 조금 주면 또 기대고 싶었을 거예요. 그 도움 없이도 이제껏 잘 살아왔잖아요?" 그랬기에 다른 분들처럼 스님을 스승으로 기억할 수 있어서 참 좋다는 수광 선생. 그 스님에 그 동생이다 싶다. 그래도 서운하지 않았을까? "서운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스님과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출가외인이라고 여기고, 모든 분들 스승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스님께 누를 끼치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고 말하면 그 날은 좋은 날이다.
불쾌한 일을 생각하고 말하면 그 날은 나쁜 날이다.
좋은 날과 나쁜 날은 오로지 내 생각과 말에 달린 것."

수광 선생이 집에 걸어놓고 늘 되새기는 법정 스님 말씀이다. 그렇게 늘 좋은 일만 떠올리며 살려고 애쓴다.

아이들과 함께 법정 스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했던 수광 선생. 신림동 집은 제법 컸다. 24년 전 큰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다녀간 사람들 사이에 "법정 스님이 해준 집이다."는 얘기가 돌았다.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는데 '야, 유명세를 이렇게 치루는구나' 싶었어요. 하하.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어요. 버선목이라고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그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다.' 그러고 말았죠."



스님이 겨울 산 위에 우뚝 선 소나무라면 수광 선생은 달빛을 거르는 소나무처럼 은근하다.

– 스님 덕이다

법정 스님이 고맙다는 인사는 하셨을까? "온 식구를 불러다가 불일암에서 재워주시고 계를 주셨으니 그게 표현이고 큰 인사지. 이틀 밤이나 재워주셨잖아요. 한 분이 출가해서 도를 깨치면 몇 대 친인척까지 그 빛이 미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형제들 모두 우애 있게 잘 살고 있어요. 저희 집 애들도 큰 걱정 끼치지 않고 잘 컸고. 제사 때 모이면 입을 모아 그럽니다. '밥술이라도 걱정 없이 먹고 사는 게 다 스님 덕이다.' 고."

"스님이 입적하시기 전에 병원에 계실 때 두어 번 갔어요. 그때는 말씀은 잘못하셨어요. 그저 스님 손을 잡고 '성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면 손을 꼭 쥐어주셨어요. '공덕림도 같이 왔습니다.' 하고 집사람이 손을 잡으니까, 손에 힘을 꼬옥 주시고는 흔드셨어요. 집사람은 그때 스님 손을 처음 잡았죠."

부처님 가르침을 한 마디로 이른다면? "뭐 우리 같은 문외한들이 불교에 대해서… 허허. 대승견지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 같은 소인들이야 뭐 압니까? 경전에 쓰인 대로, 또 스님이 풀이해서 책에 많이 써 주신대로 '착하게' 말이지. 그렇게 사는 게 불자佛者된 도리가 아닐까요?" 수광 선생이 법정 스님 말씀 가운데 가장 가슴 깊이 뿌리내린 이야기는 모기이야기다. "시어머니 모기가 집을 나서면서 저녁밥을 지어놓을까 보냐고 묻는 며느리한테 '모진 놈 만나면 맞아죽을 거고. 좋은 사람 만나면 얻어먹을 거니까.' 이래도 저래도 저녁밥 차리지 말라는 얘기인데…. 덕은 베풀지 못할망정 산목숨 빼앗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랑

석길암의 한국불교 승려열전



민중의 삶과 신앙에서 불교의 새 길을 찾다

상월원각(上月圓覺, 1911~1974)①

지금으로부터 800여 년 전인 1198년, 고려의 수도인 개경의 고봉사(高峯寺)에서 열린 승려대회에서 두 사람이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 고려 말 결사운동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원묘요세(圓妙了世, 1163~1245)와 보조지눌(普照知訥, 1158~1210)이 그 두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죽이 잘 맞았다. 피폐해진 속세와 그러한 속세를 이끌기는커녕 스스로조차 주체하지 못하는 불교계의 암울한 현실. 무언가 돌파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두 승려의 뜻은 일치했던 것 같다. 승려대회가 끝난 이후 곧장 영통산(靈洞山) 장연사(長淵寺)로 옮겨 후학을 지도하던 요세에게 지눌은 정혜결사에 동참하기를 권했고, 요세는 지체 없이 공산 회불갑의 지눌에게 달려갔다.

동행은 그리 길지 못했다. 불과 2년이 되지 못했을 때, 송광산 길상사로 이동하는 지눌과 헤어져 요세는 만덕사로 옮겨서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지눌의 수선사(修禪社)와 다른 길, 백련사(白蓮社)의 출발이었다. 지눌의 정혜결사에 동참하는 동안에도 요세는 참회와 예경의식을 거르지 않았다. 함께 수행했던 선자(禪者)들이 서참회(徐懺悔)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하니, 선 수행에 전념하는 이들과 참회에 전념하는 '서참회(徐懺悔)' 요세는 어지간히 달랐던 모양이다.

요세가 왜 지눌의 정혜결사에 동참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이 사실로부터 수행 곧 신행의 방법이 달랐기 때문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신행의 방법이 달랐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대상이 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초 지눌이나 요세나 중생을 구제한다는 불교의 본래면목에 대한 의견이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점에서 그들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눌의 시대에 선은 조사선의 시대와 달리 이미 민중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지눌이나 요세나 불교를 민중의 품에 안기고 싶어했지만, 민중을 구제하는 자비의 종교로 받아들였지만, 요세에게 있어서 선은 민중의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으로 느껴졌던 모양이다. 요세는 수선(修禪)의 길을 포기하고, 참회와 예경과 칭명염불의 길을 택했다. 무지렁이도 알아듣고 행할 수 있는 수행법을 선택한 결과였다.



천태종 종조 상월원각 스님

700여 년 뒤, 국권상실기의 초입에 강원도 삼척의 두메산골에서 태어나 민중 속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갔던 이도 있었다. 속명은 준동(準東), 밀양 박씨 집안의 후손이었다. 5세에 서당에서 글을 읽기 시작해 13세에 사서삼경을 통달했다니 수재였던 모양이다. 하지만 14세에 삼척의 유지공장에 취업해 세상물정을 접한 소년의 인생은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행로를 향하기 시작했다. 1920년대 초중반이니, 양곡은 일제에 수탈을 당하고 민중들은 끼니를 잇기 힘들어 도시로 그리고 이역 만주로 연해주로 떠나던 때이다. 빈부의 격차가 아니라 조선인이라면 곤궁의 극치를 이루던 시절이고, 사회주의가 퍼져나가면서 계급문제가 등장하던 때이다. 한학을 공부하던 소년에게 세상은 그대로 수긍하기 힘들 정도로 왜곡돼 있었다.

동네 뒤 삼태산에 들어가 도학을 닦았다. 16세가 되던 해 고향을 작별하고 전국 사찰을 두루 다니며 불교에 눈을 떴다. 이때 충북 지역에서 강백으로 이름이 높았던 김순관(金順寬) 화상에게 출가했다. 법명은 상월(上月), 법호는 원각(圓覺), 후에 대한불교천태종의 중창조가 된 스님이 바로 이때의 소년이다. 1930년 서른이 되었을 때 중국으로 건너갔다. 이때부터 6년간을 중국의 불교성지들을 순례했는데, 관음보살 성지인 보타도를 비롯하여 천태산을 비롯한 4대 성지를 골고루 순례했다고 한다.

혹자는 그 발걸음에 오늘날의 성지순례를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시대의 중국 땅은 그것이 불교의 성지라고 할지라도 아름답게 보이는 시절은 아니었다. 1931년에 만주사변이 발발했으니, 스님이 중국에 건너간 직후부터 중국과 일본은 근 15년에 이르는 긴 전쟁에 돌입한다. 전쟁은 실은 군인이 아니라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다. 실은 성지순례라기보다는 오히려 민중들이 우후죽순 쓰러져가는 현장을 외면도 못하고 그저 걸었을 것이라 추정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민중의 삶이 파괴되는 현장, 불보살의 성지가 서로 교차하는 땅. 그 땅에는 외면할 수 없는 민중의 고통과 간절히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불보살의 기억이 교차하고 있었으리라.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센터 교수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 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2011년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시작 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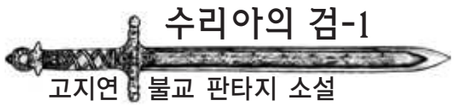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묵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공급가격 별도상담)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칼키는 말을 멈추고 무니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다



수리아의 검-1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암흑속의 두 소년②

한편, 카일라스산은 언제나처럼 고요했다. 루드라는 '우주수'라고도 불리는 아그니 나무 아래에 앉아 명상에 잠겨 있었다. 엷은 광휘가 감도는 그의 단정한 얼굴은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그런데 그의 목 언저리에서 무엇인가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목도리처럼 그 존재감을 감추고 있던 뱀이 눈을 뜬 것이다. 조금씩 루드라의 가지런한 은색 속눈썹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바람도 마음대로 불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분명 어떤 강력한 힘이 그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누군가 그의 명상을 깨우면서까지 할 말이 있는 모양이었다.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일이었다. 속눈썹의 움직임이 멈추고 얼마간의 시간이 다시 고요히 흘렀다. 이윽고 루드라가 두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는 키가 큰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여기까지 올라오다니. 그 노인네가 사라졌을 때만큼 심각한 일이라도 생긴겐가?"

부드럽지만 엄격한 목소리는 책망을 담고 있었다. 루드라의 미간에 자리한 세 번째 눈이 자신 앞의 상대를 불로 태우듯 응시했다.

"아닙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얼굴을 드니 키가 더욱 커 보였다. 그리고 앙상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살이 없는 얼굴에 비해 몸은 단단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작은 눈동자에서 약간의 머뭇거림이 보였다.

뜨거운 세 번째 눈이 감기자 루드라의 서늘한 눈빛이 눈앞의 남자를 향했다.

"눈의 산에 인간이 침입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저도 카일라스에 돌아와서야 보고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사죄하였으나 루드라의 눈빛은 다음 말을 재촉할 뿐이었다.

"인간, 그것도 어린 아이라고 합니다. 산 초입에 쓰러져있던 것을 발견했는데, 아무래도 여기까지 혼자 올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없애지도, 그렇다고 인간계로 돌려보내지도 못해 잡아뒀다고 합니다. 크리슈나님이 거신 장난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크리슈나는 지금 수면기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그것도 소년을 발견하여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처는 확실히 신속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처벌은 이미 내렸습니다."

남자는 말을 마친 후, 자신 역시 루드라의 처분을 기다린다는 듯 다시 고개를 숙였다.

"흥미롭군. 그 성에 인간이 들어갔던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두 명이나 잡혀 와 있다니 말이야. 게다가 어린 인간들이란 말이지."

"죄송합니다."

"아니야. 인간이 거기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말이네. 테드모, 아무리 유능한 너라도 그런 불가능한 사태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 그나저나 눈의 산이라…. 그곳의 기운들이 아주 미묘하게 흩어졌다는 걸 잠시 느끼기는 했어."

루드라가 두 눈을 감자 다시 미간 사이의 세 번째 눈이 고개 숙인 남자, 테드모를 향했다.

"그런데 단지 그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날 찾아온 것은 아닐 텐데. 무엇인가? 그믐은 내가 명상하기 좋아하는 시간이야. 설마 잊은 건 아닐 테지."

"그게…. 눈의 산에서 발견한 소년에게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루드라의 세 번째 눈에 빛이 번쩍하다가 사라졌다. 순식간에 눈부실 정도로 환해졌던 주위도 다시 온화한 빛을 되찾았다.

"이상한 것?"

루드라가 감았던 두 눈을 다시 뜨자 뱀 역시 고개를 쳐들어 테드모를 바라보았다.

눈의 산은 인간계와 신계 사이에 자리한 아홉 개 산 중의 하나로 그 냉기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길을 잘못 들어 그대로 얼어붙은 온갖 동물들이 산의 초입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또 입산금지를 알리는 경계석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 정상에 바로 얼음의 성이라는 감옥이 자리하고 있다. 마치 안이 훤히 다 들여다보일 것처럼 투명해 보이는 성은 전체가 다 수정으로 만들어져 있기에 말 그대로 얼음의 성처럼 보였다. 빛을 받으면 오색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이 성에는 역설적이게도 주로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혼란을 일으키는 정령들과 감히 신계를 넘본 요괴들이 갇혔다. 그러나 인간이 얼음의 성에 갇혔었다는 이야기는 물론이요 이 성의 존재 자체가 인간계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 속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역사상 가장 부유한 상인이자 모험가였던 쿠샹이 남긴 기록에도 눈의 산이라는 장소만이 언급되었을 뿐이었다. 바로 그런 감옥에 이제 전설로 전해질 지도 모를 두 소년이 갇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각선 방향으로 멀찍이 떨어져 앉아있는 소년들 사이에는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이번에도 칼키가 먼저 그 침묵을 깨고 무니에게 말을 건넸다.

"미안해. 잠을 좀 자고 싶어서 불을 껐었어. 그리고 사실 잠이 막 들려던 참이기도 했지. 하지만 네 잠꼬대 소리에 깨고 만 거야. 무엇보다 이 불도 그믐날이 아니면 켤 수 없게 되어있거든. 하여간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어."

칼키는 싱긋이 미소를 지었다.

"아니, 사실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놀란 거야?"

그의 질문에 무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안 그래도 도톰한 입술을 더 내밀며 인상만 잔뜩 찌푸렸을 뿐이다.

"그런데 소년. 아니, 아니. 무니라고 했지. 근데 난 다가 누구야? 아주 애타게 부르던데 말 이야."

무니는 대답은커녕 아예 고개를 돌려 버렸다. 또다시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결국 칼키는 무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칼키는 이 소년의 나이가 생각보다 더 어린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까는 갑자기 불을 켜는 바람에 제대로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하얀 피부에 큰 눈과 붉은 입술이 마치 어린 여자아이 같이 부드러워 보였다. 그러나 그 순간 고개를 돌려 칼키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소년의 두 눈에서는 어린아이같은 느낌이나 부드러움이 보이지 않았다. 까맣고 깊은 눈동자는 그 어린 소년이 걸어온 길을 보여주듯 많은 걸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난다는 하나뿐인 내 친구야."

"그런데?"

"그런데 어디서 헤어지게 된 건지 모르겠어. 어느 순간부터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 같아. 답답해."

"그렇군.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된 건지는 기억해?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장소는 어디야? 거기서 잡혀 여기까지 끌려 온 거 아닐까?"

"잘 모르겠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무니는 머리를 부여잡더니, 이내 고개를 흔들었다.

"아무래도 역시 기억이 나질 않아. 그래도 확실히 추격을 당하긴 했었지. 영문도 모르고 쫓기고 있었어."

칼키는 '흠….'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말이야, 잡혀왔거든. 그러니까 씽~하고 여기 군대인 마히샤들에게 끌려서 말이야. 그래서 딱히 기억을 잃는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는데, 건너 방에 있다가 결국 소멸돼 버린 정령 아저씨 말을 들어보니 눈의 산에 들어서면 갑작스러운 추위 때문에 아무리 정령이라고 해도 정신 줄을 잠시 놔버리게 된대. 인간인 네가 만약 잡혀온 게 아니라 제 발로 얼음의 산에 들어온 거라면…. 아,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한 건가?"

칼키는 말을 멈추고 무니의 얼굴을 바라봤다. 확실히 남다른 데가 있어 보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얼음의 산에서 무사히 살아남아 여기까지 끌려 왔으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어린 소년이었다. 물론 칼키 자신도 어리지만 말이다.

"어찌되었든, 너도 아마 그 추위 때문에 부분적으로 기억을 잃어버린게 아닐까 싶어. 하여간 그럼 넌 여기 왜 온 건지도 전혀 모른다는 거야?"

"응."

"확실히 인간이 맞긴 한 거고?"

"무슨 소릴 하는거야. 인간이 아니면 뭐라는 거야!"

"와! 또 욱하는구나. 간수 아줌마 말에 의하면 자기가 기억하는 한 여기 잡혀온 인간이라고는 나뿐이었다기에 하는 말이야. 그 아줌마, 기억력이 썩 좋은 거 같지는 않았지만. 그럼 널 추격했던 자들이 어떤 모습었는지는 기억이 나?"

무니는 기억을 떠올렸다.

"응. 하지만 그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본 것은 없어. 아! 모두들 흰색 옷을 입고 있었어. 뭔가 다른 색의 끈을 허리에 매고 말이야."

"그래? 이상한데? 날 여기까지 데려온 마히샤들은 모두들 붉은 옷에 황금색 띠를 두르고 있었거든. 역시 하늘을 날기는 했지만 말이야. 도대체 인간계의 하늘에 왜 그렇게 요상한 존재들이 날아다니는 걸까."

칼키는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천장을 쳐다봤다. 무니가 그런 그를 쳐다보다 물었다.

"그럼 그러는 넌 왜 여기에 끌려온 건데?"

"흠. 내가 여기 왜 끌·려·왔·냐·면 말이지. 왕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야."

무니는 깜짝 놀라 칼키를 쳐다봤다. 그는 또 다시 싱긋 미소를 지어 보였다.



삽화 · 김흥인

출강 및 통신 2011학년도 제 20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20년 법사양성 연륜과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1학년도 제20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불교법사 자격과 기회
만족을 성취하여
보십시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④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범음·범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1년 2월 25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 051-466-1959) ·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주)더나인 칼라 단청 사업단

옻칠단청

천년보장 옻칠이 꼭 필요한 곳 : 사찰단청. 기존 단청 보호. 사당.
문중재실. 일반한옥. 목조주택.

천년고찰을 꿈꾸는 스님에게만 옻칠 단청의 혜택을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단청은 밀폴, 아교, 포리졸을 사용한 화학 재료기법으로 공해는 물론 방충, 방습, 방염의 천적으로부터 보존 · 보호 능력이 전혀 없어 3년 단위로 방충제, 방염제를 살포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옻칠단청기법은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완전 해결해 줌으로 천년을 보장하는 친환경 천연 칠로서 목재보호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불화의 맥을 이은 금호, 보응, 일섭, 우일스님 문중의 수석맏제자

불광미술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178-4
단청,탱화,개금 3절장인
만성 조기환 010-6426-2563 (042)254-2567

요절복통 여래네 집

#42. 사람의 심리



스튜디오 돌

외출했다 돌아온 엄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입이 잔뜩 퉁퉁 부어있습니다.



알고보니 모처럼 튀어볼려고 앙증맞은 모자와 목도리를 세트로 해서 귀여운 콘셉트로 코디하고 모임장소에 갔었는데 똑같이 하고 나온 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분위기를 바꾸려고 은근슬쩍 아빠가 화제를 돌립니다,



아빠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뒤에서 노는 얘들 사이에서 빨간 츄리닝 바지와 엄지와 검지 발가락 사이에 끈을 껴서 신는 슬리퍼의 일종인 쪼리라는 것을 신고 다니는 것이 유행했답니다,



아빠는 한껏 용기를 내서 한 일이었지만 막상 거리에 나가서 보니







아빠가 엄마한테 아까 퉁명스럽게 대꾸했던게 미안한지 얘기가 길어집니다,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어느 틈에 엄마의 기분을 풀렸고 즐거운 간식도 나왔습니다,

이주일의 화두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재산은 믿음이다
덕행을 쌓게 되면 행복이 찾아온다
진실이야 말로 맛 중의 맛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야 말로 최상의 생활이다 〈법구경〉



"일이 잘 안 풀리시죠?"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성적은 안 오른다 구요?"
"평소엔 잘 하다가 시험만 보면 꼭 실수가 나오나요?"
"이유 없이 자꾸 아프시다 구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아지질 않는다 구요?"
"사업을 벌이는 족족 망한다 구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사주는 아주 좋다는데 왜 그러는지 답답하시다 구요?"

유남 탁대영원장

창천 백구빈원장

그렇다면 이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틀림없이 이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잘못 바꾸면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돼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제 한자 중심의 작명, 수리학 중심의 작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름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미성 이름 연구원에서는 세계최초로 30여개 성명학을 집대성한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작명을 합니다.
"이름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름 속에 희망, 꿈, 성공, 건강, 재물, 실패, 좌절, 절망, 부도, 파산,불행 등 모든 운명적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성명학 교실 제자모집
<상담·문의전화>
1600-0063
현재 불교 TV 광고 중
(10:30, 14:00, 18:00, 23:00)

이름의 중요성에 대한
<무료 강연회>
매주 토요일
11시 ~ 13시

자미성 이름 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 3차 빌딩 409호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불제해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1-1

전 선 간 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 (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팔순의 노승이 법보시하는 이유는?



용성진종 조사의 생애와 사상 조명
도문 스님 〈연기법 생활〉 전국 법보시

"80을 바라보는 노승이 8만대장경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어찌하여 조용히 쉬지 않고 횡야설 수야설인 〈연기법의 생활〉을 간행해 유포하겠습니까. 한국불교 근현대 고승인 용성진종 조사의 삶과 사상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인들이 연기법의 도리를 이해하고 삶의 지혜로 삼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죽림정사 조실이자, 조계종 원로회의 원로의원인 도문 스님(사진)은 스승인 용성진종 조사의 삶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발자취를 더듬었다. 〈연기법의 생활〉은 용성진종 조사의 생애와 사상을 담고 있다. 도문 스님은 1946년 용성진종 조사의 수법 제자인 동헌완규 조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은 한국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불교와 한국불교의 원융화합을 명분 삼아 정치적 · 종교적으로 한국의 정신문화 해체를 시도했다. 당시 '조선 왕조 마지막 대강백'이라 불리던 이회광 조차도, 1908년 전국사찰대표 60여 명을 모아 일본 정토종을 표방한 원종(圓宗)을 창립해 친일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일본 정토종은 양산 통도사를 자신들의 종단 말사로 삼으려는 야심을 품었다. 일본 조동종은 조선불교를 일본 조동종 종단에 병합하려는 야욕을 드러내며, 일본 임제종이 조선 임제종과 한 근원이라 주장하는 등 조일불교 단합관할을 꾀했다.

결국 범어사와 통도사는 연합해 서울 인사동에 조선불교 임제종 선종교당을 설립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때 용성진종 조사가 개교사장(開教師長)으로 등단했다. 스님은 범어사 성월, 만해 스님 등과 임제종 운동에 앞장섰다. 이어 1911년 서울 종로에 대각사를 창건하고, 3 · 1운동(1919)에는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계를 대표해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스님은 이일로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러야만 했다.

일생을 독립운동과 불법포교에 이바지했던 용성진종 조사는 수법제자인 동헌완규 조사에 유훈10사목(遺訓十事目)을 부촉하고, 불자들에게 5대 수행을 권장했다. 용성진종 조사는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승려로서의 본연의 모습도 잃지 않았다. 불심도문 대종사는 1983년 동헌완규 조사가 열반하면서 용성 조사의 유훈 10가지를 실현하는데 진력해왔다.

유훈 10사목은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불교의 초전법륜 폐허성지를 잘 가꾸는 것을 비롯해, 부처님이 탄생하신 네팔 룸비니원, 불타 불적 5대 성지를 가꾸도록 하는 것이었다. 특히 연기화엄부, 소승아함부, 대승방등부, 공혜반야부, 실상법화부, 원적열반부인 6부의 한문경전을 한글로 번역해 대중에게 지혜의 안목으로 삼도록 했다. 또한 참선, 염불, 간경, 주력, 불사의 5대 수행을 강조하며, 이 수행이 갖는 의미와 방법론에 대해서도 전했다.

도문 스님은 "온 인류가 5계(五戒)를 받들어 십선수행(十善修行)하고, 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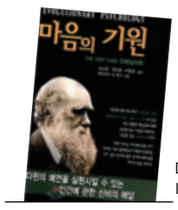


제, 팔정도, 십이연기를 알아 십바라밀을 행함으로써 성불인연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불타의 가르침과 조사의 교훈을 받아들여 높은 이상과 넓은 배움, 깊은 깨달음으로 종교분쟁의 씨앗을 소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문 스님은 〈연기법의 생활〉을 전국의 각 사찰과, 이웃종교, 지방자치단체 등에 법보시할 예정이다.

불심도문 대종사 지음 | 죽림정사
(063) 353-0108
이은정 기자

윤남진 리뷰 / 마음의 기원

여자는 능력있는 남자를 좋아해



데이비드 버스 지음 | 나노미디어

케이블 TV프로그램 중 '남녀탐구생활'이라는 프로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상황이나 과제들을 두고 매우 다르게 반응하는 행동과 모습을 그려낸다. 즉,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코믹하게 말한다. 이런 성차를 드러내는 가장 일반적인 예는 아마도 자동차 운전일 것이다. 남성들은 운전면허를 따기도 전에 카레이서처럼 구는 반면, 여성들은 도로주행과 주차에서 쩔쩔매는 모습은 극적 수준이다. 반대로 남성은 그렇지 못하지만 여성들은 어지러이 널려져 있는 창고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보관해 둔 물건들까지 귀신같이 찾아낸다. 과연 이런 성차는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아마도 첫 영장류가 진화한 것으로 보이는 8500만 년 전, 또는 두 다리로 걷는 첫 영장류가 등장한 440만 년 전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도 이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렇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심리학과 진화생물학을 통합한 혁명적인 신과학이라는 진화심리학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또, 인류의 진화 역사는 대부분 석기시대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유전적 형질과 마음의 결정규칙들은 석기시대의 인간 삶과 그 환경조건들에 맞게 조형된 것들이 지배하고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이 책의 원 제목은 '진화심리학'이다. 이 말이 시사하듯 책의 서두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1859)을 설명하는 것으로

'진화심리학' 통해
성차의 유래 살펴
인간 마음의 연원은
일정한 규칙 지녀

시작한다. 〈종의 기원〉에서 "언젠가 정말로 중요한 연구를 위한 영역이 열릴 것으로 본다. 심리학은 새로운 기반에 기초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이 바로 '진화심리학'의 탄생을 예언한 것이다. 그러므로 진화론의 핵심개념인 '자연 선택 및 성 선택설'로부터 오늘날의 유기체가 수백 또는 수백만 세대에 걸친 자연 선택의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전제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윈의 진화론은 이타주의 문제, 즉 '어떻게 이타주의가 진화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줄 수 없다. 이에 대한 진화 생물학의 혁신은 1960년대 초 '포괄적 적응도 이론'으로 해답을 얻게 된다. 포괄적 적응도란 개별적 번식 성공의 합(고전적 적응도)에, 개인 활동 혹은 유전적 친족들의 번식 성공이 미치는 효과를 더한 것이다. 예를 들자면 유전적 관련성이 적은, 거리가 먼 친족에 비해 가까운 친족에게 이타적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가설을 '포괄적 적응도 이론'에 기초해 세울 수 있다. 이로써 자신의 생존과 직접 번식을 위한 적응적 행동 이외에 이타주의적 행동이 진화 가능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발전시키는 학문적 혁신이 이뤄진다.

본문 중 '여성은 지위가 높은 남성을 선호하거나 그들에게 매력을 느끼도록 진화했다'는 한 가지 예측이 있다. 이 예측의 배경이 되는 상위의 가설은 '수컷이 자손을 위한 자원 제공자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암컷이 수컷의 자원제공 능력에 기초해서 짝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점이다. 이 가설의 상위에 중간 수준의 진화이론인 '양육투자이론과 성 선택설'이 있고, 최상위에 일반 진화이론인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포괄적 적응도 이론)'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오늘 우리의 다양한 마음의 결정규칙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설명한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 이처럼 적나라하게 생존과 번식을 위한 적응 행동에 기초해 설명한다는 것에 대해 필자도 그랬지만 독자들도 다소 꺼림직스런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처럼 적나라하게 우리 마음의 연원과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마음의 규칙들에 대해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원시 종족이나 문명화된 도시인이나 모든 현존 인간이 같은 마음의 연원과 유사한 결정 규칙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이해하고, 그런 이해에 기반해 왜 우리가 서로를 이성적이고 이타적으로 대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진화시켜 가야 하는지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이 혹시 우리 마음의 탐 · 진 · 치의 오래된 연원과 그것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힌트를 알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연구위원장

불교적 해석 통해 문학치료까지 응용

'구운몽'은 인생의 가치를 발견케 하는 소설



〈구운몽〉에서 보여주는 꿈과 환상, 가상이 불법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제시하는 책이 출간됐다. 〈구운몽의 불교적 해석과 문학치료교육〉은 〈구운몽〉을 불교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학치료와 문학교육에 응용할 가능성을 모색했다.

1부는 '구운몽의 사념실현과 환생의 의미' '구운몽의 세속 삶과 그 극복 방식' '김만중의 시문에 나타난 구름' '구운몽의 구름과 주제' '구운몽의 환몽(幻夢)경험과 주제' 등을 다루면서 불교적 해석으로 접근하고 있다.

2부는 1부에서 다룬 〈구운몽〉에 대한 불교적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운몽〉을 우울증 치료 텍스트로 활용할 방안을 제시한다. '구운몽의 우울증 치료 텍스트로서의 가치' '구운몽의 재해석과 희망의 서사 교육' 등을 다루며 〈구운몽〉의 문학치료와 문학교육을 담았다.

책은 교육현장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구운몽〉 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운몽〉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모색하고 있다.

〈구운몽〉의 암시는 학습자로 하여금 세속 삶에서 소중한 가치와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양소유의 일생은 옳고 그름의 상대적 분별을 넘어 정당함, 높고 낮음의 상대적 분별을 넘어선 형제애 혹은 동성애 등을 구성해 보여준다. 양소유의 일생은 역설적으로 위대한 평등 세계를 보여주며, 말년의 양소유가 모두가 선망하는 이상적 현실에 머물지 않고 해방과 깨달음의 경지를 추구한다.

저자는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구운몽〉을 읽고 또 가르친다면, 〈구운몽〉은 우리 인생에서의 위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인생을 예찬하는 소설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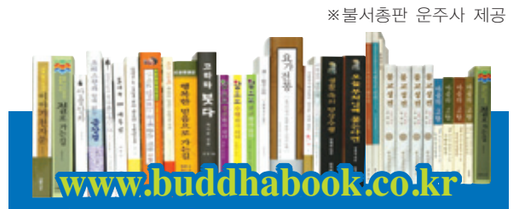
이강목 지음 | 소명출판 | 2만원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18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행복, 비움으로 얻는가 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	운주사
4	생각 버리기 연습	코이케 류노스케	21세기북스
5	선방일기	지허	불광출판사
6	초기불교이해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7	인과경	현담	선
8	선가귀감	원순 역해	법공양
9	허공법문	김기추	고려원북스
10	노자 도덕경, 그 선의 향기	감산	정우서적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삼국유사’ 같은 귀중한 가치 지닌 책

김재일 사찰생태硏 대표, 7년 조사 3년 편집 끝에 ‘108사찰 생태기행-산사의 숲’ 10권 완간



요즘 매서운 추위가 사람들의 옷깃을 더욱 단단히 여미게 한다. 추운겨울이 언제까지 이어지나 전전긍긍이었지만, 이제 곧 입춘(立春)이다. 계절이 또다시 옷을 갈아입는다. 사찰생태연구소 김재일 대표(63) 역시 “나도 이제 옷을 갈아입게 된다”고 말했다. 김재일 대표는 현재 폐암말기이다. 8년째 암 투병생활을 해 온 김 대표는 “작년 11월 담당의사로부터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다는 통보를 받고 치료를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죽음을 “단지 육신이 옷을 갈아입는 것 뿐”이라 담담히 말했다. 그런 김재일 대표가 최근 2002~2008년 전국 108개 사찰을 생태 모니터링한 기록물 〈108사찰 생태기행-산사의 숲〉시리즈를 완간했다. 책에는 7년에 걸친 조사와 편집에만 3년이 걸린 원고지 7500매, 5000매 이상의 사진자료가 실려 있다.

“이제 한 달이 지났으니, 앞으로 두 달 남았네요”라고 말하는 김재일 대표(사진)의 모습은 여느 건강한 중년남성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제 기분엔 한 1년은 더 살 것 같아요. 요즘 치유의 숲이란 말들 많이 하는데, 저야말로 산과 숲으로만 돌아다닌 사람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 덕을 조금 보지 않겠습니까.”

김재일 대표의 이런 말은 현생에 대한 미련이기 보단, 숲이 그만큼 그에겐 각별한 존재였음을 의미한다. 스님, 국어교사, 작가, 시민운동가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김 대표의 삶에는 ‘숲’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사찰생태조사는 사실 개인이 진행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엔 조사량이 너무 방대했죠. 1929년 조선총독부가 한국의 산림을 수탈하기 위해 한반도 전역을 조사한 이래로, 이런 대규모 조사는 아마 제가 처음일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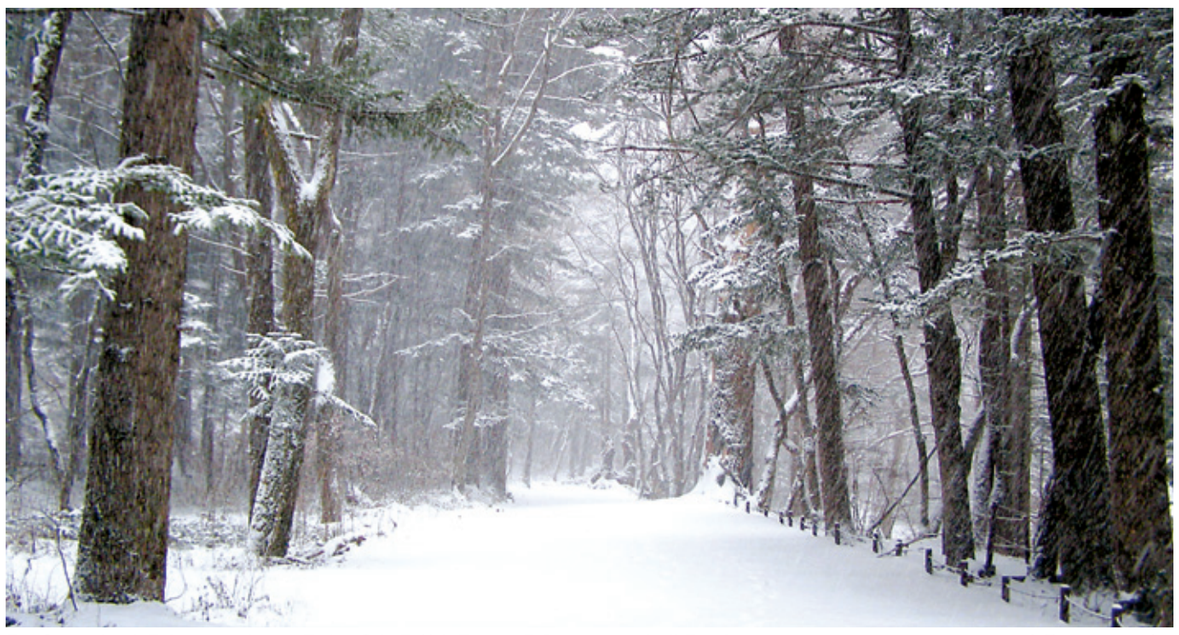
김재일 대표가 처음 사찰생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1990년 후~2000년 대 초, 사찰환경이 정부와 지자체에 의해 무분별하게 훼손되면서 부터다.

“무작정 시위현장으로 뛰어들어 단순대응을 하는 것 보다, 사찰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와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찰환경이 파손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 필요했죠. 그 후부터 주요 사찰들을 중심으로 그 곳의 생태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재일 대표는 자료조사에 앞서 자신과 두 가지 약속을 했다. 첫째는 운전을 하지 말 것이며, 두 번째는 사찰의 도움을 절대 받지 않는 것이었다.

“생태를 살리고자 조사를 시작하면서 운전을 한다는 것은 말 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한 기록은 철저히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해당 사찰의 신세는 지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108개 사찰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일일이 걸어 다니며 사찰의 생태를 모니터링 했다. 단순히 숲의 식물만이 아닌, 동물, 조류, 곤충, 토질, 토양 등을 두루 조사했다. 김 대표는 “생각 외로 사찰 생태가 잘 살아있는 것을 느꼈다”며 특히 “경북 봉화의 어느 사찰 앞 마당에는 천연기념물인 두점박이 올빼미가 스님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걸 보고 깜짝놀랐다”고 밝혔다. 반면 사찰 자체가 생태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재일 대표는 “생각외로 사찰 생태가 잘 살아있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눈 내리는 월정사의 모습. (사진 제공=지성사)

또한 김 대표는 “경전에 나오는 조경과 식생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웠다”며 “우리 전통의 식생이 아닌 외래종과 많이 교란되거나, 파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일 대표는 얼마 전 조계종 측에 ‘불교수목원 설립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내가 원하는 불교수목원은 휴양, 교육, 치유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멀티 수목원입니다. 수목원을 통해 각 사찰에 맞는 식생을 공급하고, 하나의 ‘불교성지’를 만드는 것이 저의 원(願)이었습니다.”

김재일 대표가 이렇게 까지 숲에 대한 애착심을 드러내는 것은 불가와의 인연도 한 몫 한다. 그는 “내가 불자가 아니었다면 절대 생태운동가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 단호히 말했다. 김재일 대표는 교편을 잡게 된 지 6개월 만에 우연히 안성 칠장사에서 만난 한 스님의 화두를 받고 출가를 결심하게 됐다.

“출가해서 가장 놀랐던 점은 부처님이 숲의 성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일생을 숲과 함께 지내신 분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스님들처럼 강원이나 선원에 들어가 공부를 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출가한 지 5년 후, 그는 다시 세속으로 돌아왔지만 “다음 생에도 꼭 스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재일 대표가 그토록 사랑한 생태는 그에겐 마냥 기쁨만을 안겨주는 존재는 아니었다. 그가 폐암에 걸린 이유도 새만금사업 시위운동을 나갔다 감기에 걸린 것을 방치해 폐암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태에 대한 그의 사랑은 여전히 식을 줄 몰랐다.

“현대에 이 책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책이 불교계 수행환경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란 점입니다. 일연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도 처음엔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를 모은 단순한 이야기책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생태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책은 분명 100~200년 후에는 이 땅의 생명변화를 관찰하고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김재일 지음 | 지성사 펴냄 | 17만원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이은정 기자의 뻔뻔한 레시피①
(Fun Fun)

현미밥 양배추 말이

오늘도 지친 몸을 이끌고 터덜터덜 집으로 들어온다. 며칠간 계속된 야근 덕에 현관문을 열자마자 몸이 먼저 침대로 곤두박질 쳐버린다. 몸은 젖은 솜처럼 축축 늘어지기만 하는데, 이놈의 배가 눈치 없이 아우성이다. 밥솥을 열어보니 언제 한지 기억조차 없는 밥들이 누렇게 들러붙어 있다. 금방이라도 구더기가 친구하자며 나올 것 같은 음산한 기분이 든다. 빈속에 그 광경을 보니 괜히 헛구역질만 난다. 안보면 좋았을 것을…. 설거지할 생각에 눈앞만 캄캄해진다.

익숙하게 싱크대를 열어 사다놓은 레토르트 식품들이 없나 재빠르게 훑는다. 다행이 자장밥 하나가 남아있다. 자장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려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어제도 짜장밥을 먹었던 것 같다. 그리고 보니 요 며칠 새 바쁘다는 핑계로 피자, 햄버거, 라면 등으로 끼니를 연명했던 것 같다. 소화도 잘 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한 이유가 이거였다. 순간 내가 섭취한 나트륨과 방부제들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

그러고 보니 아직 젊다는 이유로 건강을 챙기는 일은 늘 뒷전이었다. ‘나는 아직 젊어서 괜찮아!’라고 넘겨버렸는데, 이제 해도 바뀌어 점점 젊음도 잃어간다. 이러다 시집도 못가보고 폭삭 늙어버릴 것 같아 불안하다. 건강에 이상경보가 오기 전, 미리미리 내 건강을 챙겨야겠는데, 몸도 지키고 맛도 좋은 그런 음식 어디 없을까?



사진=박재완 기자

#알고가기 양배추의 유황과 염소 성분은 위장 점막을 더욱 강화시켜 줘 위궤양 예방에 좋다. 또 혈액을 맑게 해 혈액순화를 향상시켜 피부에도 좋다. 현미는 우리 몸의 과다 영양소를 배설시켜 변비를 예방하며, 콜레스테롤, 고혈압, 동맥경화에 도움이 된다.

재료는 이렇게 준비 하세요

쌀 1컵, 현미 4분의 1컵, 양배추 400g, 적배추 400g, 표고버섯 3개, 당근 50g, 세발나물 30g, 된장 4큰술, 들기름 4큰술, 참기름 2큰술, 설탕 작은1큰술, 소금 작은1큰술, 호두, 해바라기씨, 청량고추 1개

음식 만들기

① 쌀과 현미는 적당히 불린 후, 밥을 한다.
② 양배추와 적배추는 깨끗이 씻어, 찜통에 물이 끓으면 각각 3분 씩 쪄낸다.
③ 표고버섯, 당근은 채 썰어 달궈진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소금을 넣어 볶는다.
④ 세발나무는 살짝 데친 후, ③과 같이 팬에 볶는다.
⑤ 된장에 설탕과 호두, 해바라기씨, 청량고추 등을 썰어 넣어 양념장을 만든다.
⑥ 쪄낸 양배추위에 ①을 참기름과 소금을 넣고 버무린 뒤 얇게 편 후, 말아준다. 그 위에 된장양념을 얹어 놓는다.
⑦ 적배추에는 볶아 놓은 표고버섯, 당근, 세발나무를 함께 넣어 ⑥처럼 말아준다.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성 지 순 례 !!
1월 ~ 2월 마감이 끝냈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조기예약 기념 특전
5월 12일, 16일 (단2회 출발)
3월 15일 마감
미얀마 성지순례 1,490,000원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6일



■ 3월 15일 출발
지장도량, 관음도량 성지순례
1,290,000원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6일
■ 3월 14일 , 4월 5일 출발
미얀마성지순례 1,690,000원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익티오 7일
미얀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중,영,한 3개국어판 !
< 불조정맥 >
종조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 진영과 정맥전법게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출간.



중,영,한 3개국어판 !
< 화두/Hwa-du >
대원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
현대에 생생히 살아있는 ‘화두’!
출간 예정.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31)534-3373

일원상을 그린 선사시여, 차 한 잔 올리오니 흠향하소서

서은사2

앙산 선사의 7대 제자 중 한 사람인 신라승 순지 선사 위패는 밀인사 조당에서 본 바 있다. 이는 신라도 위앙종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방증이다. 순지 선사보다 먼저 앙산 선사를 참방한 신라승 원랑 대통(圓朗大通, 815~883) 선사는 신라에 위앙종의 일원상 가풍을 전한 선구자가 아닐까 싶다.

대통 선사는 사형이자 입당구법승인 자인(慈忍) 선사의 권유로 신라 문성왕 18년(859)에 하정사(賀正使, 신년 축하사절) 배편으로 바다를 건너가 여러 절을 거쳐 마침내 앙산 선사 회상으로 들어갔다. 대통 선사는 대중 속에서 뛰어난 구도의지와 선기로 앙산 선사에게 심인을 받았다. 입당 7년 만인 866년에 회역사(廻易使, 무역사절) 배편으로 귀국하여 월광사(月光寺)에 주석하면서 많은 불도들을 교화하다가 68세로 입적하였다.

신라인으로서 이 두 분 스님이 앙산 선사의 상좌라면, 손상좌라 할 수 있는 스님도 보인다. 혜청(慧清, 885~960) 선사가 바로 손상좌에 해당되는 스님이다. 앙산 선사의 상좌인 남탑 광용(南塔光湧) 선사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혜청 선사는 영주(郢州) 파초산(芭蕉山)에서 중국인 제자들에게 상당법문을 했으므로 파초 혜청 선사라고도 불렸다. 그러니 신라의 구법승들은 신라 땅은 물론 중국 땅에서도 앙산 선사의 가르침을 폈던 셈이다.

참선하면 누구나 행복해
난관 극복하는 지혜 발현

일원상 가풍이란 선사가 법문할 때 손가락으로 일원상을 그려 보이는 것을 말했다. 한 스님이 앙산을 찾아와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고 묻자 앙산은 허공에다가 손가락으로 일원상을 그리고 그 안에다 불(佛)자를 써서 보여주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佛)을 일원상으로 그린 바 이로부터 일원상 가풍이 앙산의 제자들에 의해 신라 땅까지 전해졌던 것이다.

선사의 가풍에 따라서 같은 질문이라도 답변은 다 달라지는데, 위산과 조주의 예도 그러했다. 조주가 만행 중에 위산을 찾아온 자리에서였다. 한 스님이 위산에게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고 묻자, 위산은 '나에게 의자를 가져다주게'라고 하였다. 이를 보고 관음원으로 돌아간 조주에게 한 스님이 공교롭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러자 조주는 '뜰 앞에 잣나무니라' 라고 답했다.

법당을 참배하고 나오니 문득 앙산 선사가 남긴 선화가 떠오른다. 〈사가어록(四家語錄)〉에 나오는 선화로 선가에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다.

예사롭지 않은 행자가 법사를 따라 법당에 들어갔다. 행자는 법당에 들어서자마자 부처님에게 침을 뱉었다. 그러자 법사가 크게 놀라면서 행자를 나무랐다.

"행자는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하거늘 무엇 때문에 부처님께 침을 뱉는가."

"부처님이 없는 곳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곳에다 침을 뱉겠습니다."

행자의 대답에 법사는 대꾸를 못했다. 이 사건은 위산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런데 위산은 행자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칭찬했다.

'어진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도리어 어진 사람이 되었군.'

이 부분이 〈조당집〉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훌륭한 이가 도리어 변변치 못했고, 변변치 못한 이가 도리어 훌륭하게 되었구나.'

앙산은 위산과 달리 법사를 대신하여 말했다.

"행자에게 침을 뱉어서 행자가 무어라 말하거든 '나에게 행자가 없는 곳을 보여 주면 거기다 침을 뱉겠노라' 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앙산 선사의 선화는 우리나라의 현대 고승 전강 선사를 떠올리게 한다. 신라구산 선문 가운데 하나인 동리산문 곡성 태안사를 갔을 때 한 스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다.

전강은 23세 때 밤길을 걸어 태안사 보제루에 올랐다. 누각에서 보니 능파각 밑으로 흐르는 개울물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순간 전강은 눈앞을 가렸던 번뇌의 구름장들이 몰록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견철했다. 화두가 타파되는 황홀한 깨달음의 시간이었다.

전강은 오도송을 읊조리고 나서 문득 요의(尿意)를 느꼈다. 대웅전으로 들어가 부처님에게 참배하기 직전이었다. 법당 밖은 여전히 달빛이 환했다. 전강은 망설이지 않고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누었다. 그러자 한 노스님이 전강의 불경스러운 행동을 보고는 호통을 쳤다.

"웬 미친 중이 법당 앞에서 오줌을 누느냐!"

전강은 노스님의 호통을 한 귀로 흘려들으며 말했다.

"어허, 천지에 부처의 진신이 아닌 곳이 어디 있겠소. 내 어디에다 오줌을 누란 말이오."

노스님은 전강의 걸림 없는 대꾸에 할 말을 잃어버렸다. 전강 선사의 경지도 앙산과 견주어 조금도 밀리지 않는 것 같다. 대답이 곧 질문이 돼버리는, 상대를 절벽 위로 밀어붙인 영혼을 뒤흔드는 화두가 된 까닭이다.

현실존재(중생)가 어떤 문제에 부딪쳤을 때,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힘이 바로 견성한 이후의 변화일 터이다. 눈앞의 난관을 극복하는 지혜의 발현으로 행복감이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견성체험의 효과인 것이다. 혹자는 견성하면 신통방통한 도인이 되는 줄 아는데, 그러한 오해는 자신의 삶에 아무런 향상(向上)을 주지 못하고 해만 되는 허망한 망상일 뿐이다.

그런데 무형(無形)의 보배인 견성체험은 선어록에나 나오는 옛 조사나 선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늘을 사는 보통사람들도 선지식을 만나 참선공부만 한다면 종교가 무엇이건 간에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실현가능한 체험이라는 것이다.

견성은 종교와 상관없는
보통사람도 가능한 체험

안국선원 홍법담당 부회장 은암(김성부) 시인의 경험담이 순례하는 중에 가끔 떠올랐던 것도 바로 그런 까닭에서였다. 저잣거리에서 부대끼는 보통사람도 견성체험이 실재한다는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다. 아내이자 도반인 법혜인 보살의 권유로 시작한 간화선 정진은 그의 종교관과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던 것이다. 법과대학을 졸업한 은암은 고시공부를 하다가 2차 시험에서 몇 번을 실패하고 나서는 해병대 장교시험을 쳤다고 한다. 그런 뒤 고된 훈련과정을 거쳐 소위로 임관되고 임진강변의 최전방 소대장 근무 6개월 만에 월남전투에 참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기독교 신자로서 안 죽고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니와 목사님과 신자들이 매일 기도를 해주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아군 1개 중대가 1개 연대규모의 베트콩과 싸워서 이긴 짜빈동전투에서 소대장으로 참전하여 충무무공훈장을 받았으나, 수많은 전투로 소대장들이 전사하는 바람에 귀국일이 연장되었지요. 그런데 한 전투 중에 크게 부상을 당하고 말았어요. 다리를 자를 정도가 돼 9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지요. 고향의 어머니와 목사님이 진해 해군병원으로 1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기도했어요. 나중에 완치됐을 때 목사님의 권유로 하느님이 절 구해주셨다고 교회 신자들 앞에서 간증을 했지요."

그러나 은암은 전쟁의 죽고 죽이는 참혹한 기억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기도하고 성경책을 봐도 후유증은 씻어지지 않았다. 기도라는 기복에 매달릴수록 더 크게 매달려야 하는 자신을 발견하고서는 기독교 신앙에 차츰 회의가 들었다. 동국제강그룹의 금융회사에서 사장을 하고 동업계에서 부회장까지 잘 마무리했는데도 전쟁의 기억은 악몽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아내인 법혜인 보살과 함께 절 순례를 6개월 동안 하게 됐고, 보살의 권유로 안국선원에 들렀다가 수불 스님을 만나 화두 받고 참선하는 인연을 지었다.

"2002년 1월 4일 폭설이 내린 날이었어요. 스님을 뵙고 불교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화두 받고 공부를 시작했지요. 스님께서 문제는 잊고 답만 찾으라고 하여 하루 이틀은 답이 책에 있는 줄 알고 서점에 갔지요. 사흘째 되니까 가슴이 터질 듯하더군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이기도 해요. 어머니 집안은 본래 불교였는데 기독교 집안에 시집 온 거지요. 어머니가 큰 아들네가 여기 앉아서 내 대신 공부를 하는구나 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나흘째는 가슴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운 채 새벽에 선원으로 나갔는데 그때부터 목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지요. 가슴이 터질 듯한 상태가 통곡이 돼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도 새벽까지 절벽 같은 데 앉은 기분으로 눈물을 흘리고 앉아 있는데 밑에서부터 안개구름이 올라와 저를 감쌌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구름이 확 걷히더니 강렬한 햇빛이 쏘듯 비치더군요. 그 순간 전쟁의 후유증과 독하게 마음먹고 살아왔던 감정과 업들이 사라지면서 하늘을 날아오를 것 같았고 환희심이 차올랐어요. 이번에는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점검해주시는 스님을 봐도 눈물이 나고, 아내는 물론 그동안 내 인생을 있게 한 모든 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이 났지요."

차담을 나누던 문학박사이자 안국선원 부설 간화선연구소 책임연구원인 다암(김홍근) 거사도 자신은 화두 걸리는 것이 소원이었다며 여러 선원의 스님들을 참방한 끝에 안국선원에서 비로소 간화선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선원장 스님께서 화두를 주는 순간 독침을 맞은 것 같았어요. 숨도 못 쉴 정도여서 몸을 뒤틀고 그랬지요. 어둡고 컴컴한 데로 들어가서 헤매는 것 같았어요. 비유하자면 저는 무의식 속에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맨 밑바닥에서 터졌어요. 확 밝아졌는데 내 몸이 없어요. 앞과 뒤가 분명한 변화가 왔다는 것을 느꼈지요. 불 속에서 연꽃이 핀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알게 됐지요."

법당을 나온 순례자 일행은 서은사 경내 오른쪽 산자락 위편에 있는 앙산 선사 사리탑으로 걸어 오른다. 사리탑 주위에 만리향(萬里香)이라 불리는 은목서 꽃향기가 진동하고 있다. 그동안 순례하면서 선사들의 영전에 차 한 잔 올리지 못한 것이 죄송하여 제안을 하자, 수불 스님이 허락을 하신다. 1000년 전 우리나라 구법승들을 기꺼이 제자로 맞아주었으니 뒷사람이 차 한 잔으로나마 정성을 보이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싶어서다. 각정 스님이 다완에 말차를 넣고 다선(茶筅)으로 휘저어 격불(擊拂)을 한다. 사리탑 앞에서 한 잔의 차향이 이미 옛길로 통했으니 앙산 선사가 일원상을 그리며 흠향하였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잠시 후에는 나도 음복(飮福)을 한다.〈계속〉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서은사 경내 오른쪽 산자락 위편에 있는 양산 선사 사리탑 가는 길.



신라 출신의 제자를 두어 신라땅까지 위앙종을 퍼지게 한 양산 혜적 선사 사리탑. 수불 스님이 사리탑을 돌고 있다.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ww.yangjikukak.com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www.yjkukak.com
031)793-3906, 011-264-3906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좋은 인연. 멋진 인생

▷전통 예술 : 대금,단소, 태평소, 학춤, 한량무 ...
▷불교 의식 : 예불, 범패, 바라무, 법고 ... ▷전통 무예 : 선무도, 봉술...
위 수행으로 불심을 가꾸어가실 도반을 모십니다
선무도 양산 연수원 010-9314-095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서 류 대 행
전통사찰 등록
종교법인 등록
문화재 등록
011-9476-9001

무형문화재연수원(작법)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찰행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전문교육대학 귀 해동사
무형문화재 제9호 작법무연수원

빙의 퇴마 전문
정신질환, 영가장애,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들, 상담 치료 전문
일주사 주지 일주 합장
061)337-9989
017-624-9989

의사들이 두려워하는 기도, 성취, 영험 도량 각종 난치병, 치매, 사업성취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영가를 쉽게 찾는 방법
띠와 생일만 알면 됩니다
보시금 10만원
영가천도의 간단한 방법
영통을 쉽게 할 수 있는 특수부적,
급 매매 부적, 남녀 이성문제
농협 356-0394-311943 이정화
010-6662-8853

매주 화, 목요일 저녁7시 무료특강
남천홍 역리학원
02)725-6886
영가천도, 가정 사무실 방문 기도함
꿈바위 010-6789-5008

스님 초빙
부산, 대구에서
열심히 할동하실 분
가정과 회사방문
기도 및 상담
대불정능엄신주 기도함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금광 자미두수
신통방통 자미두수
자미두수 별점궁합
저자 : 김정희 원장 직접상담
기업은행 018-097249-01-011
사주,궁합,작명,운세,택일,신생아이름,
개명, 정신질환, 귀신병,우울증,
이명,빙의치료,퇴마치료
02)921-1954 / 018-276-1954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2번출구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50대, 경기도 남양주
016-293-170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011-9514-3721

신심있는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절 관리해 주실 스님)
▷삼척
010-9219-7695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사찰운영 같이 합시다
혼자 절을 가지면 죽을 때 가져갑니까?
잘 되지도 않는 곳에 혼자 절을 지어
짧은세상 어렵게 살지말고 여기 6억원
들여 시내 한편에 목조로 불사를 잘한
이곳에 1억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수행합시
다등기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비구니스님을 원합니다
아니면 노보살님도 괜찮습니다
011-9837-8668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7232-0384

옛날 물건 무조건 삽니다
도자기, 그림,
고가구, 기타
출장 감정 해드립니다.
동진불사
010-8690-9698

부처님의 법문과 말씀을 양식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62세의 목공입니다. 제게 전원주택, 빌라, 상가 등 신축공사나 토목공사를 맡겨 주신다면 신명을 대해 신용과 정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후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10-7640-4404 이창진
수원 장안구 영화동 216-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서구 화곡동
보시금은 상담 후 결정
010-4368-4569

평생을 함께하실 기도스님과 공양주, 화주, 시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41)835-3933
010-8353-3337

사무실 직원 (숙식가능 자) 구함
미국 LA사찰에서
부전사실 스님 모십니다
010-5792-30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65세, 보시금 상담 후
010-2068-0081

기도하실 비구니스님 부전(비구)스님 모십니다
기도시간 : 아침, 사시
▷부산 가야 대원사
051)891-7255
051)891-1051

전통 염불 배우면서 부전사실 스님 모십니다
▷50세 미만, 비구
▷마산
016-428-6665

지리산 청정도량에서 같이 살 인연을 찾습니다 (스님, 처사)
몸이 불편하신 분도
괜찮습니다.
011-315-3041

부전스님 모십니다
▷양산
011-574-3303

천리안 투시 기도
• 전수받기를 원하는 스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130-1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청소년 빙의
100% 치유
학업성적향상
부처골 지장선원
www. jijangsw.com
054)383-8553
* 퇴마의식 비법전수 *

큰법력으로 사물,바라무,살풀이무,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과 한문을 능통하게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천도하게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49재, 구병시식 및 불상 불화 점안과 각종불공의식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011-854-8107
영축산 토방 . 50대 비구승 무불 합장

천도재 49재 각종의식
모든행사는 춤
(가슴의 혼)으로 통합니다.
천수바라, 승무,
살풀이(진혼무), 창작, 극락무
• 법사의식대학
• 무형문화재
• 춤추는포교사 천수화(대구팔공산)
019-506-7552

50대 비구승 입니다
기도 소임처
원합니다
010-8677-3934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마포 도심 포교원)
02)338-2158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미국뉴욕, 중국 칭다오 이집트 카이로 3월 동시모집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화, 금요일 오전, 목요일 저녁 / 주 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입학문의 : 전화 053)474-8228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전화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인터넷 역학(사주)강좌 안내
학습내용 왕초보 입문, 격과 그릇의 이해, 테마별 사주보는 법, 육친 통변의 날개 마음을 보는 사주통변 등 무료강좌 다수
사주 기초부터 고수까지 인터넷 동영상을 통하여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사주보는 눈을 확 틔어 드립니다.
■ 인터넷 창에 '덕연풍수명리학회'를 검색 하세요.
■ http://www.sajuacademy.com
<덕연선생 약력 및 저서>
- 서라벌대학 풍수명리과 교수 역임
- 인터넷 홍익TV 명리학, 구성학 강사
- VJ특공대 이색 역술인 출연
- 다음 N-사주카페지기
- 내가바로 사주왕, 사주여행 저서
덕연풍수명리학회 문의 042)320-2444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렵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자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승복·전통복식 30년
www.kyksb.co.kr
김윤경승복 · 우리 옷
- 30년을 한결같이 전통복식 연구·보급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공장직영,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주요품목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기획상품
(이중직)적삼 바지 ~~150,000원~~ → 80,000원
— 겨울신상품 —
(목화솜누비)적삼 바지 ~~300,000원~~ → 180,000원
(목화솜누비)동방 바지 ~~350,000원~~ → 220,000원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승복관련 기술자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02-495-7779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패션지원센터 903호
서 울 점 :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31 02-2265-2278
제 주 점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416-2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예금주 : 김윤경)

포布기氣법法을 아십니까?
포교활동에 활용되어 왔다하여 포기법(布氣法)이라 불리는 치유법! 50년 전통의 한국기치유연구회에서 그 명맥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포기법은 신비주의의 방술이 아닙니다. 수 많은 이가 말하는 그냥 그런 치유법도 아닙니다.
순수한 보건학문으로써 우리 민족의 스님들이 사용하던 그 치유법입니다.
스님 특별 지도반 및 개인 지도반 운영중
지 도 내 용
- 사기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과 방어력 지도
- 기감을 통한 진단법 전수
- 통증 제어법(요통, 편두통, 생리통, 안면 신경통 등등)
- 원상회복법(척추측만, 디스크, 허리통증 등등)
- 세포재생법(간경화, 화상, 수술 후 빠른 회복 등등)
- 기능조절법(장 기능 정상화, 내분비 기능 정상화, 근육 기능 정상화 등등)
위 증상은 단 몇 번 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 02-3482-5032
(전화상담 시간 : 평일 10:00 ~ 18:00)
한국기치유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www.gihealing.com

공 념 학 당 육임수강생 모집
1. 지금까지 육임을 배우고도 자신이 없어서 육임을 못하시는 분
2. 육임과체가 어렵다고 생각 하시는 분
3. 육임이 잘 맞는지 알지만 어렵워서 육임을 시작못하시는 분
4. 명리나 타학문을 배우고 명확히 점사를 볼 수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분
이런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고 명확한 육임에 엑기스를 추려서 비법강의를 합니다.
엑기스 강의이므로 더 이상 육임 공부가 필요 없도록 지도 합니다.
기간은 3개월 완성이며 3개월 후에는 확실히 육임이 보이게 될것입니다.
육임은 확실히 공부만 되면 수학공식처럼 똑 떨어지는 점사를 알수 있습니다.
■ 초급반 : 수요일 3시 / 수강료 150만원
■ 완성반 : 토요일 (11시반, 오후 5시반) 수강료 100만원
■ 동영상강의 : 80 강 150만원
720 국수 cd 100 만원
공 념 학 당
02)793-7333 / 018-471-6410 용산구 보광동
saju79.com

무아 스님 황토 氣 토굴 최초 공개
- 항암 치료중 면역력이 떨어져 치료에 힘이 들거나 치료 효과가 없는 분 (암, 당뇨, 성인병)
- 수술 후 몸에 기운이 없어 회복이 늦는 분.
- 항생제, 약물과용으로 배독을 해야 되는 분.
- 1회 체험으로 본인이 배독, 면역력이 증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氣 토굴을 만들어 드립니다.
대구 비슬산 약천사
상담문의 011-823-2460 / 053-423-2460

東和임영재선생의 氣.수맥.풍수지리이야기



◆ 수강생모집 ◆
풍수지리,수맥 전문가 양생교육
모집인원: 선착순20명
교육일시: 2011년2월13일 일요일 오전11시 6주코
교육장소: 교대역13번 출구 스타벅스건물 7층
◆ 수맥,풍수지리 상담 ◆
음택, 양택, 재혈,원격감정, tv.출연 이론입증
전화예약 ☎:1644~8457 동화자연지리회 www.dh21.kr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불자정보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 / 상단 돌출 150,000 / 중앙 돌출 500,000 / 하단 먹 7cm 100,000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김해시 어방동 531-5
-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1200만원

011-742-8458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북
- 법 당 : 60평
- 지장전 : 58평
- 요 사 : 80평
- 부 지 : 3,800평
- 가 액 : 28억

- 위치 : 경남 남해(섬)
- 법당및요사:50평
- 부지 15,000평
- 가액 : 5억 5천

- 위치 :강원(동해안지역)
- 법당및요사:50평
- 부지 2,000평
- 가액 : 2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한 국 불 사

- 서울근교 (APT밀집지역, 재래시장근접) 교통주차 편하고 산세수려함
- 대지 약 160평, 2층 목조법당
- 가액: 10억

※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운영 하실분 전화 상담해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 대지 90평, 건평 140평
- 4층건물
- 가액 : 5억 5천
- 절충가능
- 포교원 자리 적합함

011-438-0138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기장읍 아파트주택밀집지역,시장3분거리
- 4층건물 중 2층
- 상단후불탱화,신중탱화,삼존불외지장단
- 법당, 방2, 주방, 화장실, 집기일체
- 주차장완비, 전체평수 약 4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7400-9972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수영구 광안동
- 포교최적지:주택,상가,아파트,관광특구지역
- 대로변 사거리 4층 건물중 2층/실평수 60평
- 시설완벽, 몸만 오시면 됨.
- 본존 아미타 삼존불, 약사, 지장, 칠성등
- 보증금 1000만,월80만 (조정가)
- 법당,공양간,종무실-집기,비품 일체 양도
- 시설비는 답사 후 결정

010-6589-6789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1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평
- 가액 : 6억
- 위치 : 경기
- 부지 : 8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50평
- 가액 : 18억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위탁알선판매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및 토 굴 안 내

양산 신도시 부근 사찰

- 총 대지 : 약 1500평
- 법당 35평(전통와가 5포 7포)
- 요사채 80평(방 10칸),대종각
- 부산근교 신도시, 산세수려,계곡물 철철
- 주차장 300평, 텃밭 400평
- 총금액 : 13억

부산 강서 아름다운 절

- 총대지 : 384평
- 법당(신축)약 40평, 요사, 방3칸, 지장전, 산신각
- 단청완료, 주차장 300대
- 가액: 5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절(사찰)요양시설

복 지 시 설

- 경남 산청
- 농장, 약초재배단지 다용도
- 3만 5천평
- 가액:17억 5천만원

02)739-5008

부산시내최고중심가

- 평수 4층 약 40평 종무실
- 5층 요사채 30평,
- 큰방4, 주방
- 시설비 상담후 절충
- 보증금 1천만원,월 50만원

010-4840-3939

절(사찰)별장하실분

- 경남 합천군 삼가면 대지 4300평
- 전통한옥3채, 황토집4채,화장실
- 대나무산책로및 최고의조경
- 교통요충지,주변환경좋음
- 총35억 가격절충및 분활판매가능
- 사찰및 연수원, 전통식품업 최적
- 네이버[연꽃인연]검색후연락바랍

010-9333-8818
010-3521-693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주시 완산구 완산초등학교 맞은편
- 대지 50평, 법당 12평
- 방3칸, 주방, 화장실 2칸
- 삼존불 등 집기일절
- 가액:5천만원
- 스님 서울이동 관계로 급양도

011-1776-992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의정부 역앞, 재래시장 입구
- 4층건물 중 4층, 40평
- 삼존불, 방3개, 욕실1, 주방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 모든시설 A급
- 시설비 2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031)821-8893
010-7576-8893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양천구 신월4동
- 2층 건물중 2층
- 법당20평,방1,화장실1,주방1
- 포교원 개원하지 3개월 정도
- 시설비 1천5백만원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 특징: 양쪽 재래시장 있음 건강상 (급)양도, 유동인구 많음

010-3827-6869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근교
- 대지 133평, 삼존불, 약사여래불
- 법당 약 20평, 산신각, 요사채
- 살림가능, 즉시법회가능 시설완비
- 가액: 1억 7천만원(조절가능)

010-8993-3596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 4층건물 중 2층 약 40평
- 방3개, 주방, 화장실
- 아미타,관세음대세지,지장,소불250불
- 산신, 용왕, 신장, 칠성탱화, 인등 108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모든시설 A급 시설비 2천만원

010-7550-9797

사찰(급)안내

- 위치: 상봉 터미널 근처 (상봉역에서 가까움)
- 건물: 5층 건물에 2층에 있으며 42평정도
- 방3, 공양간 법당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음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140만원
- 시설비 무료
- 지방에 불사관계로 인해 급 안내 결정.인연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010-9401-40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면소재지 독점
- 자기땅에 자기건물 20평 주차공간 넓음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 원목불단
- 집기 몽땅 넘겨줌, 몸만 오시면 법회함
- 가액 : 4000만원(융자 1200만원 별도)
- 전화 후 방문

055)582-3397
017-722-7757

토 굴 터 안 내

- 위치: 거창군 가북면 중감마을에서 500M
- 현재 묵은 논, 2필지, 1017평
- 남향, 해인사 뒷산
- 깊은 산속 시원한 계곡물
- 가액: 2천 5백만원

011-9393-496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6000평, 실등기 5000평)
- 대지(종교용지)약 700평 어떤행위던 허가 나는 준보전 임야 4300평
- 법당(목조) 약 20평
- 산신각(5평), 요사채(약40평) 2동중 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4억

011-816-9104
010-3815-9104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시 포항근교
- 법당 목조 20평
- 요사채 40평
- 지하수, 심야전기
- 건평 680평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2510-095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사무실1, 방 6개
- 시설 최상급1억 2천 투자했음
- 보증금 3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저렴. 상담 후 절충

010-4199-0047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북 청도군 운문면
- 법당,산신각,요사채,화장실
- 대지(전)1,012평
- 운문댐근교,주차시설용이
- 50여년된 작은 고찰
- 가액 1억5천만원

011-504-432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시 쌍문1동
- 우이천 바로 앞, 차도 5분거리
- 법당1, 방1, 거실겸 주방 화장실
- 약 15평
- 보증금 1500만원 월 25만원

010-5470-189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시장앞
- 건물 4층. 요사 3층 법당 23평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시설비1,000만원 월 40만원

070-8842-610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약 160평
- 건평 80평(1,2층)
-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800만원

010-3302-1821
055)638-1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IC에서 3분거리
- 대지 140평, 주차장완비
- "ㄱ" 자 골기와
- 가액: 1억 8천 5백만원

011-523-888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재송동 재송시장 부근
- 4층건물에 3층
-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완비, 55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9773-8532

좋은절터안내

- 위치: 팔공산갓바위 뒷편 (신녕방향)
- 대지(전), 3500여평
- 상수도보호구역경계선 허가내어지을수있는지역
- 전기시설완비 ,생활가능한 임시거주 가옥도 있음
- 가액: 3억(답사후 절충가능)

010-6253-310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 부지 235(실사용 300평)
- 건평 40평
- 뒤편 산 및 조그마한 계곡
- 가액: 2억 2천만원 (융자 5천5백만원) 가격일부조정가능

010-8550-6552

사찰수련원 복지시설

- 위치 : 종로구 평창동 요지(사찰)
- 건물 50평 1동 외 2동 및 부대시설
- 대지 50평 田320평 시유지 山 사용 500평
- 가액 : 30억

010-2325-1010 이박사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재송동 재송시장 부근
- 4층건물에 3층
-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완비, 55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9773-8532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 4층건물 중 2층 약 40평
- 방3개, 주방, 화장실
- 아미타,관세음대세지,지장,소불250불
- 산신, 용왕, 신장, 칠성탱화, 인등 108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모든시설 A급 시설비 2천만원

010-7550-9797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시 쌍문1동
- 우이천 바로 앞, 차도 5분거리
- 법당1, 방1, 거실겸 주방 화장실
- 약 15평
- 보증금 1500만원 월 25만원

010-5470-189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시장앞
- 건물 4층. 요사 3층 법당 23평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시설비1,000만원 월 40만원

070-8842-6108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분거리 국도 옆)
■ 면 적 : 사찰 전시관 2층(신축) 240평 외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대중공양실,기념품판매장 총 2,200평 , 산 1만 5천평 포함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 좌불(목불), 국내최대 관음목불입상, 50여점 크리스탈개금불, 천여점 희귀불상 전시(국내최대전시장), 외관벽 일체 크리스탈 장실 만다라 액자로 장식
■ 연간 5만명 참배, 천도재 월 10건이상
■ 전시관에 전시중인 크리스탈 개금불은 주지스님이 10여년간에 걸쳐 조성한 창작개금불로서 일본으로부터 불교예술의 새 역사를 연 작품으로 호평 받고 있으며, 절대 모방이 불가능한 불상이며 참배하시는분께도 황홀함이 빠져드는 작품으로서 TV방송 등 총 18회 방영된 바 있습니다.
■ 양도가 : 35억 가능
■ 사찰내역은 인터넷상에 포항 성취관을 입력하십시오.
■ 연락처 : 054)249-1023
휴. 010-4504-0174
■ 자금력 있으신 대덕스님께서 운영하면 대 성공을 확신합니다.

사찰대출안내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0년 전통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사찰 전문 은행이란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전국의 많은 사찰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찰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웠습니다만 저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사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 할 수 있으며 도와드리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족한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1. 대출이자는 1억원 대출시 월62만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
2. 대출상환은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개인명의 뿐아니라 단체명의 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상무 이강욱

☎ 상무 이강욱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016-9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서래암
- 주 지 : 여명
- 주 소 : 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 448-31번지 2층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6일

한국불교동방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법화정사
- 주 지 : 보현 (허애숙)
- 주 소 : 부산시 사하구 괘법동 157-1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6일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몸에서 독 빼내면 살도 빠진다

디톡스 다이어트

자신에게 죄를 짓는 가장 보편적인 죄 중 하나가 과식과 폭식입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 게으르게 되고, 게으르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정신과 마음을 다스리는 가르침은 식욕을 억제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톨스토이-

신년계획 잘 되고 계십니까?

유태우 예방의학 박사는 '누구나 10kg 뺄 수 있다'고 말하고 130kg의 국가대표 레슬링선수 김민철은 60kg을 감량하고 슈퍼모델의 꿈을 이뤘다. 이렇게 극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추운날씨에도 무작정 운동부터 시작하려고 한다거나 지금 당장 식사패턴을 송두리째 바꿔 토끼처럼 풀만 먹겠다고 계획을 세우면 '작심삼일'에 끝나기 십상이다. 정신적·육체적 디톡스로 몸과 마음의 안정과 균형을 잡는 것이 체중감량의 첫 걸음이다.

정신적인 디톡스

디톡스란 원래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개선해 스트레스를 낮춰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자연의치유력을 향상시키는 해독과 치유를 뜻하는 말이다. 정신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것을 탐내고 욕심낸다. 탐욕은 영혼을 갉아먹는 독(毒)이 된다.

▶맛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비만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면 집착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 법륜 스님은 〈행복한 출근길〉에서 "배는 부담스러워하고 몸에서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혓바닥이 맛에 집착해서 몸을 생각하지 않고 꾸역꾸역 먹다보면 과식하게 되는데, 이것이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라고 말했다. 지구촌 인구 중 9억 명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지금 내가 먹는 음식에 감사하고 천천히 씹고 느끼면서 식사하면 과식할 일도 폭식할 일도 사라질 것이다.

▶생활을 간소화하자

우리 주변에는 독이 가득하다. 10년 전에 산 클래식 CD, 3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는 옷들, 언제 사용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해묵은 그릇까지 집안을 둘러보면 꼭 필요한 물건보다 버리지 못해 갖고 있는 물건이 많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몸을 둘러싼 환경을 해독해 생활을 단순화하는 것이 정신적 여유를 가져다주는 디톡스적인 삶이다.



▶명상과 요가를 통한 스트레스 관리

추운겨울에는 실외운동보다는 실내에서 요가와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털어내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나가야 된다면 그것이 벌써 마음의 짐이 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인 콘티솔(Cortisol)은 식욕이 증가시켜 살이 찌게 한다.

집안에서 맨손체조와 요가로 몸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명상을 하자. 일상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풀고 실천하지 못한 계획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진다.

육체적인 디톡스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 동맥경화가 오듯이 우리 몸의 주요 대사를 책임지는 위, 간, 장에도 노폐물이 쌓이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온갖 방법의 해독도 일시적일 뿐 유지 되지 않는다.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과, 식생활 개선, 생활습관의 변화 등 생활 전반의 개선이 요구 된다.

▶해독 식품만 먹어도 5kg 빠진다

섭생이 중요하다. 패스트푸드와 기름에 범벅이된 가공식품들은 위와 장에 남아 독소를 만들어낸다. 몸이 무겁고 나른하며 이유 없이 피곤하고 몸 여기저기에 군살이 붙는 이유이다. 몸에 지방분해를 돕고 농약, 니코틴 등 노폐물들을 흡착해서 배출을 돕는 식품들이 있다.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식품들이다. 하루에 한가지씩이라도 꾸준히 섭취해보자.

해독 식품

마늘, 생강, 양파, 양배추, 배추, 토마토, 브로콜리, 감자, 미나리, 시금치, 쑥, 녹차, 콩, 미역, 다시마, 굴

▶보약은 참기름처럼

비빔밥에 참기름은 한 방울 넣으면 향기롭고 맛있어진다. 그러나 맛있다고 참기름을 한 국자씩 넣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중 약의 비율은 참기름정도여야 한다. 좋은 약이라고 보약만 먹는 것은 안좋다.

▶한 번에 쉼 없이 50분 걷기

땀을 흠뻑 흘리는 운동을 하고 나면 살이 많이 빠질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 쉽다. 그러나 이봉주 선수처럼 42km 마라톤을 완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운동을 통해서 소모되는 칼로리는 생각만큼 크지 않다. 65kg성인 기준으로 1시간 동안 자전거를 탔을 때 390kcal를 소모된다. 반면, 김밥 한 줄의 칼로리는 446kcal이다.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운동은 하루 한 시간 걷기가 가장 적당한 운동이라고 류민철 한의사는 조언한다.

▶점심 한 끼는 100% 채식으로

우리도 모르게 섭취하는 동물성 지방이 많다. 프라이드치킨, 자장면, 햄버거, 피자에만 동물성 지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곰탕, 내장탕, 곱창 등 동물의 내장이 들어가는 모든 음식들이 콜레스톨과 중성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다. 저녁에는 회식이나 약속으로 꼭 식사를 해야만 할 경우가 많다. 점심 한 끼라도 100% 채식에 도전해 올해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보자.

궁금증 몇 가지

▶한약 오래 먹으면 간에 무리가 온다던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간 기능 회복을 위해 한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디톡스 다이어트를 할 때도 가장 집중해서 치료하는 곳이 간이다. 간을 해독하고 제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처방이 간에 무리를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보약 먹으면 살찐다?

살이 찌는 원인은 몸 안에 대가사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다. 기운이 쇠한 장기의 기를 북돋아주는 보약은 살을 빠지게 한다.

디톡스란?

디톡시퍼케이션(Detoxification)에서 나온 말로 '해독'을 의미한다. 몸에 쌓인 독성 물질과 노폐물을 배출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대체 의학의 하나이다.

천진영 기자 chun4q@gmail.com



독 빼고 살 빼는 디톡스 다이어트

물만 먹어도 살찐 다는 사람 여기 모여라. 뱃살의 주범은 내 몸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이다. 비만은 근본적으로 몸속의 정체현상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체중을 감량하고 싶다면 먼저 디톡스 해야 한다. 혼자서도 해독 할 수 있는 식단과 내장마시지, 경혈 마사지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가지고자 하는 사람의 가이드가 될 것이다.

장재식 · 류민철 · 김진혁 공저 | 살림출판사

류민철 한의사는…

동신대 한의대를 졸업했으며 디톡스 다이어트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독빼고 살빼는 디톡스 다이어트〉의 저자이기도하다. 대한한방 · 비만 · 약침 · 부인과 · 소아과 · 내과 학회 회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현재 동원美's 한의원 명동점 원장으로 야구선수 류현진, 이범호 선수의 치료를 맡고 있다.

홈페이지 www.dwmiz.com



건강한 마음, 행복한 人生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한가?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치료가 될 수 있듯이 내가 늘 고통스럽고 우울한 이유를 알아야 지만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

항상 매사가 짜증이고 불평불만인 우리네 삶의 반대는 매사가 감사하고 행복충만인 삶이다. 그러므로 늘 감사함을 느낀다면 우리는 저절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감사함이란 감정이 말처럼 쉽게 그리 매사에, 범사에 잘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한가? 결국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가? 지금 이 순간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고 함께 하는 이 상황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매 순간순간 숨 쉬고 있는 나, 사지 멀쩡하게 나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는 나, 무언가를 일할 수 있는 나, 미우나 고우나 나의 옆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들, 좋든 안좋든 두다리 펴고 편히 쉴 수 있는 바로 이 공간. 이 세상에는 많은 화나고 짜증나고 괴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롭게 여겨야 하는 상황들이 많다.

괴로워 한들 변하지 않는다
불만족과 감사함의 선택에
우울함과 행복함이 결정된다

중요한 것은 단지, 나의 포커스를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집중하느냐, 나의 포커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상황에 집중하느냐의 차이다.

내가 울고불고 난리를 친들, 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열 받아 한들, 내가 죽을 듯이 괴로워한들 나의 현재 조건은 순간적으로 변하거나 갑자기 뿅! 하고 드라마틱한 환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왜 되지도 않을 일에 연연하며,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소진시키며 우울하게 내 인생을 허비하고 앉아 있을 것인가?

우울함과 행복함의 선택은 상황과 조건이 내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우울함에 집중하느냐 감사함에 집중하느냐의 차이다. 환자분들과 상담시 늘 하는 말 중 하나.

필자가 "다녀가신 후 컨디션이 어떠신가요?", "기분은 어떠셔요?"라고 물으면 대부분 환자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여전히 머리도 약간 아프고, 잠도 잘 안 오고, 몸에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뭣도 안 좋고, 뭐도 안좋고…."

"그럼 좋아진 건 뭐가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근데, 먹던 약의 양은 줄었고, 완전히 끊으면 좋겠고요, 뭔가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약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약을 줄이니 식욕도 돌아온 것 같고 사람들이 다들 저보고 얼굴이 밝아졌다고는 하네요."

"네. 정말 아주 잘됐네요. 머리도 예전만큼 아프시고 잠도 예전만큼 안오시는건가요?"

"아뇨. 머리가 아직 약간 아프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아프지는 않고요, 잠도 예전보다는 잘자요."

"듣던 중 반가운 얘기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네 그럼 여전히 아픈 점과, 예전에 비해 좋아진 점 어떤 것이 더 소중한 비중을 차지하실까요?"

"사실 뭐, 여전히 아픈 점에 비하면 좋아진 점이 훨씬 기분 좋고 중요하지요."

바로 이것이다. 나빠진 것, 안좋은 상황, 우울한 기분에 집중하지 말고, 좋아진 것, 나는 상황, 즐거운 기분에 집중해야 한다.

이 세상에 100% 안 좋고 괴로운 점으로만 가득한 사람, 100% 좋고 행복한 점으로만 가득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그 비율이 어찌됐던(물론 좋은 점의 비율이 더 크게 차지한다면 더욱 땡큐이지만) 인생이 행복하다, 불행하다의 차이는 내가 어느 곳에 더 집중해 감사함을 느끼느냐 안느끼느냐의 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순간의 당연함은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 아니요, 너무나 감사함 그 자체라는 사실이다.



카루나마인드힐링연구소 박지숙 소장

성명을 통변 위주로 공부한다!!
12기생 모집을 위한
무료 공개 강의
2월 6일(일) 오전 11시
구궁성명학 • 이름에 관한 모든 것

■ 이런분은 꼭 들으세요
·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친 분 :
성명학 5개월 후 부터는 수입이 생기는 방법이 있다.
· 역학관 개업을 앞두고 계신 분 :
사주보다 쉽고 확실한 통변술이 여기 있다.
· 돈을 벌면서 역학공부를 하실 분
· 완벽한 노후 준비를 원하시는 분
· 역학을 5~10년을 해도 통변이 안되는 분

※수료와 동시에 성명학 감정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개업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한국 최초의 구궁성명학으로써 사주보다 정확한 통변으로 고객층을 두텁게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흔한 원형이정이나 파동이 아니고, 사주의 용신을 보안하고 공망과 태과한 오행을 피하며 육수와 납갑을 붙여 운의 흐름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성명학을 강의합니다.

좋은이름연구원 원장 송학 남상규
(3,6호선 연신내역 7번출구 도보 1분거리)
02)383-8860 / 010-7701-2248
NAVER 은평구 작명 www.goodname114.com

무료 수강생 모집
"아는 것이 힘이요, 기술이 능력이다.
이것이 재력이다"
이 기술은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통증관리사** 등 건강과 관련한 직종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우리 인체의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이다.
(각종 두통, 목이나 허리 디스크, 척추 전만 후만 측만증, 척추 협착증, 오십견 각종 어깨의 통증, 팔을 들지 못하는 증, 팔의 회전이 어려운증 등 골반이 변위되어 각종 통증이 발생한 경우, 몸이 한편으로 기우는 경우, 장단족, 무릎이나 발목의 변위로 발생하는 각종 통증 등 1000여종이 넘는 수많은 외과적인 질병들이 즉석에서 회복하는 것을 직접 실기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여 드림)

■ 효과는 마약이나 진통제보다 빠르게 즉석에서 효력을 알 수 있음.
■ 부작용은 단 1%로도 없음.
■ 도구가 필요하지 않음.
■ 이 기술은 경락의 이름이나, 근육의 명칭이나, 골격의 명칭이나, 병명을 몰라도 치료되는 기술이라 배우기가 너무나 쉬워 배우면 즉석에서 활용하는 기술임.
■ 시술 시에 힘이 들지 않아 하루 수십명도 시술이 가능함.
■ 이 기술을 배운 후 취업이나 창업도 지원함.

원심한의원 051)802-0661
원심수기 보존회장 원공 019-305-9138

바른정법.바른인연
부처님의 정법 (경전 및 조사어록)만을 고집하는 수행 납자입니다. 이제 새로운 터를 마련하여 대웅전(법당)을 건립하고저 하오니 불사에 동참할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재, 부적, 철학, 조류방생, 인등, 합격의 등, 사업성취등의 일체 기복을 사절하오며, 시한부 암환자나 희귀병자, 신병등의 환자분들과 **인간 방생의 인연을 짓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타 종교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서울에서의 도량에서 소리 소문없이 정법의 기도로서 지난 십 수년간 책을 내고도 남을 만한 많은 분들이 병석에서 일어나 각자 새 삶을 얻어 생활 터전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 언제든지 확인 가능함 -
법회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합니다.
(현재는 천일기도 및 동안거 백일기도중)
불.법.승. 정법.실천도량
연등사 (선재불교대학) 대중일동
주소 :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11-1
전화 : 055)633-6555

3000배 용맹정진
청견스님 700만 배
절수행의 지혜로운 에너지!
부처님 크신 은혜 가피로 고통 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건강을 회복하고,
소원을 성취한 가슴 찡한~
감동의 기적같은 엄청난 체험이 많습니다.
업장소멸의 관건은 지극하고 간절한 성스러움과
최고의 공경심으로 절하며, 전신의 노폐물, 독소, 나쁜 기운의 땀을 흘리면 괴로운 맘 소멸되고...
소원성취는 해맑게 미소 짓는 기쁜 얼굴로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대긍정의 감사염송을 온 몸과 맘에 가득 채우며 절하면 100% 성취된다.
◆날 짜 : 2011년 1월 29일(토) 저녁 9시~
2011년 1월 30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필수준비물)
수련복:100% 면 소재 흰색상의, 회색법복 · 조끼,
방수포(신규동참자는 선물), 기도포(방석을 덮을 큰수건),
땀 닦는 수건, 면양말 2켤레, 발로해(절수행 특수 덧신),
면장갑2개, 위생비닐장갑1, 목수건
◆장 소 : 법왕정사 서울숲 법당 ☎02)456-0035
☞전철: 2호선 뚝섬역 8번출구 직진 30m 좌회전
직진 150m 하나은행 5층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왕정사**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계룡산에 중악단. 나라의 위급함이 있을 때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서 묘향산에 상악단, 계룡산에 중악단, 지리산에 하악단을 뒀다.

최연의 산 이야기〈40〉 계룡산 2

계룡산은 나라의 근심도 덜어주었다

계룡산(鷄龍山)은 우리 민족이 숭상해 온 성스러운 산이다.

신라시대에는 북쪽의 백두산(白頭山), 남쪽의 지리산(智異山), 동쪽의 금강산(金剛山), 서쪽의 묘향산(妙香山)과 더불어 중앙의 계룡산을 더하여 천제(天祭)를 지냈던 오악(五岳)의 하나였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성스러운 땅을 가리켜 '겨릅'이라고 하였는데, 계룡이라는 이름도 '겨릅'에서 나왔다. 겨릅이란 껍질을 벗긴 삼대(麻臺)를 의미한다. 삼대에서 유래된 지명은 여럿이 있다.

겨릅을 음역해서 계룡산의 '계룡(鷄龍)' 문경 계립령의 '계립(鷄立)' 경주 계림의 '계림(鷄林)' 등으로 표기했다. 의역(意譯)할 때는 마골령(마골령 : 계립령의 별칭)의 '마골(麻骨)' 마곡사의 '마곡(麻谷)' 등으로 표기했다.

계룡산은 풍수지리적으로 주봉인 상제봉(上帝峰)이 주산이 되고 동쪽의 금계산(金鷄山)이 좌청룡(左青龍), 서쪽의 일룡산(日龍山)이 우백호(右白虎)를 이루고 있다. '계(鷄)'와 '용(龍)'과 '제(帝)'를 구비하고 있으니 계림(鷄林)에 군주(龍)가 제위(帝位)에 오른다는 풀이가 된다.

이처럼 계룡산은 성스러운 산, 군주(君主)가 제위에 오르는 산으로 숭상 받았다.

계룡산은 사방 어디에서 바라보아도 산세가 빼어난데 〈택리지(擇里志)〉에서는 4대 명산(名山)으로 꼽고 있다.

"산 모양은 반드시 수려(秀麗)한 돌로 된 봉우리라야 산이 수려하고 물 또한 맑다. 그리고 반드시 강이나 바다가 서로 모이는 곳에 터가 되어야 큰 힘(力量)이 있다. 이와 같은 곳이 나라 안에는 네 곳이 있다. 개성(開城)의 오관산(五冠山), 한양의(漢陽)의 삼각산(三角山), 진잠(鎭岑)의 계룡산(鷄龍山), 문화(文化)의 구월산(九月山)이다."

이처럼 빼어난 산세에는 명찰(名刹)이 자리 잡고 있기 마련이다.

계룡산 서남쪽에는 신원사(新元寺)라는 고찰이 있다. 서북쪽에는 갑사(甲寺)가, 동쪽에는 동학사(東學寺)가, 북쪽 기슭에는 구룡사(九龍寺)라는 대찰(大刹)이 있었는데 구룡사는 폐찰되고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다.

신원사(新元寺)는 백제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신원사'는 '새롭게 으뜸이 된다'는 뜻인데 후천개벽(後天開闢)을 열망하는 민중의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런지.

신원사의 주산은 선인(仙人)이 무릎에 손을 얹고 단정히 앉아 있는 형상이고, 신원사 앞쪽에 있는 두 봉우리는 선인을 따라다니는 동자들의 형상이다.

선인봉(仙人峯)과 동자봉(童子峯)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 신원사 터는 선인단좌형(仙人端座形) 명당임에 틀림이 없다.

신원사 부속 건물 중에는 중악단(中嶽壇)이라고 불리는 산신각(山神閣)이 있다. 본당(本堂)에 요사채까지 딸린 여느 사찰 규모와 같지만 이곳은 신라시대부터 산신제(山神祭)를 올리던 곳이다.

나라의 위급함이 있을 때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서 3대 산신단(山神壇)을 설치했는데 상악단(上嶽壇)을 묘향산에, 중악단(中嶽壇)을 계룡산에, 하악단(下嶽壇)을 지리산에 두었다.

조선 초기에는 태조 이성계가 이곳에 직접 와서 산신제를 지냈고 조선 말기에는 명성황후가 기울어 가는 조선 왕조를 다시 일으키고자 산신께 큰 제사를 올렸다.

지리산 하악단은 터만 남아 있고, 묘향산 상악단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

갑사(甲寺)는 계룡산에서 제일 규모가 큰 가람인데 창건 당시는 '산허리 갑(岬)'자였는데 의상대사가 '비롯할 갑(甲)'자로 고쳤다. 비롯할 갑자는 처음, 첫째, 으뜸의 뜻도 포함하고 있다.

성스러운 기상이 으뜸으로 서려 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갑사 터의 형국(形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용형(龍形)이라고도 하고 금계형(金鷄形)이라고도 하고 자미원국(紫薇垣局)이라고도 한다.

자미원이란 북두칠성 옆에 자리한 삼태성(三台星)으로 동양의 천문학에서는 천제(天帝)의 침궁(寢宮)을 일컫는다.

갑사의 주산은 세 봉우리가 나란히 서 있는데 이것이 삼태성이다. 도인과 성자가 많이 나오는 터라서 신라시대에는 화엄(華嚴) 10찰의 하나로 명성을 떨쳤다.

동학사는 비구니 수행도량으로 학이 알을 품은 형국인 비학포란형(飛鶴抱卵形)이다. 주산인 삼불봉(三佛峰)이 크고 힘찬 학처럼 생겼고 맞은편에 알의 형상을 한 둥그런 봉우리가 불쑥 솟아 있다. 동학사 터는 본래 경허 스님이 움막을 짓고 수행하던 곳으로 그 기상을 이어 받아 지금도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정진 중이다.

구룡사는 상신 마을에 있었는데 지금은 절터에 마을이 들어서고 한쪽이 깨진 당간지주가 절터임을 암시하고 있다.

상신마을은 9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다투는 형국인 구룡쟁주형(九龍爭珠形)인데 상신마을을 한가운데 동그란 봉우리가 여의주이다.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신년 선물

"싸고 좋은 갤로퍼가 나왔는데, 끌고 갈 테니 한 번 구경 좀 하시죠."

싸고 상태도 좋다니 안 살 이유가 없었으나 연식을 물어보고서 주저하는 마음이 일었다. 1995년이라. 나이가 15살이 넘었지 않은가?

"이거 가지고 있던 사람이 카센터를 하는데 꼼꼼히도 고쳐 놨더라구요. 엔진 소리 좋고 기어도 잘 들어가고 충돌한 흔적도 없고, 한 4, 5년은 별 지장 없이 탈 수 있을 겁니다. 딱 보고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왔죠."

한때 공업사도 운영했고, 택시회사도 운영했으니 차를 보는 안목만큼은 믿어도 좋을 사람이었다.

함께 온 오 씨의 말을 따라 내가 운전대를 잡고 산봉우리 근처의 절 입구까지 올라가 보기로 했다. 4륜 기어를 넣고 바퀴로 전해지는 차체의 무게감과 구르는 힘을 전해 받으며 산 위로 차를 몰았다. 얼어붙은 길을 지나 경사가 심한 비포장 등성이 길로 접어들어 2단 기어를 넣고 가속페달을 밟았다. 눈이 쌓인 가운데 듬성듬성 돋아난 돌들만 보이는 길을 차는 거침없이 올라갔다.

망경사에 올라 멀리 굽이굽이 물결치는 산맥들과 산 사이를 흐르는 강줄기와 장난감처럼 다가오는 집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차를 타고 내려오는 길은 몸도 마음도 가뿐해서 좋았다. 힘들이지 않고 무엇인가를 가볍게 한다는 것도 꽤 기분이 좋은 일이었다.

"핸들이 좀 떨리더라구. 잘못하다 고속도로 같은 데서 큰 일 날 수 있다니까."

함께 온 오 씨가 미덥지 못한 현상을 얘기한다. 오 씨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보험료 외에 승용차 세금이 6개월에 30~40만 원이 나온다 하니 선택하기가 어려웠다. 트럭을 이용하면서 2~3만 원 세금을 내는 것과 비교하니 차를 살 마음이 멀어졌다.

'마음에 차지 않으니 갖고 가라'는 것도 병
마음이 정리되니 고마운 마음이 일었다

"세금이 비싸고 핸들도 문제가 있으니 밴 2인승으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오 씨는 다른 걸 알아보자며 방향을 틀었다. 문제는 차를 가지고 온 장 씨였다. 장 씨는 카센터 사람이 잘 아는 동생이라며 연신 차 상태가 좋다고 얘기했다. 차를 다시 가지고 돌아가는 장 씨의 모습이 그려지니 못내 못할 짓을 하는 것만 같았다.

어디 괜찮은 '지프차'가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했던 게 몇 주 전이었다. 아내가 방과 후 학교 강사 등으로 바깥일을 하면서 차를 사용하게 되자 내가 움직일 방법이 만만치 않았다. 버스시간에 맞추다보니 길에 뿌려지는 시간도 많았고 내 필요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작년에 도서관 문예창작 강사로 1주일에 두 번 강의를 다닐 때도 차의 필요성을 누누이 느끼곤 했다.

작년과 올해 연이어서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 눈도 나를 흔들었다. 눈이 녹다 얼어 산길이 빙판으로 변하는 일이 곧잘 벌어졌다. 때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집까지 오는 길에 모래를 뿌리곤 하면서 고물 지프차라도 하나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얼추 굳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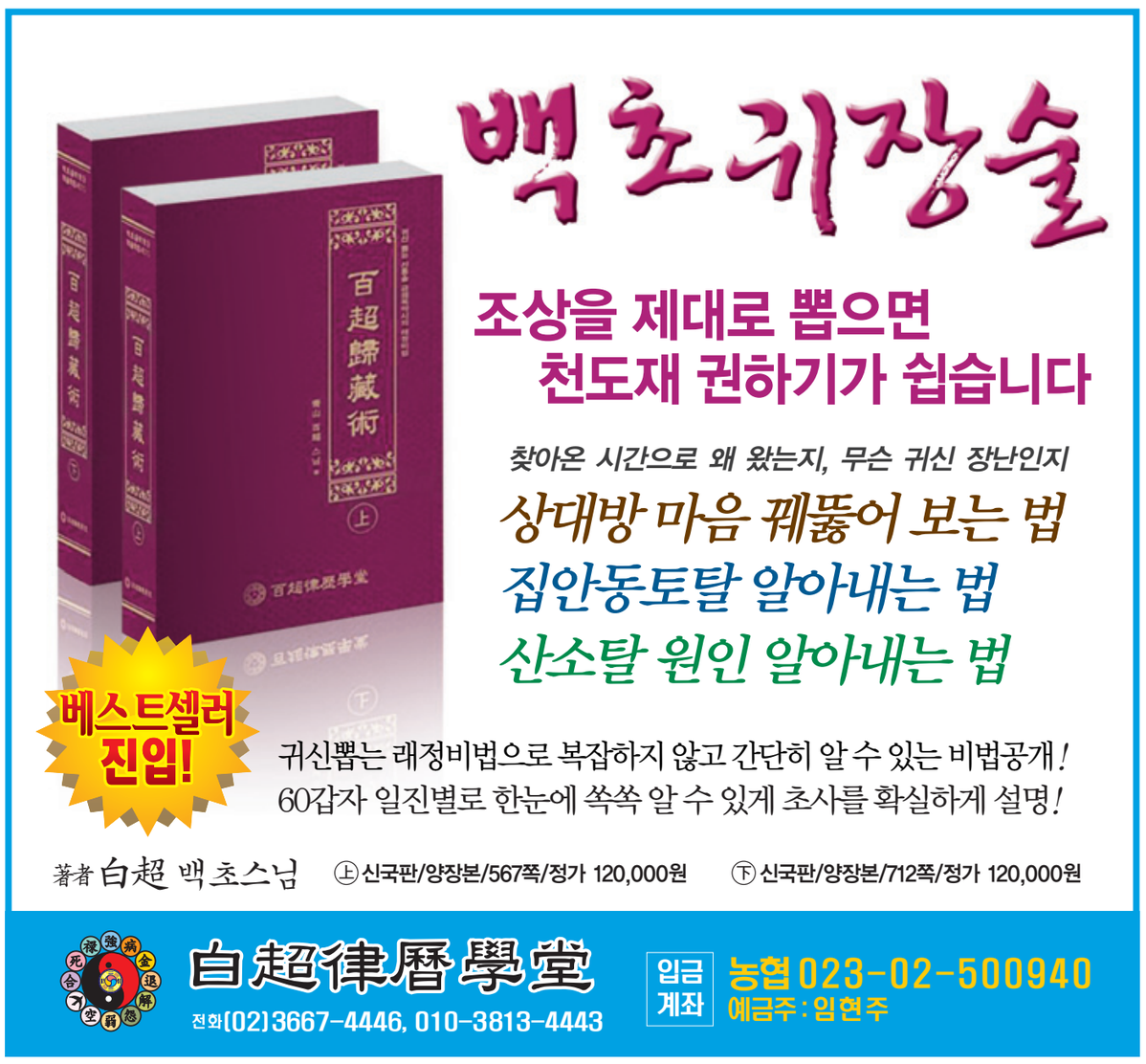
내 말을 잊지 않고 괜찮아 보인 차를 직접 끌고 찾아온 사람에게, '마음에 차지 않으니 갖고 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것도 병이지' 싶은 마음이 일었으나, 상대방이 나를 생각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근처에 닿는 결정을 내려야 마음이 나마 편할 것 같았다. 눈이 내려 길에 얼어붙은 날들 속에서, 트럭을 몰다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사고 하나쯤 방지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자동차 값 200백만 원은 빠질 일이었다. 마음이 정리되니, 신년 선물로 '지프차'를 구해준 사람에게 뒤늦게나마 고마운 마음이 일었다.



(지난 1년 동안 못난 글을 읽어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산들산들 봄바람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인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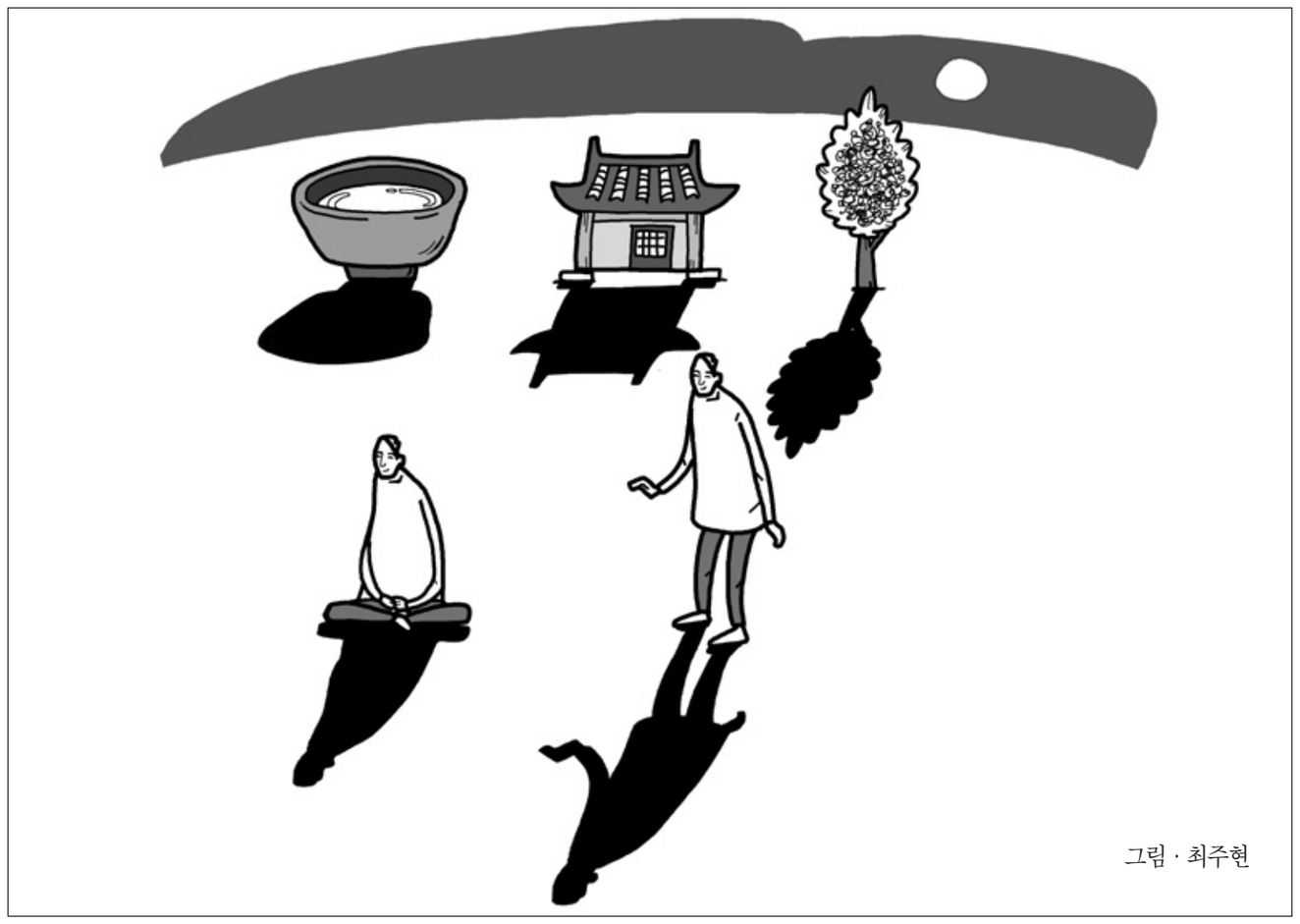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서 너부터 찾아라

(지난 호에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바람과 물과 흙이 따로따로 있다 하더라도, 흙 하나만 봐도 지수화풍입니다.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맥이 통하듯이 흙이라는 산하대지가 전체의 물그릇이에요, 물그릇. 물그릇이자 바로 그게 맥을 이어 주는, 즉 말하자면 우리의 피가 돌듯 모든 물이 흙의 세포에 충전되고 있죠. 그러니 이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니 내 몸의 섭류를 알면 삼천대천세계 우주 천하를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도 주인공 뿌리 하나가 있듯이 은하계에도 큰 블랙홀이라는 별이 그 은하계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주가 탄생하는 것도 그 가운데는 근본 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셋이 한데 합쳐서, 그거 뭡니까? 돌아가게 하는 거, 하여튼 기계를 돌리려면 조그만 구슬이 거기 들어가서 그게 돌아가야만이 다 돌아가듯, 그렇게 돌아가야만이 우주가 별성을 낳고, 또 들이고 낳고 또 들이고 낳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는다고 하더라도 죽는 게 아니라 삶의 의식들이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지고 그 원근본과 자기의 입력된 영혼은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있기 때문에 더하고 덜함이 없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되는 거죠.

차원이 그렇다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왜, 이런 게 있죠. 깨라든가 콩이 심어져서 열매를 맺으면 그 콩 줄기나 잎은 다 죽어 버리고 씨만 나오죠. 씨 하나만 나온 것을 조금 쉬었다가는 그 이듬해 봄에 그 씨를 심으면 다시 그 싹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도 죽으면 잠시 눈에 보이지 않았다가 그 차원의 종자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지옥 천당이 따로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경찰서로 해서 법정에 들어가서 돌아서, 즉 차원대로 콩씨는 콩씨대로 심어져 나가고…, 아주 똑바로 얘기하자면 자기가 개같이 살았으면 개로 모습을 가지고 나올 거고 독사같이 살았으면 독사로 태어나기도 하고, 차원이 말입니다.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모습을 쓰고 나올 때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한 번 바뀌어서 말입니다. 화해서 나오는 거죠. 그게 이해가 안 가시겠죠?


그림 · 최주현

옛날에 이런 예가 있었죠. 사람이 죽으면 재를 곱게 해서 놓기도 하고 쌀을 곱게 해서 놓기도 하고 밀가루를 곱게 해서 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뭐가 됐나 하고 그 발자취를 보죠. 뱀이 지나간 자리가 있기도 하고 사람의 발자취가 있기도 하고 새의 발자취가 있기도 하고 두꺼비 발자취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돼 있죠. 옛날에 저 어려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는 거를 내세우고 모르는 사람을 깔보고 그러는데 내가 전자에, 과거에 몰랐을 때의 내 모습으로 봤으면 다 둥글게 쓸 수 있을 텐데 그냥 요 시대의 요것만 보기 때문에, 넓게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아주 저건 낮고 나는 높아지죠.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를 내 탓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요.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죽어서, 이 죽은 사람들이 모일 때 깡통은 깡통대로 모이고 금은 금방에 모이고 넝마는 넝마전에 모인다는 말을 내가 가끔 합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모여서 사는 것도, 잘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꼭 알아야 할 일입니다. 깡통이 저런 데 버려져 있으면 깡통을 집어서 깡통 모인 데 갖다 놓지 깡통을 집어서 금방으로 디밀진 않습니다. 안 그럴까요? 그리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세요. 배나 사과도 큰 거는 큰 것대로 작은 거는 작은 것대로 골라 놓고, 금은 아무리 하치 않은 금이라도 금방으로 갈 것이고, 넝마는 넝마전으로 갈 것이고, 깡통은 깡통전으로 갈 것이고, 무쇠는 무쇠대로 무쇠전으로 갈 것이고, 사람이 사는 법도에서도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모이고, 스스로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교수는 교수대로 모일 거고 기사는 기사대로 모이고, 안 그렇습니까? 고거 몇 마디만 해도 아시겠죠?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듯이 한 가정을 이룬다 하더라도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살게 마련이거든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부지간이나 부모자식지간이나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이렇게 모두 각각 놀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가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면 자식들은 그걸 배우고 그걸 따라가게 돼 있고, 은연중에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한 깡통이 부슬거린다고 이 깡통이 저쪽 깡통에게 "너는 깡통이 돼서 그래!" 그러고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깡통인데요. 그래서 잘 살고 또 마음의 발전을 이루어서 자유인이 되려면 자식을 원망하지도 말고 부모를 원망하지도 말고 부부지간에 각자 자기를 원망하지도 마시라 이겁니다. 모두가 끼리끼리 차원대로, 5차원이면 5차원대로 만나고 1차원이면 1차원대로 만났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상대가 생겼고 상대가 생겼으니까 말썽이 생긴 거지 내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말썽이 어디 있겠는가. 상대가 어디 있겠는가. 세상이 벌어진 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부처님이 계신 줄 알았겠는가. 죽고 사는 걸, 생사의 모든 거를 알았겠는가. 아무것도 몰랐을 거다. 내가 이 세상에 있으니까 모두를 잘 알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 나서 이 모두를 보고 배우니 일체 만물만생이 다 스승 아님이 하나도 없다 하는 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거룩한 나무가 한 그루 섰을 때에 내가 그걸 보고 좋아하면서 '아하, 저것 참 묘하게 생겼는데….' 하고 쳐다볼 때에 그것도 스승인 것입니다. 발부리가 돌에 차여 발부리가 아파서 '아이고, 아퍼.' 하고 있을 때에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돌부리에 차인 거고 돌부리에 차였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스승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원망을 해요?

그런데 번연히 자기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내가 '나'라고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모든 일을 네 탓으로 알고 네 모습으로 보고 네 아픔으로 보고, 네 부모로 보고 네 자식으로 보고 네 형제로 봐라. 그렇다면 수억겁을 미생물에서부터 거쳐서 진화돼서 사람까지 된 그 역사를 알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없다면 부처님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교라는 자체가, 바로 '불'이라는 것은 만물만생의 근본, 생명의 근본입니다. 풀 한 포기의 생명도 바로 불입니다, 불(佛)! 만물만생이 서로

☞ 26면으로 계속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효능)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전화번호:031)673-1285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당신도 설법을 연수하면
사람 마음을 쉽게 변화 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정체성 확립 및 음성 표정 연출 등 이론과 실습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격려사), 회의, 토론, 최면 등 실습
❖인간관계에 필요 충분조건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교육일정
❖종 합 반 : 5인반, 10인반
❖개인지도 : 1인 개인지도, 2인반, 3인반

연수안내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강 의 : 종 합 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개인지도 - 개인 상담후 강의시간 결정
❖장 소 : 본 연수원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우불 철학박사 김 철 회
사단법인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이사장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韓國說法研修院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구정물을 맑은 물로 대치해서 쓸 줄 알아야

☞ 25면에서 계속

뜻으로 통하고 마음으로 통하고 말로 통하고 통신으로 통하고 이러는 거를 우리들이 스스로 배우는 것이 교입니다. 머리 깎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불교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볼 때도 한 귀퉁이에 국한돼 있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 삼천대천세계가 그대로, 우주 세계가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불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백일기도를 드리겠다고 왔어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지구가 백 일만 돌아가고 그 뒤엔 안 돌아가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왜 백 일만 생각을 하느냐. 무한한 한생각에, 그 깊은 가슴속에, 벼락이 치고 물바다를 이루고 비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내 가죽 속에다가 불을 켠다면 쉬고 자시고도 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영원히 불이 밝아질 텐데 하필이면 왜 백 일만 불을 켜려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것도 거죽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정성스럽게 불을 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처럼 자기가 촛불을 켜고 또 자기가 등잔에다가 불을 켜고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전기 요만하게 해서 갖다가 이름 붙여 놓고 불 켜 놓고 만 당평그렁이로 그냥 돈만 훌쩍 내밀고 가 버리는 거죠. 이것도 정성입니까. 모두가 도깨비장난이지 진실한 인간으로서 행동하는 법이냐 이 소립니다.

전 세계도 물론이거니와 미국에서도 내가 보니까 교회당이 좀 드문드문 비었어요. 비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보니까 성당이 드문드문 비었더라고요. 그래 왜 이러냐고 물었더니 이런 말을 해요. "진짜 본토박이 사람들은 안 나오고, 흑인하고 교포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운영이 되질 않고 그래서 그걸 내놨으니 그걸 사라." 그래요. 그리고 그 양반들과 세미나가 있어서 같이 얘길 해보니까요, 정신계를 연구한답니다. 그래 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배우고 있더라고요. 아시겠어요?

뉴욕에서 이름 있는 가톨릭교 기독교 소임자들이 한 강당에 잔뜩 모여서 나를 불렀어요. 그럴 때 우리 뉴욕의 신도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스님, 가시면 쫓겨납니다." 이거예요. 그래 "왜 그러느냐?" 하니까 뉴욕에 어떤 스님이 한 번 쫓겨났답니다. 그래서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쫓겨나면 어떻고 안 쫓겨나면 어떠냐?" 하고 들어갔죠. 그래서 불교라는 게 어떻다는 거, 한쪽에 국한돼 있는 게 불교가 아니라 전체가 불교라는 자체와, 케네디 대통령 묘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불이 올라오는 그 뜻을 얘기했고, 모든 것을 손살피 얘길 했는데 너무나 기뻐하고 이런 말씀은 듣지 못했다고, 많은 양식을 얻었다고 하면서 좋아서 노비를 두둑하게 주고 먹을 것도 넉넉하게 해 가지고 와서 먹었습니다, 내쫓기기는커녕.

그러니 이 못난 사람이 말을 해도 진리는 하나이지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네들도 진리가 하나인 것은 알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 가톨릭교인 티베트불교도 알라신교도, 여러 분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그전에 독일에서도 세미나가 한 번 있었고 산호세에도 한 번 있었고 이렇게 모두 세미나가 있었는데 상당히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진리가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데는 그게 아니에요, 또. 그럴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봐도 모두가 기복이에요. 타의에서 구해요. 좀 자의에서 구하면 어때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있는 거지 자기가 없다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대 성인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서 너부터 찾아라. 그래야 일체 세계와 우주를, 그 섭류를 다 알 수 있느니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만 불(萬佛)이 안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일불(一佛)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공부를 하세요. 만 불이 있다 하더라도 일 불로 볼 수 있고 네모가 졌더라도 둥글게 쓸 수 있고,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내 모습같이 볼 수 있고, 아무리 하찮은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존중하고 내 생명같이 생각하고 말입니다.

오계의 제일 처음에 불살생이 있죠. 나는 어떤 때 텔레비전에서 산 거를 지느러미는 칼로다가 쓱 도려내고 그냥 각을 떠서 써는 걸 보면요, '아휴! 예전에 나도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돼서 거쳐 올 때에 그 모습이 돼 보지 않았을까. 그 모습이 됐을 때 나도 저랬겠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의 세계에서 자연의 조물주가 창조하는 거는, 우리가 콩을 심어서 싹이 나면 창조입니다. 창조가 별달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임신을 해서 어린애를 뱄을 때는 바로 우리가 창조를 하기 위한 과정이고 생산이 됐으면 창조입니다, 모두가.

우리가 그렇게 수억겁을 거치면서, 광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거치면서 거듭거듭 몸을 바꿔서 태어나면서 이렇게 진화를 해서 인간까지 왔기 때문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이 여섯 가지를 다 가지고 우리가 100%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남한테 그냥 갖다가 놓고선 빌어요. 기도한다고 그러죠. 나는 기도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소리 절대 하지 마라. 네 자신을 네 자신으로, 주인공 뿌리로 알고…."

> 내 깊은 가슴속에,
> 벼락이 치고 물바다를 이루고
> 비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 내 가죽 속에다
> 마음의 불을 켜세요



진짜니까 불성의 뿌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모든 것은 거기에, 안에서 일어나는 거든지 바깥에서 부닥치며 닥쳐오는 거든지 모든 것은 거기에 놓고, 내가 구정물을 맑은 물로 대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굴림을 그대로 잘 배우셔서 내 몸으로나 가정으로나…, 내 몸도 큰 살림살이입니다. 이 몸 안도 큰 살림살이기 때문에 우주하고도 맞먹고 은하계하고도 맞먹습니다. 보기에 작아서 그렇죠.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대뇌에도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이 입력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섭류를 아시려면 내 영원한 친구며 내 영원한 아버지며 내 영원한 부처며 내 영원한 불성이며 내 영원한 주인공인 그 자리에서 모두가 나오는 거니까, 내가 나를 믿고 모두 그 자리에다 되놓을 줄 알고 되믿을 줄 알고 거기서 참나를 탄생시킬 줄 알고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차원이 낮든지 높든지 무조건, 오늘 이 천도는 정말 무량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천도를 했으니까 이다음에 기념하는 의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제 걱정이 없을 겁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아십니까? 씨앗을 봄에 심듯이 그 종자를 산하대지에 묻어 주는 겁니다. 묻어 줘서 그 싹이 나게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귀신이 귀신을 보지, '귀' 자를 하나 써서 그렇다는 거죠. 아수라장을 만들며 마구니짓을 하는 사람도 한생각을 돌리면 선신인데 한생각을 못 돌려서 마구니죠. 그래서 귀신이나 선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신' 자는 똑같이 귀신 신(神) 자를 쓰겠죠? 하여튼 모든 종자들을 한데 모아서 봄을 만들어 놓고 봄씨를 산하대지에 뿌려서 그 싹들의 아주 불쌍한, 부모가 울고 자식이 울었던 그 사연들을 방치하지 않고, 그대로 이 세상에 거룩한 분으로 태어나서 훌륭하게 나라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국민이 되게 하고, 부모자식지간에도 서로 효자가 되고 효부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오늘 결심했습니다. (대중 박수)

여기 대구에서 나도 할 말을 다 못하고요, 건둥건둥 뛰었어요. 허허허…. 뭐, 어느 끝 하나만을 붙잡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충대충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다음에 자세히 또 어떤 거를 붙들고 좀 질문해 주세요. 지금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두서너 분 하시고요.

질문자1(여) : 저는 대구지원 청년회 회원입니다. 제가 처음 스님을 뵈었을 때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정말 작은 스님이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저의 큰 스승님이시고 길잡이십니다. 처음 이 법을 만났을 때 스님 법문이 저에겐 자장가였을만큼 지겹고 따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아! 이 말씀이구나!' 하고 느낄 때가 많아졌고 지금은 스님, 너무 사랑합니다. 스님, 제가 이 법을 만나고부터는 '아, 이 세상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그렇게 모든 게 엮어졌습니다.

또 누가 힘들어하고 고달플 때 말씀 한마디 전하는 것이 그대로 광명의 법이고 힘임을 느꼈습니다.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한 30분만 얘기하면요, 금방 목소리가 밝아져서 수화기를 놓았고요, 심지어 이혼까지 하려는 부부싸움도 저하고 두 시간의 대화로 봄눈 녹듯 녹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의 힘을 얼마나 크게 느꼈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제가 얘기할 때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얘기하고 스스로 힘을 얻을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님,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한 치 앞도 모르는 자신을 봤거든요. 그럴 땐 또 한생각이 '일체가 그 자리의 나툼임을 믿고 세세하게 체험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야지 뭘 또 나를 세우고 알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이 뒤따랐습니다. 이런 생각이 또 근본에서 나온 길잡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답답하다가 '그래!' 하고 편해지곤 했지만요, 번번히 해답은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큰스님 : 감사해요.

질문자1(여) : 이 자리를 빌려서요, 점검의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스님, 이 법을 알고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는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나 어떤 결과에 대해 이유를 많이 붙이는 듯합니다. 뭐가 잘되면 마음공부를 잘해서고 뭐가 잘못되면 마음공부를 못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 그것이 아니에요. 잘되는 것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고 답답한 것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되는 것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안되걸랑 '되게 하는 것도 너다.' 그러고 거기다 놓고, 또 된 거는 감사하게 놓고 그렇게 하면 찰나찰나 바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내가 '아이구, 안된다.' 이럴 때도, 보세요! 차를 타고 가는데 내릴 때를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또 탈 때를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타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고 내리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둘이 아닌 까닭이죠.

질문자1(여) : 감사합니다.

사회자 : 법회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질문하실 법우님들이 아직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질의 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95년 3월 12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요법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반신욕 을 하면 하체의 따뜻한 혈액과 상체의 차가운 혈액사이에 대류현상이 일어나 잘순환 된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 되기 때문에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휘나핫반신욕기는 3~4년전부터하루 200~250명씩 무료체험을 하였으며 지금은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체험방을 이용하는 체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휘림건강 (주)은 철,칼슘,마그네슘, 셀레늄,등이든 광물질 30여종 (특허획득 제10-096707 호 발명의 명칭 :세라믹 전기발열체 및그제조방법)을 혼합하여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디스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자사의 브랜드인 휘나핫 반신욕기에 내장하여 보건진료소, 노인정 경노당,한의원,산후조리원, 복지원,등에 납품 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가정용을 개발하여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대씩 보급 될것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능성 반신욕기 어디까지 개발됐나
기술의 진보가 건강 혁명을 일으켰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한마디로 기술의 진보가 이룩한 건강혁명이다.

휘나핫 슈퍼블랙디스크 반신욕기는 일반제품과, 제조방식이 전혀 다르며 30여종의 광물질에서 방사되는 B.CP 슈퍼블랙디스크는 섭씨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특별한 온열이다. 여기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로 반신욕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면상 발열체 반신욕조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이 기능성을 갖는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기능성 외에도 친환경을 고려했다. 이동이 편리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가구개념을 도입하여 고풍스런 분위기를 위하여 원목 (적삼목)으로 제작했다. 휘나핫B.C.P 반신욕기는 신개념의 발명품이랄 수 있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부림출판사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불자 세상보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민주정부 10년 동안 시도된 개혁에 대한 피로도와 경제발전에 대한 과도한 강박관념으로 국민들이 소위 '경제대통령'을 선택한지 어느덧 4년째 접어들고 있다. 애초에 불가능했던 747 - 7% 성장, 4만불 소득, 세계 7위 경제달성 - 공약(公約)이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된 건 차치하더라도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국민에게 요구하는 대가는 너무 크며, 그 과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성장을 통한 분배라는 현 정부의 가치는 온데간데없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물론 상대적 박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지상주의의 기치아래 현 정부는 경제 외적인 사회문제를 모두 이념적으로 재단하는데 일가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촛불시위, 미네르바 사건처럼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의 비판, 반생태적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운동, 무자비한 도심재개발에 희생된 용산참사, 불공정한 한-미/한-EU FTA협약에 대한 반대, 기업에 대한 건전한 비판, G20 회의에 대한 반대의견, 심지어는 우리가 그토록 희망하는 서구 선진사회에서 보편화된 무상의료, 무상교육 주장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가치에 반하는 모든 주장이 민주사회의 공론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정쟁의 하나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동적으로 불순한 세력의 음해로 간주된다. 이념의 과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심각하고 근원적인 문제는 틈만 나면 '국격'을 강조하는 정부여당의 행태이다. 지난 3년 동안 국회에서 여당이 주도한 날치기 파동은 빠짐없이 행사되었으며, 올해 내내 많은 공공사업에서 국고지원금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야기할 작년의 예산 날치기 파동은 화룡점정이었다. 한편, 시민사회의 감시와 통제기능을 통해 호된 비판을 받은 정부인사들은 전가의 보도처럼 걸핏하면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대응하고 검찰은 일방적인 수사권을 남발하여 시민사회의 건전한 비판기능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소위 '합법적' 폭력이라는 국가권력을 지닌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도 점점 더 거칠어지는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정부여당의 이러한 태도가 직간접적으로 사회의 폭력현상을 조장해내지는 방조한다는 점이다. 폭력의 현상은 다양하다. 법과 질서의 이름아래 빈번하게 시민사회를 겨냥하여 자행되는 공권력의 행사, 최근 피해자의 부모에 의해 알려진 전의경 구타사건처럼 국가권력의 무관심 속에서 물리력이 직접적으로 행사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현 정부 내내 인사만 하면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에 대한 불감증, 소위 '고소영', '강부자'내각으로 대변되는 특정 지역, 학맥, 종교에 대한 편향은 힘없는 시민사회에 대한 일종의 간접적 폭력에 해당된다. 이러한 폭력은 또 다른 극단적인 태도를 유발한다. 최근 몇몇 대학의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사태에서 보이듯 권력을 향유한 집단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약자에 대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고, 거대권력에 무력한 사람들은 반대로 자신들끼리 폭력적인 모습을 답습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목청높인 주장을 펴고, 누군가 조금이라도 자기영역을 침범하면 흥분하고 폭력적인 대응을 보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한다.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통해 알려진 소위 지하철 욕설녀 및 성추행사건, 교실에서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위협, 나아가서 욕설 한마디라도 섞지 않는 대화가 없을 정도의 학생들의 언어폭력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에서 점잖은 말소리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물리적 폭력보다 얼어붙은 마음의 폭력이 겨울 한파보다 더 차갑게만 느껴지는 건 단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나는 사회지도층이 모두 도덕적이고 금욕적이어야 한다는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펴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이들이 사회 속에서 구타유발자는 되지 말아야하지 않겠는가? 말로만의 '공정사회'가 아닌, 지난 해 우리사회의 최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제목처럼 최소한의 '정의'는 작동하는 사회가 되길 희망해본다. 최소한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라도.

사부대중 칼럼

아버지 내복 덕에 대학 다닌 패셔니스타



나수현
넥센타이어 근무

우리 아버지는 근 20년을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셨다. 회사에 다닐 때 아버지의 일과는 살인적이었다. 5시 기상, 출근 준비 및 식사를 마치고 5시 30분 출발. 현장에 도착하면 작업자들과 국민체조로 아침을 시작, 조별로 모여 있는 작업자들에게 그날의 할 일을 설명, 설명이 끝나면 현장을 돌면서 작업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둘러보는 것. 즉,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을 하셨다.

겨울 건설 현장이 얼마나 추웠는지 아버지 출근 복장은 이러했다. 상하의 내복, 축구양말을 무릎까지 올려 신음(가끔 양말을 면바지 위로 올려 신기도 함), 티셔츠, 그 위에 니트 스웨터 그리고 작업 점퍼. 특히 내복은 두 겹을 입을 때도 있었다.

결코 멋있다고 할 수 없는 모습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 다른 아버지들처럼 양복과 넥타이에 서류가방을 들고 출근하지 않는 아버지를 조금 창피해 했던 것 같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나는 아버지가 내복 입는 것과 그 위에 축구양말 올려 신는 것을 특히 싫어했다고 한다.

퇴직하신지 10년이 됐는데도 아버지는 겨울만 되면 내복을 찾으신다. 등산할 때, 낚시할 때는 물론이고 집안에서는 내복만 입고 계신다. 나는 커서도 아버지가 내복을 입는 것이 싫었다. "아빠 집에서 그 내복 좀 입지 마. 흉해." 그러면 아버지는 또 내복이 위대하다는 둥 얼마나 훌륭한 옷인줄 아냐는 둥 이상한 예찬론을 펼쳤다.

입사 초기, 신입사원들의 현장 실습 명목으로 모터스포츠 행사에 지원을 나갔던 적이 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레이싱 경기장에 야외 부스를 설치하고 행사장에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나눠줄 간단한 기념품이나 음료 등을 준비하는 일을 해야 했다. 현장에는 경기 시작 3시간 전에 입장해 부스 설치 등 사전 준비를 마쳐야 했다.

아버지가 기상하던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다. 얼른 준비하고 집을 나서려는데 거실에서 주무시던 아버지가 말했다. "야, 내복 입고가. 얼어 죽어."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싫어. 둔해 보이고 구려." 자신 만만하게 출근길을 나섰지만, 새벽에 외출 해 본적 없는 나는 새벽이 그렇게 추운지 처음 알았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새벽바람이 칼날처럼 옷 속을 파고들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추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곧바로 아버지의 "내복 입어, 얼어 죽어"라는 경고가 생각났다.

하지만 나 같은 패셔니스타가 내복을 입음으로써 뚱뚱해보이고 소위 옷발이 서지 않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그런 생각도 잠시, 이제 정말 내 몸뚱이 추운 것 외에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다. 버스를 기다리는 3~4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 없었다. 패셔니스타도 숨이 붙어있어야 패셔니스타겠구나 싶어 집으로 돌아갔다. 장롱 서랍을 뒤져 중학교 때 마지막으로 입었던 내복을 찾아보았으나 남아 있을 리가 없었다.

그때 아버지가 자기 내복을 건네며 "야, 내 것이라도 입고가. 내복이 쫄쫄이라서 너한테 맞을 수도 있어." 나 같은 패셔니스타에게 남자 내복을 입고 나가라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잠도 덜 깬 아버지에게 마구 짜증을 냈다.

내복을 입지 못하고 나는 다시 출근길에 올랐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정말 너무 추웠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내복을 입고 온 모양이었다.

정말 너무 추워서 '아빠 내복이라도 입고 올걸…' 하고 후회하는 와중에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내복도 안 입고 갔는데 춥지 않느냐, 원래 해뜨기 전이 제일 추운 법이다, 혼자 서 있으면 더 추우니 사람 많은 곳에 같이 서 있어라, 너는 밥도 안 먹었으니 더 추울 것이다" 등 겨울 새벽 현장의 조언을 해 주었다.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 아버지 직장생활 20년 동안 20번의 겨울을 내복이 없었으면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애를 낳아봐야 엄마 마음 안다더니 나는 새벽 야외 근무를 해 보고서야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았구나, 내가 대학에 다녔구나, 내가 고생 모르고 곱게 자랐구나, 아버지한테는 신경질을 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생각해도 살이 얼얼한 나의 겨울 현장 근무 내내 아버지 생각을 했다. 태어나서 아버지 생각을 제일 많이 한 날이었다. 그 날 패셔니스타는 난생 처음으로 내복 쇼핑을 했다. 이 글을 통해 모든 아버지들에게 파이팅을 전하고 싶다. 특히 따뜻한 실내가 아닌 추운 현장에서 고생하며 일하시는 아버지들에게 파이팅!

社說

142대 2대 1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4년째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을 해오고 있다. 공모전은 내·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 및 템플스테이에 대한 호감과 관심을 높여 한국불교를 세계화하고 대중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올해도 어김없이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대상이 발표됐다.

시상식에 즈음해 사업단은 수상작들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서 전시를 시작했다. 매년 대상 1편과 우수상 2편 등 4년 동안 쇼윈도우를 거쳐간 작품만 142편에 이른다. 142편 가운데 출시된 제품은 단 두가지. 제1회 입선작인 불교적 문양이 장식된 북마크와 제2회 입선작인 단청문양을 포장에 활용한 티슈 정도다. 두 상품을 구경이라도 하려면 사업단이 위치한 템플스테이회관 카페에서만 가능하다. 142편 중 단 두 편. 어느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일뿐더러 그 상품마저 단 한곳에서 판매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사업단은 제품 출시까지에는 신중한 검토와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작품들의 스토리텔링, 시장성 등을 고려해 제품 출시가 결정된다는 것. 하지만 사업단에서 이들 과정을 담당하는 직원은 단 한 명이라고 한다.

사업단은 "인력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며 4회 공모전이 끝난 후 그동안 선정된 작품들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수많은 출품작 가운데 옥석을 가려 선정된 142편의 작품들이 하나씩 상품화돼 불교문화상품 콜렉션을 이루는 그 날을 기대한다. 전국 3000여 조계종 사찰을 비롯해 인터넷 쇼핑몰, 공항 면세점 등 곳곳에서 그 상품들을 손쉽게 만나는 그 날을 기대한다. 그것은 상조·생수 사업 등 조계종의 수익사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페이스북 '부루나'에 거는 기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인기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 서비스는 스마트폰과 함께 폭발적으로 보급·대중화되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인 서재영 박사가 페이스북 사용자들을 모아 만든 '부루나'가 인기이다. 3개월 전 결성된 부루나에는 현재 교계 안팎에서 활동 중인 스님, 재가자 등 3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페이스북 내 '부루나'라는 공간에서 교학적 논의서부터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일간지에 비춰진 불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 사회학자는 한국에서 SNS서비스가 급속히 번지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인들이 오프라인 생활에서 쌓인 답답함과 분노를 온라인상에서 표출하려는 욕구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불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적었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리라 본다.

27일 조계종은 불교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를 시작한다. 여느 학술포럼 같은 형식의 대토론회가 성공하려면 종단 최초 시행되는 인터넷 생중계로 단방향 홍보할 것이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 활동 중인 사이버 호법신장들의 의견을 토론회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정통침구학 수강생 모집
침구학 기본과정
· 자격 : 관심있는 분 · 월회비 : 9만원(교재포함)
· 기간 : 주1회 3시간 총 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 전통침구학/침뜸기초/부항/경혈경락/비만침법/미용침법/중국수침/한방기초 등
· 가정생활 진단(자가)상식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연수과정
· 소정의 연수과정 수료후 침구계(3년),중의계(5년), 결업증과 중국 침구사, 국가자격증 취득가능(해외사용가능)
· 의료 관련 업종의 소득증대효과, WTO개방 대비
· 세계 각국 해외 이민시 한방병원 설립 및 취업
※ CH중국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강좌 및 개강일정
서울206기) 1월 8일(토요반) 14시 | 신도림역2번출구
부산 31기) 1월 9일(일요반) 14시 | 전포역5번출구
서울207기) 1월 11일(화요반) 14시 | 신도림역2번출구
울산 2기) 1월 12일(수요반) 14시 | 신정동 효천빌딩뒷편
부산 32기) 1월 13일(목요반) 14시 | 전포역5번출구
제주 18기) 1월 13일(목요반) 19시 | CGV영화관맞은편
광주 20기) 1월 21일(금요반) 14시 | 화정역4번출구
CH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수행템플스테이
(깨달은 다이어트)
진짜쉼
머리의 번뇌를 쉬고 입을 쉬고 내장을 쉬는 지혜로운 템플스테이
※절, 염불, 독경, 참선, 와선, 행선, 부처님호흡법, 알아차림을 완벽하게 배우고 점검을 받으며 실천수행
청견스님 직접 수행교육지도
잠을깨고 혼침 졸음 이기며 피로풀고 스트레스 날리고 삼매 깨달음 100% 이해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챙김 알아차림
◉대상(누구나):출가예정자 행자 사미 사미니는 미래불공덕회에서 수련회비 전액 후원
◈수행일정(예약신청)
4차 2월 12~13일, 5차 2월 19~20일
6차 3월 12~13일, 7차 3월 19~20일
법왕정사 부산법당
전화 : 051)583-7886
www.법왕정사.kr(수행템플스테이)참조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하시는일
모두성취하시고기쁨과행복이
함께하시길기원합니다.

불심의 발길이 머무는 곳,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삼베 삼재풀이 @700원 (100개이상)



한지 삼재풀이 @700원 (100개이상)



www.buddhashopping.com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대량구입시 전화주십시요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 농협:121068-56-042256 [예금주:강태규]
※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 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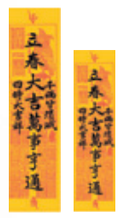

경면주사삼재부적 9×20cm (100매) @6,000원


공 단 등 8cm 1BOX 24개 / 등지름 24cm 할인가 @3,000원 (96개이상)


신형바림등 8cm 1BOX 24개 / 등지름 24cm 할인가 @3,000원 (96개이상)


비닐만월등(특) 1BOX 100개 / 등지름 30cm 할인가 170,000원


집게PVC등표 / 칼라등표 (100매 포장) @20,000원/@6,000원


입 춘 대 길 (大/小) 할인가 @大 3,000원 (7.2×28.5cm) @小 2,000원 (5.0×19.5cm)


한지 입춘대길세트 100조(大/2도) 할인가 @ 大 12,000원 (10×43cm) @2도 10,000원 (7×30cm)


신년맞이기도부 할인가 @800원 (100개이상)


음양오행만재풀이 할인가 @800원 (100개이상)

아름다운 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만월등 팔각접등 종등

찬덕불교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신상품 찬덕 LED 전구


大 小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 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덕불교가 개발 한 LED 인등 · 영구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정도만 소요됩니다.


봉녕사 인등


용학사 목련관 위패

■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031) 792-6288, 794-4055 / 팩스: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불화 수월 관세음 보살圖

중생의 고를 다 해결하신후에 열반에 들겠노라 원을 세우신 관세음보살은 언제 어디에나 여러 모습으로 중생들 속에 나투시고 계십니다.

불자들은 고통이 있을때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염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불자가운데 많은 분들이 관음보살 그림을 가정에 두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상이나 그림상 속에 불보살님의 마음이 있는줄 잘 못 알고 사찰이 아닌 곳에 있는 불상이나 그림상에 기도, 염불, 절 또는 예물을 올려 잘못되는 불자가 있지나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일부 스님들이 가정에 상을 두고 모시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마음에 관한 것이지 물질이나 상은 허망하여 공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보살님의 마음이 물질로 된 돌, 나무, 철 이나 그림으로 된 상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불보살님께 크나큰 불경이되며 염불을 하더라도 공염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보살님의 마음은 살아 숨쉬며 믿고 생각할 줄 아는 중생의 마음안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곧 부처임을 배워 알면서도 우리들 중생이 어리석어 믿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불상이나 그림상을 보며 마음속에 불보살님의 마음이 같이 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마음속의 불보살님께 기도, 염불, 절을 하면 그 즉시 전달이 됩니다.

불자라면 관세음보살 그림상 1점 정도는 눈이 자주 가는 곳(좋은 자리가 아님)에 두고 볼 때마다 염송을 한다던지 기도 등을 하고 모든일이 잘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잘되지 않을 때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것이라 믿고 관하는 것을 생활화 한다면 이것이 곧 생활선이 되어 자연 고는 사라지고 망념이 끊어져 성불에 다가설수 있을 것 입니다. 그동안 본인은 많은 사찰의 탱화를 조성하며 공부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으나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불자의 한사람이지만 불자 가정에 불화 1점 없는 것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되어 본인의 재현 작품중 고려불화 가운데 설화를 바탕으로 그려진 수월관음도의 작품성이 뛰어나 이를 축소 하여 벽에 걸거나 탁자에 둘수 있도록 고급으로 제작 권하고저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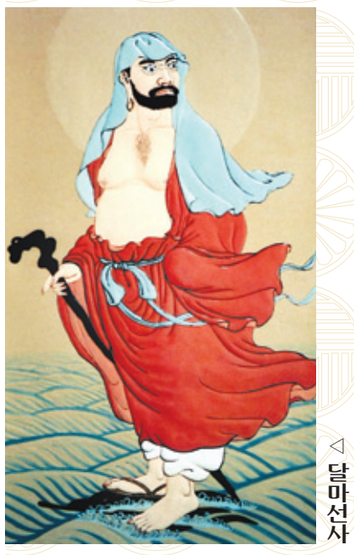
불자님들의 가정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고 하루 빨리 성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불모 민한식 합장

불모 민환식 대표작 ▼

조계사 대웅전 신중탱화 3.3×4.84m 조계사 덕왕정 극락탱화 8.8×2.7m
조계사 대웅전 영단탱화 13×2.1m 조계사 2만불 조성 (석가여래역사불 관음지장보살) 17×15×24cm


◁ 지장보살


◁ 달마선사

작품규격 : 28cm × 43.5cm
재 질 : 원낫원목 / 아크릴(표면) (벽걸이 탁상용 겸용)
가 액 : 12만원 (택배비 포함)

10점이상 구입시 10% 할인해 드립니다.

설날선물로 최고!!!

일심공예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77-10 301호
031)421-1040 | 010-2284-7395 | 010-7158-0004
계좌번호 : 농협 356-0413-3251-63 (예금주 : 민한식)